

펫보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이두영 · 홍연아 · 김태후 · 이정민 · 전종범



펫보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이두영 · 홍연아 · 김태후 · 이정민 · 전종범



연구 담당

이두영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홍연아 | 부연구위원 | 해외사례(미국), 설문조사

김태후 | 부연구위원 | 국내 펫보험 현황

이정민 | 부연구위원 | 국내 반려동물 현황, 설문조사

전종범 | 연구원 | 해외사례, 자료 수집 및 정리

정책연구보고 P294

펫보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3.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P&B (주)

I S B N | 979-11-6149-696-2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과 1인 가구 증가·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난 기간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복지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복지 및 연관산업 규모는 다른 반려동물 복지 선진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체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병원비 부담 완화의 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펫보험을 연구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 혹은 상해 발생 시 입·통원비와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으로 수의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펫보험 활성화 방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편의를 높이고 연관산업 성장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국내 펫보험 실태를 파악하고,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펫보험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장한 미국·일본·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의업계, 보험사, 정책담당자, 학계 등 펫보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도움을 주신 반려동물 양육자, 수의업계, 펫보험 종사자분들과 연구를 위해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원내외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 두 봉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우리나라 펫보험(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려동물 및 펫보험 현황, 펫보험 이용 실태 조사, 펫보험 해외사례 등을 분석함.

연구 방법

- 펫보험 현황 파악을 위한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및 통계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펫보험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연구 기간별 잠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내용 검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계량 분석 등을 실시함.

연구 결과

- 펫보험은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의 질병 혹은 상해 발생 시 입·통원비와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말함. 그리고 펫보험 시장에는 반려동물 보호자, 정부, 수의사, 보험사,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동물병 원용 전자차트)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함.
- 우리나라 펫보험 시장은 2000년 동양화재(현 메리츠 화재)에서 ‘애완동물 지킴이 보험’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역사가 짧은 편임. 또한, 지난 기간 손해율 악화로 펫보험 판매가 중단된 경험도 여러 번 존재함. 다만, 최근 들어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개선 및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펫보험 가입자 수와 보험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렇지만 아직 낮은 수준의 보험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자의 펫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 6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및 펫보험 가입 실태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자의 반려동물 관련 지출의 평균값은 높은 수준이지만, 가구별 편차가 높아 다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또한, 펫보험과 관련하여 인지도와 가입 의향은 높게 조사되었으나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보험료에 대한 납부 부담’, ‘적절한 판매 상품 부재’, ‘펫보험을 신뢰할 수 없음’, ‘동물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음’ 등이 조사됨.

○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함. 분석 결과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소득이 동물병원비 지출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이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도 병원비 지출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또한, 과거 및 현재 많은 수의 반려동물을 양육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물병원 지출액이 높다고 볼 수 없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소득, 학력, 과거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 등과 상관없이 노령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병원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반려동물의 연령을 고려한 병원비 경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의향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먼저, 펫보험 가입 의향 분석 결과 동물병원에 대한 지출액이 높거나 고액의 수술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일수록 가입 의향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이를 고려한 펫보험 상품 개발의 필요성 있고, 반려동물 연령이 낮을수

록 가입 의향이 높으므로 어린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펫보험 가입 홍보 및 마케팅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펫보험 가입 필요성 분석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동물병원 진료 경험이 있을 경우 펫보험의 가입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동물병원 진료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도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판매가 필요함. 그리고 펫보험 인지도가 높더라도 가입 필요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는 점은 고객 수요에 맞는 펫보험 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펫보험 가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지불의사금액(WTP) 분석을 실시함. 분석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지불의사는 4만 7,566원/월(표본 조정 시 4만 5,322원/월)이 추정됨.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지불의사금액이 반려동물 가구 특성 중 가구소득 수준보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 반려동물과의 친밀도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높은 경제적 능력이 높은 펫보험 지불의사금액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줌. 또한 반려동물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지불의사금액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반려동물이 노령화될수록 펫보험의 가격 상승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리고 상품의 속성에 따라 양육 가구의 차별적인 선호가 있어 펫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 다양한 선호를 고려한 특화된 상품 개발 및 판매의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 펫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반려동물 및 펫보험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장한 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함. 미국은 반

려동물 연관산업 세계 최대 국가이며 펫보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동물 등록제와 라이선스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동물병원협회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진료표준화를 실시하고 있음. 진료비 공개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미국 동물병원협회에서 2~3년마다 평균 진료 비용을 제시하는 “수의사 수수료 참조(The Veterinary Fee Reference)”를 발간하고 있음. 이 책에는 950개 진료소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500개 이상의 수의 서비스에 대해 항목별로 가격 정보를 제공함. 진료기록부 공개는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마다 차이가 있고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최소 3년임.

-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상황 및 제도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국가임. 일본은 과거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잘 키우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고령화 및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일본의 펫보험 역사는 1995년부터 시작되며 우리나라보다 약 5년 정도 빠르고 펫보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이러한 성장은 펫보험 전문회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펫보험 회사의 다양한 사업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일본의 동물등록제는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진료표준화는 일본수의사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진료비 공개 또한 일본 수의사협회에서 소동물에 대한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가정 사육 동물(개·고양이)의 진료 요금 실태 조사 결과’를 1999년부터 세 차례 실시하여 발표함. 또한 일본 최대 펫보험 회사인 애니콤(Anicom)사는 자사 기준 종별, 연령별, 질병별 평균 진료금액을 무료로 인터넷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진료기록부 공개에 있어서 일본 또한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가 없어 우리나라와 동일함. 다만,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1년인 우리나라보다 보관 기간이 길고 농림수산성 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필요를 인정할 때 수의사에 대하여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만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없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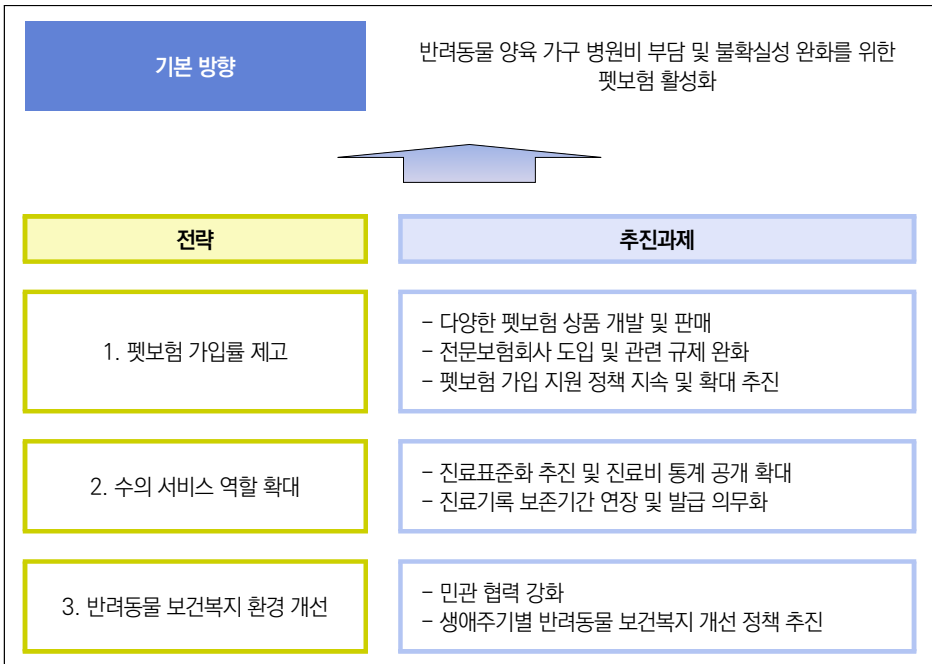
- 스웨덴은 반려동물 최대의 복지 국가 중 하나임. 스웨덴에서는 1890년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보험상품을 출시하였고 이후 1924년에는 개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하여 현재의 펫보험의 시초가 되었음.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개와 고양이 모두 생후 4개월이 되기 전에 마이크로칩이나 문신을 표시해야 하며, 스웨덴 수의사협회에서 진료표준화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스웨덴의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 공개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와 같은 예방 치료와 일반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금액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음. 질병 및 부상 치료의 경우 수의사가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 진단 및 다양한 치료 옵션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는 사전에 병원 측에 금액을 문의해야 함. 진료기록부는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 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정책 제언

- 펫보험 활성화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기본 방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병원비 부담 및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펫보험 활성화임. 기본 방향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으로 펫보험 가입률 제고, 수의 서비스 역할

확대, 반려동물 보건복지 환경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함.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펫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및 판매, 전문보험회사 도입 및 관련 규제 완화, 펫보험 가입 지원 정책 지속 및 확대 추진 등이 있음. 수의 서비스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진료표준화 추진 및 진료비 통계 공개 확대,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및 보존기간 연장임.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복지 환경 개선 추진 과제로 민관(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수의협회, 동물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협력 강화, 생애주기별 반려동물 보건복지 개선 정책 추진을 제안함.

〈그림〉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자료: 저자 작성.

A Study on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Pet Insurance Market in Korea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examined the pet insurance industry in Korea with the purpose of suggesting strategies to vitalize the industry.

Research Method

- We conducted a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statistical analysis,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interviews and surveys of pet insurance stakeholders, content review through expert advisory meetings, and quantification of survey results.

Main Findings

- Pet insurance refers to actual loss insurance that covers hospitalization, outpatient and surgical expenses in the event of illness or injury to companion animals (dogs, cats). There are various stakeholders in the pet insurance market, including pet owners, governments, veterinarians, insurance companies, and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electronic chart for veterinary hospitals) companies.
- Korea's pet insurance market has a relatively short history, and there

have been several instances in the past period where pet insurance sales were discontinued due to worsening loss ratios. However, recently, the number of pet insurance subscribers and premiums are increasing due to the government's active policy promotion to improve companion animal welfare and develop related industries. However, the insurance subscription rate is still at a low level.

- In order to analyze the pet insurance subscriptions among pet owners in Korea and seek policy implication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600 pet owner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the average pet-related expenditures of Korean pet owners are high, but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s of many pet-rearing households are much lower than this average. In addition, awareness and willingness to subscribe to pet insurance were surveyed to be high, but the reasons for hesitation in signing up for the insurance include ‘burden of paying insurance premiums’, ‘lack of appropriate sales products’, ‘pet insurance is unreliable’, and ‘do not use veterinary hospitals often’.
-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animal hospital expenditures among households raising pets in Korea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me of households raising pets in Korea and the amount spent on veterinary hospital expenses. This suggests that even pet-rearing households with relatively low income may face a

significant burden of hospital expenses. In addition, even if a large number of pets were raised in the past and present, the amount spent on veterinary hospitals may not be high, and regardless of the income of the household raising pets, education level, and the number of pets raised in the past, the burden of hospital expenses for households raising elderly pets is relatively high.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ursue a policy to reduce hospital costs that takes into account the age of companion animals.

-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willingness and necessity of pet insurance for households raising pet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intent to subscribe to pet insurance, pet owners who spend more on veterinary hospitals or have experience with expensive surgeries show a higher intent to subscrib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pet insurance products that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And, the younger the pet,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subscribe, so there is a need for promotion and marketing of pet insurance for young pet owners. Similar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signing up for pet insurance, it is possible that households raising pets will be more aware of the need to sign up for pet insurance if they have experience receiving treatment at a veterinary hospital.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sell products that allow even pet owners with experience in veterinary hospital treatment to sign up for pet insurance. And the fact that even if awareness of pet insurance is high, it is difficult to see a

high need for subscription,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emphasize the positive effects of signing up for pet insurance through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pet insurance products that meet customer demand.

- Analysis of pet insurance willingness to pay (WTP) of households raising pets in Korea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willingness to pay for pet insurance among households raising pets is estimated to be 47,566 won (45,322 won when adjusting the sample). In addition, the willingness to pay for pet insurance among households raising pets appears to be related to pet-related expenditures and intimacy with pets rather than household income level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pet households. This shows that the high economic ability of households raising pets does not lead to a high willingness to pay for pet insurance. Additionally, even as the age of the pet increase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increase in willingness to pay. As pets age, the price increase of pet insurance can become a burden on households raising pets. Additionally, as there are differentiated preferences among the household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roduc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sell specialized products that take various preferences into consideration when developing pet insurance products.
-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Korea's pet insurance industry, we

analyzed cas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weden, where the companion animal and pet insurance industries grew before Korea. The United States is the world's largest pet-related industry, and pet insurance is growing rapidly. The United States operates both an animal registration system and a licensing system, and standardizes treatment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the 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Although it is not a legal obligation to disclose medical expenses, the 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publishes “The Veterinary Fee Reference,” which presents average medical expenses every two to three years. This book provides price information by item for more than 500 veterinary service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950 clinics. Disclosure of medical records is mandatory, but it varies by state, and the retention period for medical records is at least 3 years.

- Japan is a country that has many similarities to Korea in its pet care situation and system. In the past, Japan did not often raise pets at home, but since the 2000s, the number of apartments where pets could be kept has increased, and with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pets has increased, but has recently shown signs of stagnation. Japan's pet insurance history dates back to 1995, about 5 years earlier than Korea's, and the pet insurance market is growing rapidly. The background to this growth appears to be the active role of pet

insurance companies and the diverse business structures of pet insurance companies. Japan's animal registration system is expanding its mandate for microchip insertion, and standardization of care is being centered around the Jap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Regarding the disclosure of medical fees, the Japan Veterinary Association has conducted and announced the 'Results of a Survey on Medical Treatment Fees for Domestic Animals (Dogs and Cats)' three times since 1999 with the aim of increasing transparency in the treatment of small animals. In addition, Anicom, Japan's largest pet insurance company, operates a service that provides free online average medical treatment costs by species, age, and disease based on the company's standards. Regarding disclosure of medical records, Japan is also the same as Korea as there is no obligation to disclose medical records. However, in that medical records must be kept for at least 3 years, which is longer than in Korea, where it is 1 year,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r the prefectural governor has the authority to inspect the medical records and optometry records of veterinarians when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r the prefectural governor recognizes the need. There is a difference with Korea where it is only available to city/provincial governors or mayors/county heads, but not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Sweden is one of the largest pet welfare countries. Sweden launc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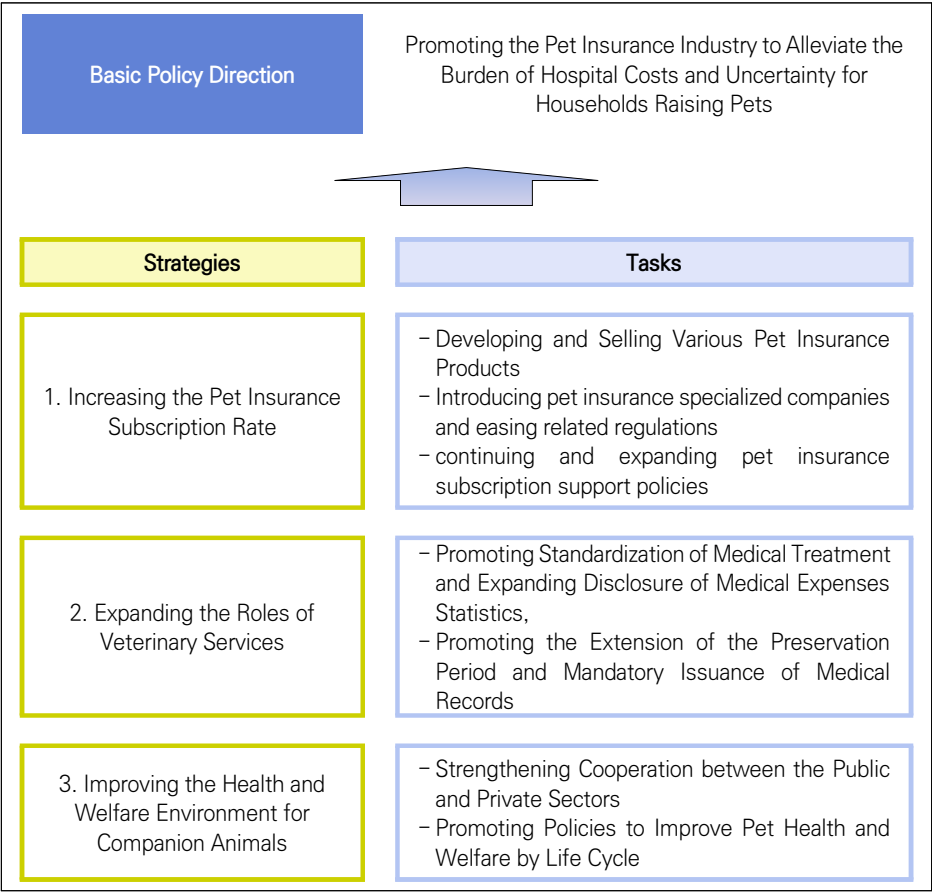
the world's first insurance product targeting livestock in 1890, and later launched an insurance product targeting dogs in 1924, which became the beginning of current pet insurance. Regarding the animal registration system, both dogs and cats must have a microchip or tattoo before they are 4 months old, and the Swedish Veterinary Association provides guidelines for standardization of care. In relation to disclosure of medical expenses, veterinary hospitals in Sweden announce prices for preventive treatments such as vaccinations and neutering and general medical procedures on their websites. In the case of treatment for diseases and injuries, a veterinarian checks the animal's condition and requires examination, diagnosis, and various treatment options, so pet owners generally need to inquire with the hospital about prices in advance. Medical records are required to be issued upon request by the pet owner and must be kept for at least 5 years.

Policy Suggestions

- The basic policy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pet insurance market in Korea are set as follows. The basic policy direction is to alleviate the burden of hospital costs and uncertainty for households raising pets. Three strategies to achieve the goal are proposed: increasing the pet insurance subscription rate, expanding the roles of veterinary services, and improving the pet health and welfare environment. In order to promote the pet insurance industry, it is

fundamentally necessary to increase the pet insurance subscription rate, and tasks to achieve this include developing and selling various pet insurance products, introducing pet insurance specialized companies and easing related regulations, and continuing and expanding pet insurance subscription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expand the roles of veterinary servic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standardization of medical treatment, expand disclosure of medical expenses statistics, make it mandatory to issue medical records, and extend the preservation period of medical records. Finally, As a task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fare environment for companion animal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Veterinary Associatio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etc.) and promote policies to improve companion animal health and welfare by life cycle.

〈Figure〉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Pet Insurance Market in Korea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s.

Researchers: LEE Douyoung, HONG Yeona, KIM Taehoo, LEE Jungmin, JEON Jongbeom
Research period: 2023. 6. - 2023. 12.
E-mail address: douyounglee@krei.re.kr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3. 연구 대상 및 내용	7
4.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8

제2장 반려동물 및 펫보험 현황

1. 반려동물 현황	9
2. 펫보험 현황	13
3. 펫보험 관련 정책 현황	43

제3장 펫보험 이용 실태조사

1. 조사개요	51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55
3. 설문조사 분석	90
4. 시사점	103

제4장 해외 펫보험 사례

1. 국내외 펫보험 산업 개황	107
2. 미국	109
3. 일본	127
4. 스웨덴	141
5. 시사점	154

제5장 펫보험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157
2. 세부 추진 과제	164

부록

설문조사표	181
-------------	-----

참고문헌	195
------------	-----

제2장

〈표 2-1〉 반려동물 양육현황	10
〈표 2-2〉 손해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 비교	14
〈표 2-3〉 수의사 분표 현황(2023년 3월 기준)	21
〈표 2-4〉 주요국 수의사 영업 여건(2020년 기준)	22
〈표 2-5〉 펫보험 주요 보험사 및 상품	25
〈표 2-6〉 메리츠화재 (무)펫퍼민트 Puppy&Love 상품현황	27
〈표 2-7〉 삼성화재 다이렉트(기본형)과 펫퍼민트 다이렉트(기본형) 상품 가격 비교	28
〈표 2-8〉 펫보험 판매 현황	34
〈표 2-9〉 펫보험 시장 집중도	35
〈표 2-10〉 펫보험 연령별·성별 가입 비중	36
〈표 2-11〉 보험 계약의 담보 구성비	36
〈표 2-12〉 펫보험 주요 사고(부위 및 증상)	38
〈표 2-13〉 보험사고 부위 및 증상별 그룹화	38
〈표 2-14〉 펫보험 참조순보험요율	42
〈표 2-15〉 부가세 면세 대상 100여 개 진료항목(안)	45
〈표 2-16〉 주요 반려동물보험 상품 비교	48
〈표 2-17〉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추진 일정	49

제3장

〈표 3-1〉 ‘반려동물 양육 및 펫보험 가입 실태 조사’ 설문지 구성	52
〈표 3-2〉 설문 응답자의 주요 특성	54

〈표 3-3〉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	55
〈표 3-4〉 반려동물 성별 및 주 양육자 성별	56
〈표 3-5〉 반려동물 품종(중복응답 가능)	57
〈표 3-6〉 반려동물 등록 여부	58
〈표 3-7〉 반려동물 입양 주 경로	59
〈표 3-8〉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연령 분포	60
〈표 3-9〉 과거 반려동물 양육 여부(중복응답)	61
〈표 3-10〉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	63
〈표 3-11〉 반려동물 생애 단계	64
〈표 3-12〉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 방문 주기	65
〈표 3-13〉 동물병원 1회 방문 평균 지출 비용	66
〈표 3-14〉 동물병원 방문 주된 이유(중복응답)	67
〈표 3-15〉 동물병원 선택 주된 기준(중복응답)	68
〈표 3-16〉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조치	69
〈표 3-17〉 설문 응답자와 반려동물과의 친밀도(5점 척도)	70
〈표 3-18〉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5점 척도)	71
〈표 3-19〉 반려동물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수술 경험 유무	72
〈표 3-20〉 과거 반려동물 양육 경험 유무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수술 경험 유무	73
〈표 3-21〉 100만 원 이상의 수술을 경험한 횟수	74
〈표 3-22〉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슬개골 탈구 비용	76
〈표 3-23〉 반려동물의 질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주일 이상 방치한 경험 유무	77
〈표 3-24〉 현재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병원 응급진료 경험	

유무	78
〈표 3-25〉 현재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1박 이상 입원 경험	
유무	79
〈표 3-26〉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4점 척도)	80
〈표 3-27〉 펫보험 가입 여부	81
〈표 3-28〉 펫보험 가입 필요성과 펫보험 가입 여부	83
〈표 3-29〉 펫보험 가입 선호 방식	85
〈표 3-30〉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펫보험 지불의사액	87
〈표 3-31〉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병원비 지출에 대한 헤크만 2단계 추정	
결과	91
〈표 3-32〉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의향 및 필요성 인식 분석	94
〈표 3-33〉 펫보험 가입 의향 한계효과 분석 결과	96
〈표 3-34〉 펫보험 가입 필요성 한계효과 분석 결과	98
〈표 3-35〉 지불의향 제시금액	101
〈표 3-36〉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펫보험 지불의사액 모형 추정	
결과	102
〈표 3-37〉 반려동물 양육자의 펫보험 월평균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103

제4장

〈표 4-1〉 미국 반려동물 개체 수	109
〈표 4-2〉 미국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	110
〈표 4-3〉 주요 항목별 연간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	111
〈표 4-4〉 반려동물 질환 유형별 평균 진료비용	112
〈표 4-5〉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금액 규모	112

〈표 4-6〉 미국 반려동물 연관산업 항목별 규모 추이	113
〈표 4-7〉 미국 펫보험 시장 규모	116
〈표 4-8〉 보장범위별 연평균 보험료	117
〈표 4-9〉 반려동물 유형별 월평균 보험 비용	118
〈표 4-10〉 보험사별 반려견 월평균 보험료	118
〈표 4-11〉 연도별 반려동물 총 개체 수	128
〈표 4-12〉 연도별 반려동물 입양 개체 수	129
〈표 4-13〉 연도별 일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129
〈표 4-14〉 일본의 연도별 반려견 양육 비용	130
〈표 4-15〉 일본의 연도별 반려묘 양육 비용	131
〈표 4-16〉 일본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추이	132
〈표 4-17〉 애니콤사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비교	136
〈표 4-18〉 아이펫사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비교	136
〈표 4-19〉 마이크로칩 장착 비율	137
〈표 4-20〉 월별 반려견 신규 등록 건수	142
〈표 4-21〉 연도별 반려묘 개체 수	143
〈표 4-22〉 보험회사별 보장범위별 보험상품	148
〈표 4-23〉 국가별 펫보험 관련 제도 비교	156

제5장

〈표 5-1〉 주요 반려동물보험 상품 비교	165
〈표 5-2〉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추진 일정	175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와 연구방법	8
-------------------------------	---

제2장

〈그림 2-1〉 반려동물 양육 비율	10
〈그림 2-2〉 반려동물 양육포기 및 파양고려 경험	12
〈그림 2-3〉 반려동물 양육포기 및 파양고려 원인	12
〈그림 2-4〉 펫보험 이해관계자의 구성과 역할	15
〈그림 2-5〉 국내 동물등록 방식 예시	17
〈그림 2-6〉 동물병원 영수증(청구서) 예시	19
〈그림 2-7〉 펫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23
〈그림 2-8〉 동물병원 전자차트 예시(인투씨엔에스)	29
〈그림 2-9〉 원스톱 진료청구시스템 POS	30
〈그림 2-10〉 펫보험 관련 부처 및 제도	32
〈그림 2-11〉 펫보험 가입률	32
〈그림 2-12〉 보험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 월별 추이	37
〈그림 2-13〉 일별 보험금 지급액(Scatter Plot)	39
〈그림 2-14〉 일별 보험금 지급액 분포	40
〈그림 2-15〉 일별 보험금 지급건수(Scatter Plot)	41
〈그림 2-1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44
〈그림 2-1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 시스템	46
〈그림 2-18〉 서울시 유기견 반려동물보험 지원사업	50

제3장

〈그림 3-1〉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연령 분포	60
〈그림 3-2〉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62
〈그림 3-3〉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항목별 비중	63
〈그림 3-4〉 100만 원 이상의 수술이 필요했던 병명(중복응답, %)	75
〈그림 3-5〉 100만 원 이상의 수술비분포(중복응답, %)	75
〈그림 3-6〉 펫보험 가입자의 펫보험 만족도(5점 척도)	82
〈그림 3-7〉 펫보험 가입자의 펫보험 가입 의향(5점 척도)	83
〈그림 3-8〉 펫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원인(중복응답, %)	84
〈그림 3-9〉 펫보험 가입에 있어 항목별 중요도(5점 척도)	86
〈그림 3-10〉 펫보험 관련 제도 인지도(4점 척도)	88
〈그림 3-11〉 동물병원 이용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5점 척도)	89

제4장

〈그림 4-1〉 전 세계 및 국내 수의 서비스 산업 대비 펫보험 산업 규모 비중(%) ...	108
〈그림 4-2〉 미국 반려동물 산업 규모 전망	113
〈그림 4-3〉 보험에 가입된 반려동물 수	115
〈그림 4-4〉 미국 펫보험 시장 규모 가입된 반려동물 수	116
〈그림 4-5〉 미국 동물병원협회 가이드라인(개의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진단)	122
〈그림 4-6〉 미국 동물병원협회 가이드라인(개의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진단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123
〈그림 4-7〉 미국 동물병원협회(AAHA)의 수의사 수수료 참조 (The Veterinary Fee Reference) 목차	124

〈그림 4-8〉 미국 동물병원협회(AAHA)의 수의사 수수료 참조 (The Veterinary Fee Reference) 가격 예시	125
〈그림 4-9〉 연도별 반려동물 개체 수	128
〈그림 4-10〉 반려동물 관련 총 시장 규모	132
〈그림 4-11〉 펫보험 시장 규모와 가입률	134
〈그림 4-12〉 일본 수의사회 ‘가정 사육 동물(개·고양이) 진료 요금 실태 조사 결과’ 예시(초진료/ 재진료/ 통상)	139
〈그림 4-13〉 일본 애니콤사의 진료금액 제공 서비스 예시 (위염/위장염/장염 진료비, 토이 푸들)	140
〈그림 4-14〉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 및 전망	144
〈그림 4-15〉 스웨덴 반려동물 용품 시장 규모 및 전망	144
〈그림 4-16〉 스웨덴 수의서비스업 규모(매출액 기준)	145
〈그림 4-17〉 스웨덴 동물보험 시장 점유율	147
〈그림 4-18〉 연간 동물보험 수입 보험료 총액	149
〈그림 4-19〉 연간 동물보험 지급 보험금 총액	150

제5장

〈그림 5-1〉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164
〈그림 5-2〉 트루패니언 펫보험(0세 말티즈 수컷기준)	166
〈그림 5-3〉 손해보험 판매방식별 보험료 수입	167
〈그림 5-4〉 인구 대비 반려동물 수 비중(%)	168
〈그림 5-5〉 미국 동물병원 협회와 일본 수의사회의 진료비 공개 예시	173
〈그림 5-6〉 동물병원 이용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5점 척도)	175
〈그림 5-7〉 반려동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178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¹⁾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중은 25.4%로 2010년 17.4%와 비교하였을 때 상승 추세이다. 2022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2만 가구, 1,306만 명이며, 이 중 반려견이 545만 마리, 반려묘가 254만 마리로 총 799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복지 수준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반려동물 생애주기별(입양/양육/사후 단계)로 분양, 진료, 안전관리, 유기, 장례 등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의 양육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육 가구의 부담

¹⁾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함(동물보호법 제2조 제7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2022년 월평균 양육비는 20.82만 원으로 2020년 11.69만 원, 2021년 16.3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월평균 병원비는 2022년 8.34만 원으로 전체의 20.4%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1년 5.5만 원에서 51.6% 증가하였다. 다만, 한 번에 큰 금액이 지출될 수 있는 수술비 등을 감안하였을 때 반려동물 병원비는 양육 가구에 예상하지 못한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특히 병원비 부담 완화는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복지 개선에 중요한 부분이다. 의학 기술 발전 및 생활 환경 개선으로 반려동물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병원비 부담 완화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²⁾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양육 가구의 장기적 관계를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줄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유실·유기 동물은 11만 3,440마리(개 80,393마리, 고양이 31,525마리, 기타 1,522마리 등)로 신규 등록 반려견이 29만 958마리, 고양이가 9,683마리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많은 수이다. 또한, 유실·유기 동물 중 개의 자연사 및 안락사의 비중은 각각 16.8%와 22.1%이고, 고양이의 자연사 및 안락사 비중은 52.9%와 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대상으로 질병·상해에 대한 동물병원 입·통원비나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자는 펫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개선 역할 뿐만 아니라 펫보험 시장 및 수의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펫보험 시장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입률이 낮고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2년 10월 말 기준 신용정보원에 확인된 펫보험 가입자 수는 약 5.5만 명으로 반려동

2) 파이낸셜뉴스(2023. 1. 26.), “반려동물도 반려인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하고 싶다”.

물 수(799만 마리) 대비 1% 미만의 가입률 수준이다. 펫보험이 활성화된 스웨덴 40.0%, 영국 25.0%, 미국 2.5%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김경선·강윤지, 2023). 이는 우리나라의 펫보험 상품이 2000년대 후반에 처음 도입되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아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펫보험에 대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입 필요성이 아직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호자, 의사, 보험사, 제도 등 펫보험을 둘러싼 부문별 실태 및 해외 사례를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치료비 경감과 반려동물 진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펫보험 관련 종사자 및 정책 담당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및 복지 개선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펫보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펫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가입 의사 및 요인 분석, 보험 가입 반려동물 특징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2.1.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및 복지 개선방안 연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및 복지 개선방안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영대(2016)와 지인배 외(2017)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안 관련 대

표적 연구이다. 이영대(2016)는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및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을 설명하고 법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인배 외(2017)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및 전망을 추정하고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현희(2017)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해 국내외 반려동물 현황 및 제도를 제시하고 반려동물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입법방향을 제안하였다. 김현중 외(2019)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해 입양·양육·사후 단계 등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정책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2. 반려동물 진료 관련 연구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펫보험의 중요한 한 부분인 우리나라 동물 및 반려동물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 반려동물 및 양육인구 증가에 따라 진료표준화 등 수의업 발전 방향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화영 외(2017)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진료비 사전 고지제, 진료비 공시제, 진료비용 수가제도, 반려 동물보험 등에 대한 현황 및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진료코드체계 구축,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동물병원 규제강화, 진료비 지불 방법 다양화, 진료비용 사전 고지제 등을 제안하였다.

오원석 외(2018)는 반려동물 진료서비스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분야의 쟁점 및 이슈를 검토하여 분야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서강문 외(2020)는 동물병원의 진료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 현황, 진료분야의 표준화 체계, 국내외 동물 진료체계 표준화 사례 등을 검토하여 동물진료 표준화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2.3. 펫보험 활성화 관련 연구

펫보험 활성화 방안은 부문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권용수(2021)는 펫보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험 필요성 인식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동물등록제 개선, 사전 설명의무 도입, 진료비 등 공시제, 표준수가제, 부가가치세 정비, 공적 보험 등을 제안하였다.

김경선(2022)은 반려동물보험에서 비문인식, 홍채인식, DNA인식, 앱(App) 기반 디지털 플랫폼 등 IT기술 활용을 통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을 강조하였다. 김경선·강윤지(2023)와 김경선(2023)은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험회사와 동물병원 간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상품 개발, 판매채널 다변화 등 경영과제와 반려동물등록제 개선, 진료체계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청구전산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침 마련, 소액단기보험 규제 완화 등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2.4. 해외 펫보험 관련 연구

우리나라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 펫보험 시장의 특징을 제시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Williams et al.(2016)은 524명의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본인부담금(deductible), 상환수준(reimbursement level), 무제한 혜택(unlimited benefits), 정기적 필요 진료비 보장(wellness included)의 한계지불의사금액(MWT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상환 수준, 무제한 혜택이 보험 구입에 양의 영향이 있으며, 반려동물이 내년에 앓을 것으로 예상할 경우에도 보험 구입 가능성이 높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Sutthibongkot(2019)는 태국의 개 또는 고양이 양육자 186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의 상호 관계, 책임감, 반려동물에 대한 위험 인식, 재정적 부담 예방 등이 펫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 분석하여 위험 인식, 재정적 부담 예방, 반려동물과의 여행 등이 가입에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Chiu et al.(2021)은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1세 이상 반려견 양육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진료 및 질병 관련 정보를 제공한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반려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응급진료의 금액 가치에 대해 분석하였다.

Springer et al.(2022)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에서 펫보험 가입자에 대한 수의사의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수의사의 펫보험 가입자에 대한 태도가 국가 안별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넓은 보장 범위가 더 높은 수의 서비스 비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펫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수의사의 상이한 치료 태도를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2.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펫보험 활성화 연구는 반려동물 관련 진료, 제도, 산업 등 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펫보험에 초점을 두고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호자, 수의사, 보험사, 정부 등 각 부문별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태 및 제도 분석과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제도 개선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3. 연구 대상 및 내용

이 연구의 대상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질병·상해에 대한 동물병원 입·통원비나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펫보험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병원비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펫보험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맹견을 대상으로 하는 맹견배상책임보험은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인 국내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펫보험의 현황, 관련 제도 및 체계, 해외사례, 반려동물·반려동물 보호자·수의사·보험사·정부 등 각 이해관계자 부문별 실태 및 쟁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연구 대상 및 내용,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를 설명한다.

제2장은 반려동물 및 펫보험 현황을 제시한다. 국내 반려동물 및 펫보험 현황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국내 펫보험 체계 및 쟁점을 사안별로 설명한다.

제3장은 펫보험 이용 실태조사를 분석한다. 펫보험 이해관계자인 소비자, 의사,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펫보험 이용실태, 전망,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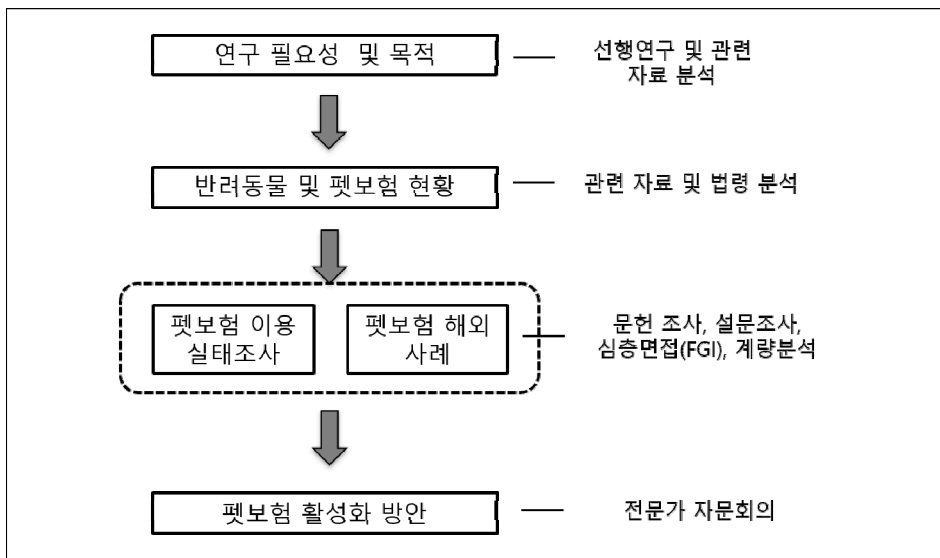
제4장은 펫보험 해외 사례를 검토한다. 우리나라보다 펫보험 시장 규모가 큰 일본, 미국, 스웨덴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현황과 제2장에서 검토한 쟁점별 사안에 대한 각국의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은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4.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이 연구는 펫보험 현황 파악을 위한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및 통계 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펫보험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및 설문조사, 연구 기간별 잠정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내용 검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계량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와 연구 방법



자료: 저자 작성.

2

반려동물 및 펫보험 현황

1. 반려동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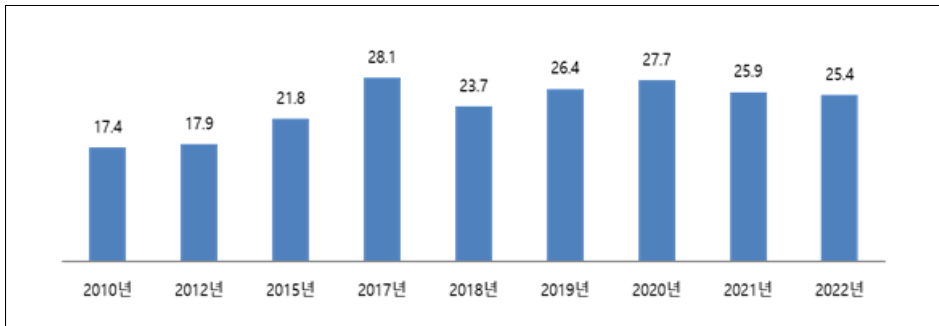
1.1. 반려동물 양육 현황³⁾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 및 양육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1>.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22년 25.4%로 증가 추세이며, 2022년 602만 가구, 1,306만 명으로 추정된다. 2022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가 5,144만 명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 4명 중 1명, 약 25.4%가 반려동물 양육인구이다.

³⁾ 데일리벳(2021. 9. 27.),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313만·인구주택총조사 해보니 ‘반토막’”;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기반)과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간 조사방법 및 가구 수 집계기준의 차이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본 연구는 자료의 연속성 및 연관 조사 내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발표한 수치를 중심으로 작성함.

〈그림 2-1〉 반려동물 양육 비율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전체 가구에서 반려동물 중 개를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0년 16.3%에서 2022년 19.0%로 2.7%p 증가하였고,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양육 마릿수는 1.21마리이며, 전체 양육 반려견 마릿수는 약 545만 마리로 추정된다<표 2-1>. 한편, 전체 가구에서 고양이를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0년 1.7%에서 2022년 7.1%로 5.4% 증가하였고,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양육 마릿수는 1.51마리이며, 전체 양육 반려묘 마릿수는 약 254만 마리로 추정된다. 물고기·햄스터·거북이·새 등 기타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2.9%이며, 평균 마릿수는 10.89마리로 나타났다.

〈표 2-1〉 반려동물 양육현황

단위: 마리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개	총 가구 수*(천 가구)	19,261	20,967	23,037	23,384	23,697	1.7%
	양육비율(%)	16.3	19.1	22.6	18.6	19.0	-
	평균 양육 마릿수	1.47	1.28	1.16	1.19	1.21	-1.6%
	총 양육 반려견 수	4,615,198	5,126,127	6,012,666	5,178,614	5,447,952	1.4%
고양이	총 가구 수*(천 가구)	19,261	20,967	23,037	23,384	23,697	1.7%
	양육비율(%)	1.7	5.2	7.9	6.6	7.1	-
	평균 양육 마릿수	1.92	1.74	1.42	1.46	1.51	-2.0%
	총 양육 반려묘 수	628,689	1,897,137	2,589,363	2,254,321	2,540,561	12.3%
기타 반려동물(2022)		총 7,483,766마리(양육 비율 2.9%, 평균 마릿수 10.89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2. 반려동물 양육비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용은 20.82만 원(마리당 평균 양육비용: 15.3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월평균 양육비 16.3만 원(마리당 평균 양육비용: 12.35만 원)에서 12.0% (마리당 24.5%)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양육비용이 ‘20만 원 이상’이 39.0%로 가장 많았고, ‘15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이 8.4%, ‘10만 원 이상-15만 원 미만’이 20.6%,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이 17.2%, ‘5만 원 미만’이 14.8%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에 대해 월평균 20만 원 이상 사용하는 양육 가구가 많은 편이지만 10만 원 미만 사용하는 가구도 32.0%가 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복지 및 양육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월평균 양육비용 중 병원비는 8.34만 원(마리당 평균 병원비: 6.09만 원)으로 전체의 45.7%(마리당 39.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특히, 높은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의학 기술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반려동물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양육 가구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⁴⁾

1.3. 반려동물 유기 유실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유실·유기 동물은 11만 3,440마리(개 80,393마리, 고양이 31,525마리, 기타 1,522마리 등)로 2021년 11만 8,273마리에서 4,833마리(-4.1%) 감소하였다. 다만, 2022년 신규 등록 반려견이 29만 958마리, 고양이가 9,683마리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여전히 많은 수치다. 또한, 유실·유기 동물 중 개의 자연사 및 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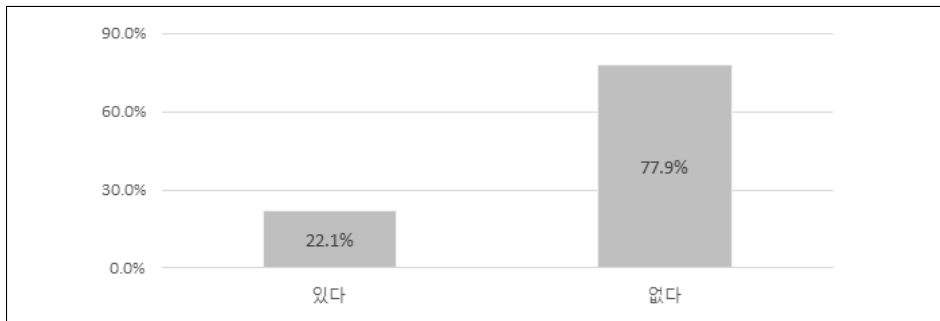
⁴⁾ 파이낸셜뉴스(2023. 1. 26.), “반려동물도 반려인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하고 싶다”.

사의 비중은 각각 16.8%와 22.1%이고, 고양이의 자연사 및 안락사 비중은 52.9%와 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응답자 수=1,272명) 중 22.1%(응답자 수 =281명)가 반려동물 양육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2>. 이러한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 중 가장 많은 이유로 ‘물건 훼손·짓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이 26.0%,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이 14.6%로 비용 측면의 응답도 많이 나타났다<그림 2-3>.

〈그림 2-2〉 반려동물 양육포기 및 파양고려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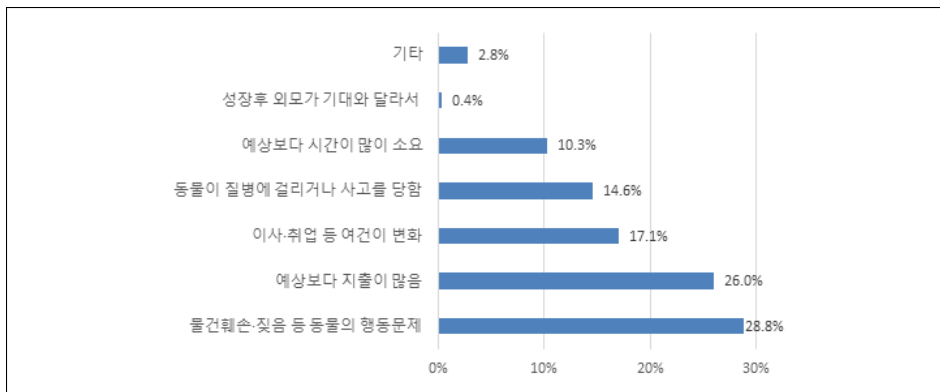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2-3〉 반려동물 양육포기 및 파양고려 원인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 가구의 병원비 부담 완화 방안이 중요한 시점이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펫보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펫보험 현황

2.1. 펫보험의 의의

본 연구의 대상인 펫보험은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의 질병 혹은 상해 발생 시 입·통원비와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말한다.⁵⁾ 구체적으로 펫보험은 손해보험의 하나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반려동물)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사고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정액보험)하는 인보험계약과 다르며⁶⁾,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상계약 또는 손해보상계약 특성을 가진다(이용석 2013). 그리고 펫보험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및 제3보험과 구분되며, ‘상법’상 인보험과 구분되어 법적 규제를 받는다<표 2-2>.

5) ‘동물보호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는 맹견배상책임보험이 있지만 이는 병원비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펫보험과 구분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여기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동물보호법 제2조).

6)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액보험으로 영위된다.

〈표 2-2〉 손해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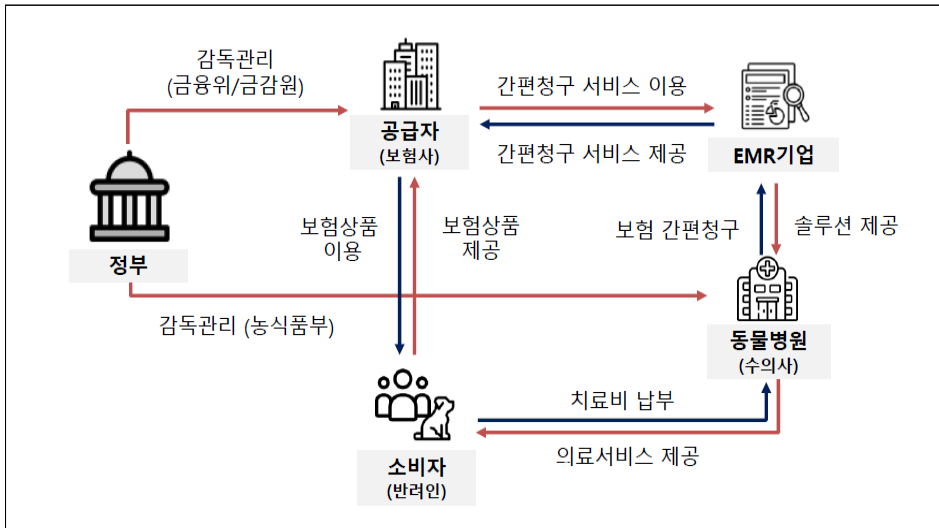
구분	손해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
‘보험업법’상 정의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상법’상 구분	손해보험	인보험	인보험
보험의 대상	물건 혹은 재산	신체의 상해	사람의 생명
소유권	본인	본인 또는 타인	본인 또는 타인
보상방식	손실이 발생한 만큼만 보상	상해의 치료에 필요한 보상	생존·사망사고에 따라 보험금 지급
차익발생 가능여부	불가능	불가능	가능
보험 기간	일반적으로 단기	장기 또는 단기	일반적으로 장기
가입 가능한 보험사의 종류	손해보험사만 가능	손해/생명 보험사 모두 가능	생명보험사만 가능
보험 종목	펫보험,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등	상해, 질병, 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생명보험, 연금보험

자료: 김동겸(2012a)과 정원석 외(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 펫보험 시장 구조

펫보험 시장에는 반려동물 보호자, 정부, 수의사, 보험사,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동물병원용 전자차트)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그림 2-4>. 각각의 참여자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4> 펫보험 이해관계자의 구성과 역할



자료: 이은주(2023).

2.2.1. 반려동물 보호자(소비자)

반려동물 보호자(소비자)는 동물등록을 통해 자신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등록하고 펫보험 가입을 통해 시장에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동물등록제를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으로,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상자 2-1〉 국내 반려동물 등록 관련 규정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함(동물보호법 제15조 1항).
- 등록동물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한정되어 있음(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등록동물대상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1항).
-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 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함(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3항).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동물보호법 제101조 1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검색일: 2023. 6. 26.

반려동물 등록 시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동물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동물의 종류(개/고양이), 품종, 털색깔, 출생일, 취득일 등을 등록한다. 동물등록 방식은 2020년 8월 21일부터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에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두 가지로 변경되었다(그림 2-5).⁷⁾

여기서 동물등록제는 보험계약자의 서로 다른 반려동물을 이용한 보험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펫보험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경감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펫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 및 질병 이력 추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⁷⁾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 8. 21.), “동물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그림 2-5〉 국내 동물등록 방식 예시

	 앞면 뒷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방식	인식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 8. 21.), “동물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반려동물 보호자는 펫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받는다. 따라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반려동물 보호자가 펫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험이 보험가입자의 공동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토대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률이 낮으면 보험사고 발생 확률 계산이 어려워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⁸⁾

⁸⁾ 보험의 기본원리인 대수의 법칙에 따라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추정의 정밀도가 향상되어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 일정한 숫자로 수렴함(이용석, 2013).

2.2.2. 동물병원(수의사)

동물병원(수의사)은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동물병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진료문서 발급을 통해 소비자가 지불한 진료서비스 비용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 제공 필요성이 있다. 보험사 또한 이러한 진료문서를 통해 펫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펫보험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다.

펫보험과 관련하여 수의사는 핵심 이해관계자로 역할한다. 먼저, 현재의 ‘수의사법’에서 수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동물에 대해서 진단서를 발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는 없다. 다만, 소비자 또는 동물병원을 이용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료기록부는 공개될 수 있다.⁹⁾ 하지만 진료기록 보존기간 또한 1년으로 미국, 영국 등에 비해 짧은 편이다.¹⁰⁾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동물 질병명,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서강문 외, 2020).

펫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청구서(영수증), 진단서 등을 활용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림 2-6>.¹¹⁾ 동물병원 청구서에는 진료항목과 비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진단 및 처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청구서(영수증)만을 통해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개체 식별, 과잉진료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고액 수술비의 경우 체계적인 동물병원 진료 체계가 부족하여 보험사의 펫보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9) 뉴스1(2023. 9. 6.),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수의사는 발급 의무 있을까[동물법전]”.

10)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음. 보통 최소 2년이며, 텍사스주의 경우 마지막 진료 이후 5년임(UCI(<https://www.ucishredding.com/how-long-do-veterinary-offices-keep-records/>), 검색일: 2023. 9. 20.). 영국은 보통 반려동물 생애까지 보관되며, 반려동물 사망 후에도 보통 5년간 보관됨(Vets for Pets(https://www.vets4pets.com/services/clinical-records/#:~:text=How%20long%20will%20my%20vet,a%20minimum%20for%20five%20years,)), 검색일: 2023. 9. 20.).

11) 데일리벳(2020. 9. 8.), “동물병원 진료부 요청 받으면···진단서 진료항목 포함 영수증 활용”.

〈그림 2-6〉 동물병원 영수증(청구서) 예시

Serial No. : *

청 구 서

진료 (56,000)

재진료 (Re-Examination)	1	12,000
안압측정 Intra ocular press	1	33,000
발사 (Stitch Out)	1	11,000

*표지가 찍어 있는 항목은 비과세입니다.

총 금액 : 56,000

과세품목합계 56,000

과세품목에도 합된부가세 9,090

결제금액합계 56,000

청구 금액: 56,000

자료: 저자 작성.

〈글상자 2-2〉 ‘수의사법’ 중 진단서 발급 규정

-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검색일: 2023. 6. 26.

수의업계는 진료기록부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¹²⁾ 지금까지 국회에서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공개를 위한 법안 발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¹³⁾ 이는 국회 내에서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받은 동물에 대한 기록의 열람이나 발급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의업계는 진료기록부 공개에 따른 부작용으로 동물약품 오남용 문제와 표준화된 동물진료기록방법이 정착되지 않아 동물진료 분쟁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료부 공개에 앞서 자가진료 금지, 진료표준화 등이 선결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2023년 3월 기준 수의사 총면허자는 22,292명이며 이 중 63.4%인 14,123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표 2-3>. 현업종사자 중 동물병원 종사자 수는 8,515명(60.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은 2,517명(17.8%)을 차지한다. 동물병원 운영 수의사 중 반려동물에 종사하는 수의사 수는 6,938명으로 81.5%를 차지하며 현업종사자를 기준으로 49.1%이고, 동물병원은 총 5,136개소이다. 반려동물 진료가 수의업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데일리벳(2023. 6. 28.), “대한수의사회,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 반대 재확인”.

13) 데일리벳(2021. 7. 12.), “정청래 의원,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법 발의”.

〈표 2-3〉 수의사 분표 현황(2023년 3월 기준)

구분	총면허자	기타-미신고 (사망포함)	현업종사	비수의업종	비근로자	재외거주
인원	22,292	4,228	14,123	734	2,666	541
비율	100%	19.0%	63.4%	3.3%	12.0%	2.4%

구분	현업종사	동물병원				공무원	공중방역 수의사
		계	반려동물	농장동물	혼합진료		
인원	14,123	8,515	6,938	964	613	2,517	447
비율	100%	60.3%				17.8%	3.2%

구분	수의관련산업	학계	유관기관	축산물위생	농장	군진
인원	1,017	834	355	157	103	178
비율	7.2%	5.9%	2.5%	1.1%	0.7%	1.3%

자료: 우연철(2023).

다만, 우리나라 수의사의 영업 환경은 다른 선진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열악한 부분이 있다(표 2-4).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수의사 1명당 인구수는 2,389명으로 일본, 영국, 미국 등에 비해 적은 편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마릿수와 가축 수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수의사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반려동물 및 가축 수)는 더욱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RI 경제연구소(ER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수의사의 연평균 소득 또한 약 5,773만 원 수준으로 미국 109,524달러(약 1억 4,577만 원), 일본 9,169,139엔(약 8,265만 원), 호주 136,282호주달러(약 1억 1,688만 원) 등에 비해 낮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1 한국의 직업정보에도 수의사의 평균소득이 우리나라 상위 50개 직업(50위 정부행정관리자 6,233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수의사보조원은 평균 2,701만 원으로 하위 50개 직업에 포함되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및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아직 수의업계의 소득 수준은 사회적으로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펫보험 활성화 방안이 수의사의 소득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수의업계와의 협력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¹⁴⁾

〈표 2-4〉 주요국 수의사 영업 여건(2020년 기준)

구분	수의대 수 (개)	수의사 수 (명)	인구수 (천명)	수의사 1명당 인구수	반려동물 수 (천 마리)	수의사 1인당 반려동물 수	수의사 1인당 가축단위	소득 (2023년 기준)
한국	10	21,695	51,836	2,389	8,600	396	395	5,773만 원
캐나다	5	15,118	38,007	2,514	15,800	1,045	1,108	1억 1,340만 원
영국	11	25,400	67,081	2,641	25,000	984	500	9,951만 원
호주	7	13,993	25,655	1,833	8,871	633	1,795	1억 1,688만 원
일본	17	40,251	126,261	3,137	16,100	399	237	8,265만 원
미국	32	121,461	331,512	2,729	135,197	1,113	1,703	1억 4,577만 원

주 1) 가축단위는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소를 1로 정하여 돼지는 0.2, 닭은 0.01 등으로 환산한 수치이며, 개·고양이는 제외됨.

2) 환율 기준은 2023년 9월 16일 자료를 활용함(네이버페이 증권(<https://m.stock.naver.com/marketindex/exchangeWorld>), 검색일: 2023. 9. 16).

자료: 해피펫(2022. 12. 11), “수의계 ”수의사 공급과잉…부산대 수의대 신설 중단하라”; 소득자료는 SALARY EXPERT by ER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https://www.salaryexpert.com/>), 검색일: 2023. 9. 16.

2.2.3. 손해보험사¹⁵⁾

손해보험사는 펫보험에 대한 위험 측정 및 관리를 통해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한다. 그리고 반려동물 소유주는 〈그림 2-6〉의 절차를 통해 펫보험에 가입하고 동물병원 이용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청구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¹⁶⁾ 다만, 펫보험 보험금 보상방식은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상품의 경우 전자차트 기업(인투씨엔에스와의 독점계약, 동물병원 수의사 동의 필요)을 통해 보험 가입자가 따로 서류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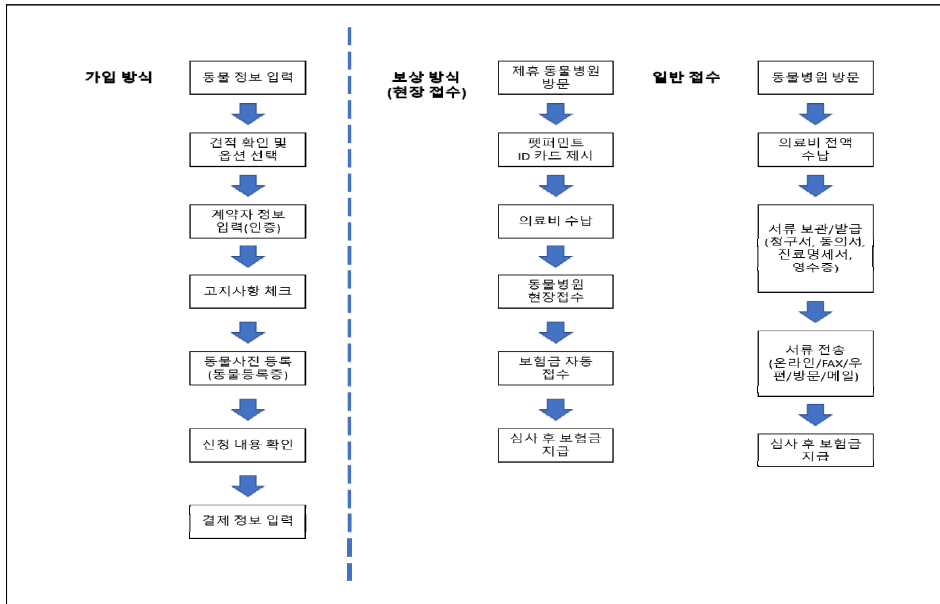
14) 연구 진행 과정에서 수의업계, 반려동물 양육자, 정책당국, 보험종사자 등의 펫보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토론회(2023. 7. 19.)를 개최함.

15) 연구 진행 과정에서 펫보험 판매 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펫보험 회사, 판매담당자 등과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함.

16) 2023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의 보험 규제 완화에 따라 화상통화와 하이브리드(음성통화 및 모바일 화면) 방식을 통해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 6. 29.).

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 접수(간편청구)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 보험사에서는 일반 접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7〉 펫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자료: 저자 작성.

우리나라 펫보험은 2000년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에서 ‘애완동물 지킴이 보험’을 처음 판매하였으나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여 판매가 중단되었다.¹⁷⁾ 그 후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2007년 말 현대해상에서 ‘하이펫 반려건강보험’을 출시하였으나 손해율 악화로 4년 만에 판매를 중지하였다(김세중·김석영, 2017). 이는 경험통계의 부재로 재보험사로부터 받은 협의요율¹⁸⁾이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7) 한국보험신문(2003. 1. 24)에 따르면, 당시 보험료는 혈통견은 55만 5,000원, 일반 애완견은 29만 6,000원이며, 일시적인 중독, 질병, 상해 사망 시 한 사고당 최고 200만 원 보상,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치료 시 한 사고당 200만 원 보상, 총한도는 500만 원까지 보상함.

18) 일반손해보험의 요율은 자사요율(보험회사의 자체 경험을 바탕으로 산출한 요율), 참조손보험요율(보험개발원이 산출하여 제공하는 요율), 협의요율(보험회사와 재보험사가 협의하여 산출한 요율)

2014년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영손해보험사들은 펫보험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펫보험 상품을 재출시하였으나 2017년 3개사(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만 판매할 만큼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개체 수와 양육인구가 지난 기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펫보험 시장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개선 및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펫보험 회사는 2023년 7월 기준 10개(메리츠, 삼성, DB, 현대, 한화, KB, 에이스, 캐롯, 농협, 롯데)로 증가하였다. 이 중 2023년 1~4월 기준 수입 보험료가 가장 높은 보험회사는 메리츠이며, 그다음은 삼성, DB, 현대 순이다.

〈표 2-5〉는 펫보험 주요 보험사 및 상품을 제시하였다. 상품에 따라 가입 대상을 개나 고양이 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존재한다. 가입 연령은 보통 만 10세까지 최초 가입이 가능하며 갱신 시 최대 만 20세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가입에 제한을 둔 조치이다.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등록동물에 한정된 경우 ④DB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김석영·김혜란, 2015).

〈표 2-5〉 펫보험 주요 보험사 및 상품

구 분	①메리츠 (장기, '18. 10.~)	②메리츠 (장기, '19. 4.~)	③삼 성 (장기, '22..9.~)	④D B (일반, '19. 7.~)	⑤현 대 (장기, '22. 11.~)
가입대상	개	고양이(전용)	개	개, 고양이	개
가입연령	만 10세까지 *갱신 시 만 20세까지	만 10세까지 *갱신 시 만 20세까지	만 10세까지 *갱신 시 만 19세까지	만 5세까지 *갱신 시 만 10세까지	만 8세까지
등록여부	등록 확인 시 할인 (2%)	등록 확인 시 할인 (2%)	-	등록동물로 한정	등록 확인 시 할인 (5%)
보상비율	50%, 70%, 80%	50%, 70%, 80%	50%, 70%	70%	70%, 80%
가입금액	수술 (150, 200만 원) 입·통원 (10, 15만 원) *입·통원 각 500만 원	수술 (150, 200만 원) 입·통원 (10, 15만 원) *입·통원 각 500만 원	수술 (100,150만 원) 입·통원 (10, 15만 원)	수술(150만 원) 입·통원(15만 원)	총 연 보상 한도 1,000만 원 수술 (200, 250만 원) 입·통원 (15, 30만 원)
보험료 수준 (0세 말티즈)	521,040원/年	545,640원/年	422,360원/年 *묘종별 차등 X	445,250원/年	495,000원/年
자기부담금	1만 원	1만 원	2만 원	1, 2, 3만 원	3, 5만 원
보상횟수	제한 無	제한 無	수술(2회) 입·통원(20일)	수술(2회/년) 입·통원(20일)	제한 無
피부질환	기본계약	기본계약	비노기질환 (요로결석 등) 특약 가입 가능	특약	기본계약
구강질환	기본계약	기본계약	-	특약	기본계약
탈구질환	기본계약	기본계약	-	특약	특약
배상책임	1,000만 원 *자기 부담 3만 원	-	-	500, 1,000만 원 *자기 부담 3만 원	1,000만 원 *자기 부담 3만 원
장례비	-	-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유기견찾기	-	-	-	-	-
판매채널	쉴 채널	쉴 채널	쉴 채널	설계사, 대리점	설계사, TM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6. 29.),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펫보험은 일반적으로 도덕적해이를 완화하기 위해 손해를 공동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보험(Coinsurance)과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결합하여

활용하고 있다.¹⁹⁾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상품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 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자기부담금은 1만/2만/3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회사의 보상비율은 50%/ 70%/ 80%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금액은 보상 비율에 따라 상이한데 70, 80%는 입원 1일 당 15만 원, 수술 시 일 200만 원, 연 최대 500만 원이며 50%는 입원 1일당 10만 원, 수술 시 일 150만 원, 연 최대 350만 원이다. 가입금액과 공동보험,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글상자 2-3〉 보험금 지급 예시

- 예 1) 통원 중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보험 80%, 자기부담금 2만 원)
- 피보험자 부담 치료비 20만 원
 - 보험금 지급액 = $\min[(20\text{만 원} - 2\text{만 원}) \times 0.8, 15\text{만 원}] = 14.4\text{만 원}$
- 예 2) 통원 중 수술을 한 경우 (공동보험 80%, 자기부담금 2만 원)
- 피보험자 부담 수술당일 치료비 300만 원
 - 보험금 지급액 = $\min[(300\text{만 원} - 2\text{만 원}) \times 0.8, 200\text{만 원}] = 200\text{만 원}$

자료: 저자 작성.

반려견에게 자주 발생하여 수요가 높은 피부질환, 구강질환, 탈구질환 등은 펫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됨에 따라 기본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보상하는 배상책임도 500만 원·1,000만 원(자기부담금 3만 원)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보장 질병은 아래 <표 2-6>과 같이 보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분류 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사마다 개별적인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다.²⁰⁾

¹⁹⁾ 공동분담이란 담보된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일부 책임을 지게 하여 보험가입자 스스로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 사고 발생 건수를 낮춰 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김동겸, 2012b). 공동분담의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자기부담금, 면책금액을 설정하는 공제(deductible)와 보험가입자(피보험자)와 보험자(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²⁰⁾ 메리츠화재의 (무)펫퍼민트 Puppy&Love 보험2305(판매버전 2.0, 판매개시 2023. 9. 1.)는 반려견에 대한 자체 질병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고, 삼성화재의 무배당 펫보험 위풍당당(2304.2)은 골절에 대해 사람에게 적용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3-175호, 2021.

〈표 2-6〉 메리츠화재 (무)펫퍼민트 Puppy&Love 상품현황

구분		메리츠화재 (무)펫퍼민트 Puppy&Love	
가입연령		생후 61일~만 8세,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 (갱신 시 만 20세까지)	
공동보험 및 자기부담금		의료비의 50, 70, 80% 및 자기부담금 1, 2, 3만 원 공제 중 선택	
가입금액	80% 보장	수술 : 1일 200만 원 입원 : 1일 15만 원	1년 500만 원 한도
	70% 보장		
	50% 보장	수술 : 1일 150만 원 입원 : 1일 10만 원	1년 350만 원 한도
주요 미보장 질병		- 뒷다리 근골격계 질환(17개) - 눈 및 부속 기관 질환(25개) - 비뇨기과 질환(10개) - 순환기 질환(11개) - 피부 질환(33개)	
배상책임		연간 최대 1천만 원 (자기부담금 3만 원)	
면책기간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유사 질병 및 상해는 보험 개시일 1년 이내	
주요 미보장 손해		- 최초 계약의 보험 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미리 예방접종으로 방지할 수 있는 질병 (파보, 디스템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광견병 등) -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 출산, 제왕절개, 인공 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보험료 할인		- 동물등록제 등록 확인 시 추가 2% 할인 - 다수 반려동물 가입 시 추가 5%(2~3마리), 추가 10%(4마리 이상) 할인	
가입채널		전 채널(설계사, 대리점, TM, CM 등)	

자료: 메리츠화재 공식 보험상품몰(<https://www.ppmint.com/pet/product.do#!/>), 검색일: 2023. 9. 17.

펫보험 대표 두 손해보험 회사인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온라인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였다(표 2-7). 이를 위해 말티즈(흰색)로 품종을 설정하였고, 강아지의 생일은 임의로 8월 1일로 설정한 후 생년을 달리하였다. 상품은 기본형(70% 보상)이고, 이러한 설정에 따라 보험료를 살펴보면 보면 강아지 나이 0세부터 10세까지 가입 가능하지만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다이렉트(기본형) 가격이 40,830원에서 63,470원으로 증가하고, 삼성화재 다이렉트(기본형)은 35,904원에서 70,904원으로 증가하여

1. 1. 시행)를 사용하고 있음.

차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두 회사의 두 상품 모두 9세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기본형이 아닌 배상한도(50%)가 축소되는 다른 상품으로 전환된다.

〈표 2-7〉 삼성화재 다이렉트(기본형)과 펫퍼민트 다이렉트(기본형) 상품 가격 비교

구분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다이렉트(기본형)	삼성화재 다이렉트(기본형)
가입대상		말티즈	말티즈(흰색)
수술비		1만 원 공제 70% 보상	1만 원 공제 70% 보상, 연 1,000만 원 한도, 1일 10만 원 한도
배상책임		연 1,000만 원 한도	10만 원 공제, 3,000만 원 한도
반려견 사망위로금		-	가입 후 30일 면책, 만 12세까지 보상 15만 원
납입방법		월납	월납
성별		수컷 가정	수컷 가정
중성화 수술		미수술 가정	비고려 대상
보험료	0세(2023. 8. 1.)	40,830원	35,904원
	1세(2022. 8. 1.)	41,580원	39,588원
	2세(2021. 8. 1.)	43,990원	47,054원
	3세(2020. 8. 1.)	48,140원	56,144원
	4세(2019. 8. 1.)	53,600원	64,430원
	5세(2018. 8. 1.)	59,750원	70,354원
	6세(2017. 8. 1.)	66,180원	74,527원
	7세(2016. 8. 1.)	72,470원	77,905원
	8세(2015. 8. 1.)	78,250원	81,623원
	9세(2014. 8. 1.)	59,710원	69,829원
	10세(2013. 8. 1.)	63,470원	70,904원
	11세(2012. 8. 1.)	가입 불가	가입불가

주: 만 9세 이후 삼성화재 다이렉트와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모두 배상한도가 축소되는 다른 상품으로 전환됨.
 자료: 삼성화재(<https://www.samsungfire.com/>), 검색일: 2023. 10. 6.; 메리츠화재 공식 보험상품물
 (<https://store.meritzfire.com/>), 검색일: 2023. 10. 6.

2.2.4. 동물병원 전자차트(EMR) 기업

동물병원 전자차트(Electronic Medical Record: EMR)는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 문서 작성(진료 차트, 입원 차트), 진료 장비 연동(진료 영상), 고객 관리, 경영정보 분석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그림 2-8>.²¹⁾ 동

물병원 수의사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사에 수의사가 허락한 부분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보험사와 제휴된 동물병원 전자차트 기업을 사용하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허락할 경우 현장접수 방식을 통해 자동적으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림 2-8〉 동물병원 전자차트 예시(인투씨엔에스)



자료: 저자 작성.

현재 우리나라 동물병원 전자차트 기업은 인투씨엔에스(IntoCNS)와 우리엔이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다.²²⁾ 메리츠화재는 인투씨엔에스(IntoCNS)와 2018년 계약을 맺고 있어서 현장 접수가 가능한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다른 손해보험사는 이러한 현장 접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과거 2019년 보험개발원, 타 보험사들(현대, DB, KB, 한화, 롯데 등 5개 보험회사), 타 차트업체 PnV(우리엔 전신)가 비슷한 유형의 원스톱 진료 청구시스템 ‘POS(Pet Insurance Claims Online Processing System)’를 도입하였으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이는 낮은 펫보험 가입률, 펫보험 상위 2개 기업인 메리츠와 삼성화재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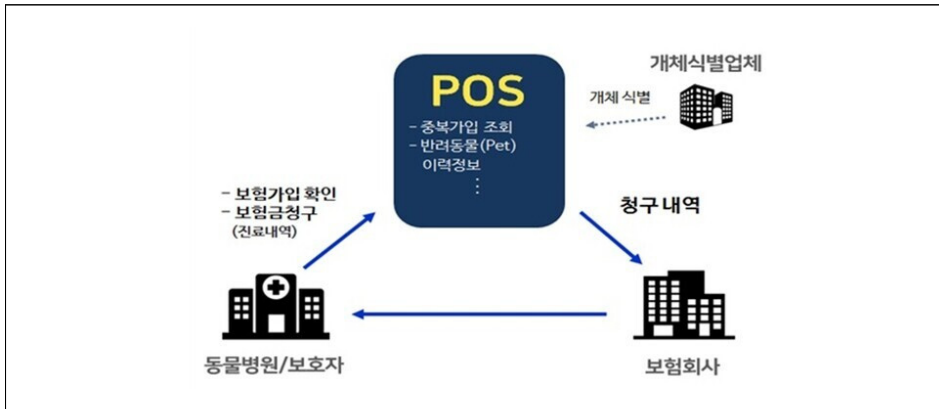
21) 대표적인 동물병원 전자차트 기업 두 곳(인투씨엔에스, 우리엔)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인투씨엔에스(<http://intoh.monoalliance.com/>), 검색일: 2023. 9. 18.; 우리엔(<https://www.woorien.com/>), 검색일: 2023. 9. 18).

22) 메트로(2022. 11. 27.), “[3040 CEO 열전] 허성호 인투씨엔에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IT””.

23) 한국반려동물신문(2022. 7. 15.), “[펫보험3.0시대] 미운오리 ‘반려동물 보험금 청구시스템’...펫보험 활성화로 황금알 낳을까”.

체 청구 시스템, 진료기록 전송 범위 등에 있어서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단된다.²⁴⁾

〈그림 2-9〉 원스톱 진료청구시스템 POS



자료: 한국반려동물신문(2022. 7. 15.), "[펫보험3.0시대] 미운오리 '반려동물 보험금 청구시스템'...펫보험 활성화로 황금알 낳을까".

동물병원 전자차트 기업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간단한 청구를 돕고 진료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차트 소프트웨어의 표준화와 편리한 전자차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정보 및 진료문서의 보안, 영업권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있어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차트 기업은 영업권에 있어서 민감하고, 반려동물 양육자, 보험회사, 동물병원은 진료기록에 있어서 보안 및 공유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있다.

2.2.5. 정부 부처

정부는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하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여러 정책을 제시하

24) 인투씨엔에스(https://www.intocns.com/bbs/notice_view.php?idx=36), 검색일: 2023. 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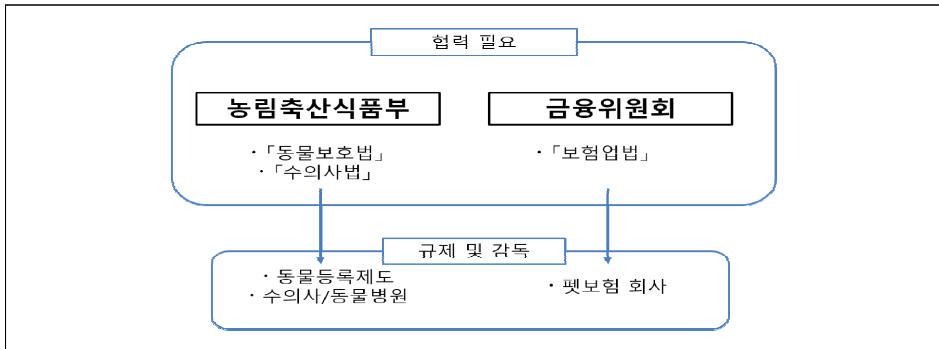
였다.²⁵⁾ 이 중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와 여러 법률이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등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및 수의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이 법률에 따라 반려동물의 범위와 등록 대상동물의 관리가 정해지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등록 방식이 정해진다.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이 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발급 범위가 정해지고,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단서, 진료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진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을 통해 보험산업 및 펫보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이 법에 따라 보험업 허가 및 자회사 소유 승인, 부수업무가 정해지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영업을 한다.

²⁵⁾ 120대 국정과제(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 검색일: 2023. 9. 19).

〈그림 2-10〉 펫보험 관련 부처 및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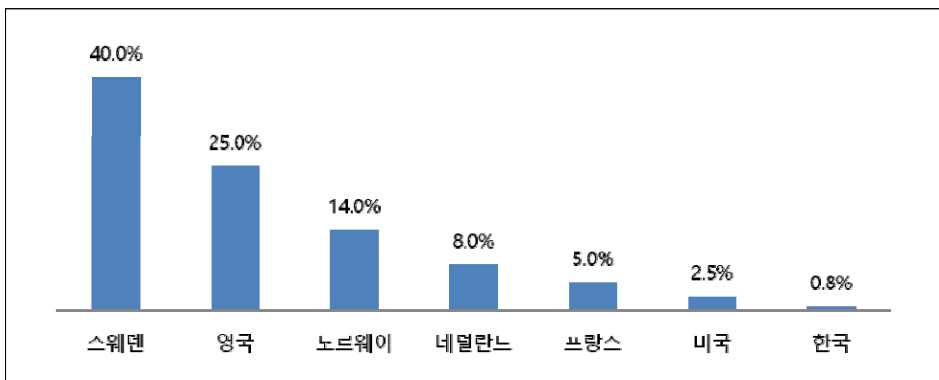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3. 펫보험 현황

2.3.1. 펫보험 가입률 및 시장 규모

국내 펫보험 가입자는 2022년 10월 말 기준 약 5.5만 명으로 반려동물 개체 수 대비 1% 미만이다(홍성원·전국보, 2022). 이는 반려동물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40.0%, 영국 25.0% 등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이다(김경선·강윤지, 2023) 〈그림 2-11〉.

〈그림 2-11〉 펫보험 가입률



자료: 김경선·강윤지(2023).

우리나라의 펫보험 시장 규모도 다른 국가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중 하나인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는 전 세계 펫보험 시장이 2022년 94억 달러(약 12.5조 원)에서 2030년 327억 달러(약 43.5조 원)로 연평균 17.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⁶⁾ 미국의 펫보험 시장 규모는 2022년 30억 달러(약 4조 원),²⁷⁾ 일본의 펫보험 시장 규모는 2022년 1,068억 엔(약 1조 원)²⁸⁾으로 각각 추정된다.²⁹⁾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펫보험 가입자의 납입 연간 원수보험료가 288억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펫보험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3.2. 펫보험 판매 현황

펫보험은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으로 구분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신계약건수, 보유계약건수, 원수보험료가 상승추세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일반보험보다는 보험기간이 3년인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표 2-8>.

일반보험 신계약건수는 2018년 1,669건에서 2022년 11,14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장기보험은 동기간 5,490건에서 23,993건으로 증가하였다. 일반보험 보유계약건수는 2018년 1,560건에서 2022년 17,04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장기보험은 동기간 5,445건에서 54,851건으로 증가하였다. 일반보험 원수보험료는

²⁶⁾ 그랜드 뷰 리서치 홈페이지(<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pet-insurance-market>), 검색일: 2023. 9. 20.

²⁷⁾ IBIS World(<https://www.ibisworld.com/industry-statistics/market-size/pet-insurance-united-states/#:~:text=Questions%20Clients%20Ask%20About%20This%20Industry&text=The%20market%20size%2C%20measured%20by,industry%20increased%205.7%25%20in%202022.>), 검색일: 2023. 9. 20.

²⁸⁾ 니케이아시아(2023. 3. 7.), "Japan insurers bet big on country's \$745m pet policy market".

²⁹⁾ 환율 기준은 2023년 9월 16일 자료를 활용함(네이버페이 증권(<https://m.stock.naver.com/marketindex/exchangeWorld>), 검색일: 2023. 9. 16).

2018년 6.2억 원에서 2022년 34.1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장기보험은 동기간 5.0억 원에서 2022년 253.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신계약건수는 2018년 7,159건에서 2022년 35,140건으로 3.9배, 보유계약건수는 동기간 7,005건에서 71,896건으로 9.3배, 원수보험료는 동기간 11.2억 원에서 288억 원으로 24.7배 증가하였다.

〈표 2-8〉 펫보험 판매 현황

단위: 건, 천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보험	신계약건수	1,669 (23.3)	3,216 (15.1)	5,099 (29.0)	10,560 (40.0)	11,147 (31.7)
	보유계약건수	1,560 (22.3)	3,664 (15.1)	7,188 (20.3)	13,116 (25.4)	17,045 (23.7)
	원수보험료	618,042 (55.2)	1,145,860 (13.1)	2,403,900 (15.6)	3,048,395 (14.3)	3,412,583 (11.9)
장기보험	신계약건수	5,490 (76.7)	18,091 (84.9)	12,467 (71.0)	15,823 (60.0)	23,993 (68.3)
	보유계약건수	5,445 (77.7)	20,535 (84.9)	28,227 (79.7)	38,611 (74.6)	54,851 (76.3)
	원수보험료	502,347 (44.8)	7,575,008 (86.9)	12,988,128 (84.4)	18,284,236 (85.7)	25,341,651 (88.1)
합계	신계약건수	7,159	21,307	17,566	26,383	35,140
	보유계약건수	7,005	24,199	35,415	51,727	71,896
	원수보험료	1,120,389	8,720,868	15,392,028	21,332,631	28,754,234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함. 일반보험은 보험기간 1년 이하 소멸성 보험, 장기보험은 보험기간 3년 이상 보험을 의미함.

자료: 손해보험협회 내부자료.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판매가 대부분 상위 5개 사에 집중되어 시장 구조는 독과점 시장이다(표 2-9). 2018년까지 상위 1개 사가 전체 원수보험료의 절반을 넘지 않았으나 2019년 이후 상위 1개 사(메리츠)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었으며 상위 5개 사가 상품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2022년 전체 원수보험료 287.5억 원 중 상위 1개 사가 78.3%(225.1억 원), 상위 3개 사가 97.0%(279.0억 원), 상위 5개 사가 99.7%(287.0억 원)를 차지하였다.

〈표 2-9〉 펫보험 시장 집중도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집중도	상위 1개사	42.4	83.1	80.9	81.3	78.3
	상위 3개사	92.9	94.8	92.7	96.9	97.0
	상위 5개사	97.8	100.0	99.3	99.9	99.7

주: 시장집중도는 원수보험료 기준. 2019년과 2020년은 각 1개 보험사가 원수보험료 적자 발생.
자료: 손해보험협회 내부자료.

구체적으로 현재 펫보험 시장은 메리츠화재의 독주 속에서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최근 점유율을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다.

2.3.3. 펫보험 가입자 특성³⁰⁾

2019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용정보원에 확인된 펫보험 전체 계약자 중 여성이 71%, 남성이 29%를 차지해 여성의 가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표 2-11)(홍성원·전국보, 2022).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남성과 여성의 반려동물 양육 여부가 각각 24.8%와 26.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의 펫보험 가입률이 높다.

연령별로 보더라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모두 전체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와 60대 이상에서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보다는 높다.

³⁰⁾ 홍성원·전국보(2022)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표 2-10〉 펫보험 연령별·성별 가입 비중

단위: %

구분	남	여	계
20대	28	72	100
30대	33	67	100
40대	26	74	100
50대	28	72	100
60대 이상	37	63	100
전체	29	71	100

자료: 홍성원·전국보(2022).

가입자의 담보 구성을 살펴보면 입원비와 통원비 2개의 담보로 구성된 계약비율이 98.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입원비, 통원비, 배상책임을 가입한 비율이 54.9%,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를 묶어서 계약한 비율이 30.1%로 나타났다. 주요 담보인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배상책임을 모두 묶어서 가입한 비율은 단 5.7%에 그치고 있다. 또한, 담보구성을 각각 하나로만 가입한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금 지급금액이 큰 수술비가 포함된 담보 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계약자가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2-11〉 보험 계약의 담보 구성비

단위: %

담보 구성	비중
입원비	0.4
통원비	1.2
수술비	-
배상책임	2.3
입원비 + 통원비	98.1
입원비 + 통원비 + 수술비	30.1
입원비 + 통원비 + 배상책임	54.9
입원비 + 통원비 + 수술비 + 배상책임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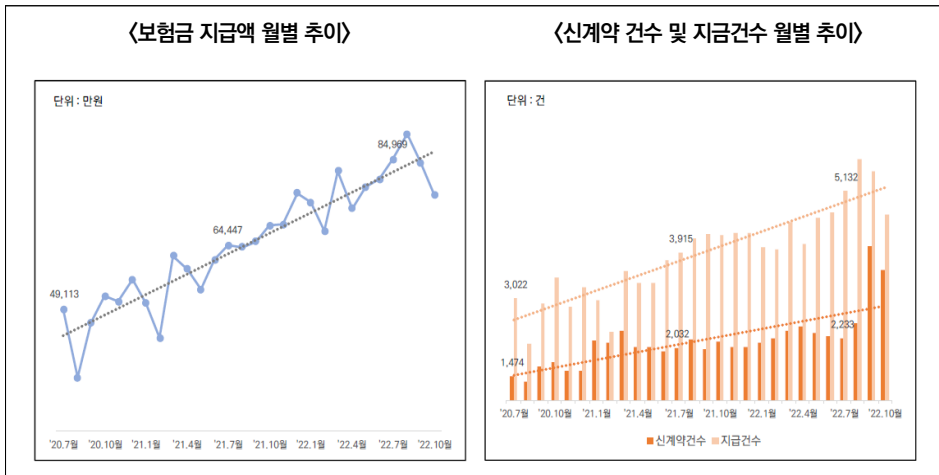
자료: 홍성원·전국보(2022).

2.3.4. 펫보험 지급액 특성³¹⁾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펫보험 보험금 지급액의 월별 증감은 보이거나 가입 건수 증가에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였다<그림 2-12>. 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7월 약 4.9억 원에서 2021년 7월 6.4억 원, 2022년 7월 8.5억 원으로 지난 2년간 73% 증가하였다.

펫보험 보험금 월별 신계약 건수와 보험금 지급 건수를 비교하면 신계약 건수의 증가세에 비해 보험금 지급 건수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 2020년 7월 3,022건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2022년 7월에는 5,132건이 지급되어 2년간 약 70% 증가하였다. 반면, 동기간 신계약 건수는 1,474건에서 2,233건으로 52% 증가하였다.

〈그림 2-12〉 보험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 월별 추이



자료: 홍성원·전국보(2022).

31) 홍성원·전국보(2022)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자료 분석 결과 반려동물 주요 지급 사고원인은 피부, 슬개골, 구토 등으로 나타났다(홍성원·전국보, 2022). 높은 출현 빈도 순으로 나타난 보험사고 내용은 <표 2-13>와 같다.

<표 2-12> 펫보험 주요 사고(부위 및 증상)

펫보험 치료비 주요 사고(부위 및 증상)
피부(염), 슬개골 ³²⁾ , 구토, 귀염, 방광, 다리, 외이, 탈구, 체장, 심장

자료: 홍성원·전국보(2022).

<표 2-13>에 나타난 주요 보험사고를 부위 및 증상별로 그룹별로 구분하면 <표 2-14>과 같다. 주요 보험사고는 방광(B), 귀 염증(E), 심장(H), 슬개골 탈구 등(K), 소화(P), 피부(S)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2-13> 보험사고 부위 및 증상별 그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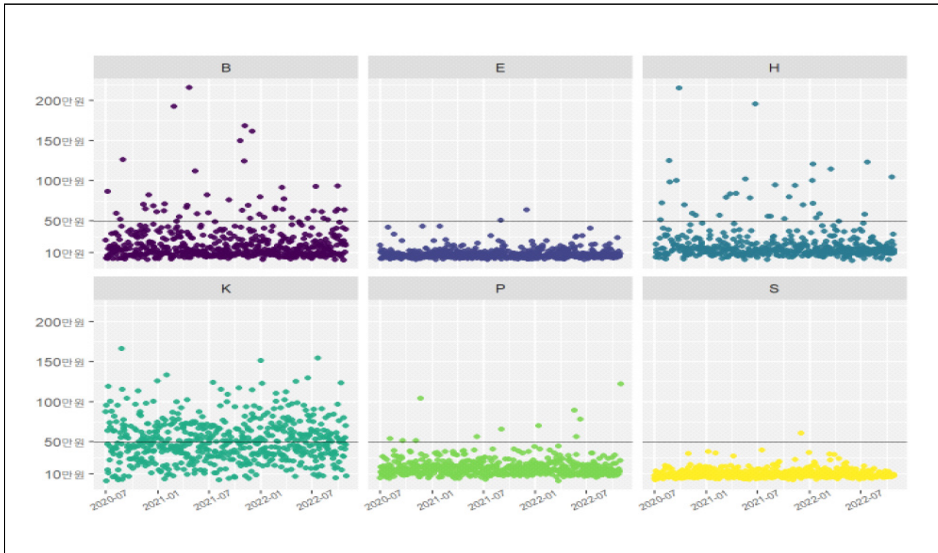
그룹		주요 보험사고
B	방광	방광
E	귀 염증	귀염·외이
H	심장	심장
K	슬개골 탈구 등	슬개골·다리·탈구
P	소화	구토·체장
S	피부	피부(염)

자료: 홍성원·전국보(2022).

³²⁾ 슬개골은 무릎 관절 위에 있는 작은 뼈로, 이 뼈가 옆으로 빠지는 것을 슬개골 탈구라고 함(홍성원·전국보, 2022). 유전적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여 소형견에서 자주 나타남(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53264&cid=42883&categoryId=59597>), 반려견 슬개골 건강, 검색일: 2023. 9. 22.).

주요 병인별 건당 지급액을 일별로 살펴보면 방광, 심장, 슬개골 탈구 질환이 상대적으로 타 질환보다 높은 보험금(50만 원 초과)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이와 같이 병인별로 보험금 지급액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수술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3> 일별 보험금 지급액(Scatter 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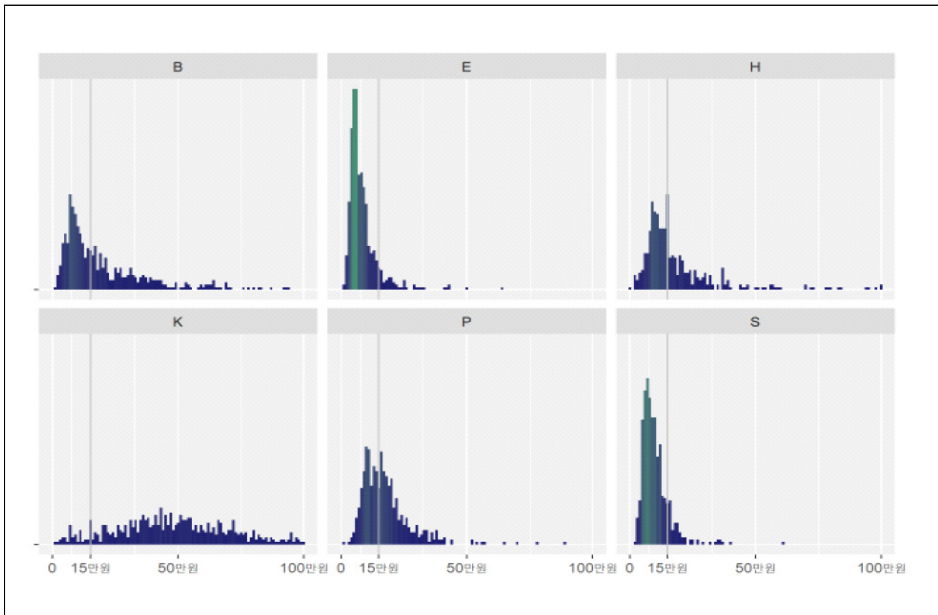


주: 수평축은 기간(일), 수직축은 일평균 지급보험금. B는 방광, E는 귀 염증, H는 심장질환, K는 슬개골 탈구 등, P는 소화, S는 피부질환.

자료: 홍성원·전국보(2022).

주요 병인별 건당 지급액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병인별 지급액의 히스토그램은 <그림 2-14>와 같다. 슬개골 탈구는 지급금액이 15만 원 이하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분포가 넓게 나타났으나, 귀 염증과 피부질환은 15만 원 이하로 분포가 집중되었다. 방광, 심장질환의 경우 15만 원을 기준으로 빈도가 높으나 50만 원을 초과하는 빈도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4> 일별 보험금 지급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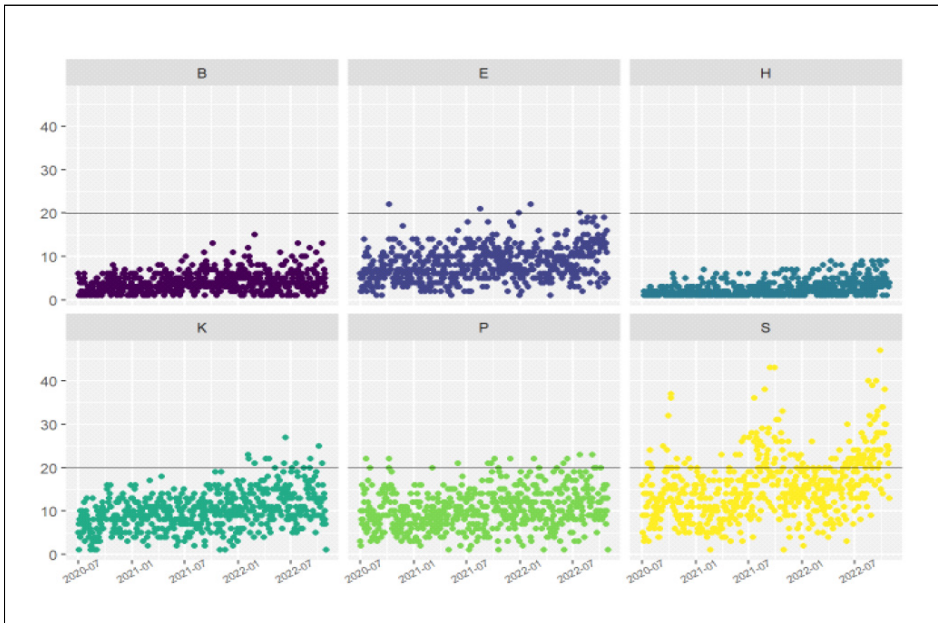
주 1) B: 방광, E: 귀 염증, H: 심장질환, K: 슬개골 탈구 등, P: 소화, S: 피부질환.

2) 수평축은 일평균 지급 보험금, 수직축은 밀도. 시각적인 편의를 위해 100만 원에서 절단.

자료: 홍성원·전국보(2022).

주요 병인에 대한 기간별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피부질환의 경우 일별 지급 건수(하루 20건 수 이상)가 다른 병인에 비해 많고, 월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계절성이 나타난다<그림 2-15>. 피부질환을 제외한 타 병인의 경우 일별로 균일하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피부질환의 경우 여름철(7~9월)에 보험금 지급건수가 많다.

〈그림 2-15〉 일별 보험금 지급건수(Scatter Plot)



주: B: 방광, E: 귀 염증, H: 심장질환, K: 슬개골 탈구 등, P: 소화, S: 피부질환.
자료: 홍성원·전국보(2022).

2.3.5. 펫보험 손해율

보험회사의 펫보험 판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A손해보험은 펫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자사 요율을 이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견종별로 구분하여 위험손해율을 관리하고 있다. 견종군별 위험손해율은 아직 100% 이하이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³³⁾ 다만, 연도별 차이가 아직 나타나고 있어 위험손해율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 펫보험 회사가 적극적으로 판매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단계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2022년은 위험손해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손해보험이 기본적으로 가입 초기에는 가입자의 병원비용이 적게 들지만 고령화될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보험회사의 가입자 제한으로 손해율이 낮다.

신규 펫보험 회사는 자체적인 통계 부족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출하여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있다<표 2-17>. 다만, 이러한 참조순보험요율이 12세 이하 개나 고양이에 대해 성별, 품종에 대한 구분 없이 보상비율로만 제시되어 있어 다양한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표 2-14〉 펫보험 참조순보험요율

구분	①보상비율 70%		②보상비율 50%	
보장내용	수술 150만 원 한도(연 2회) 입·통원 15만 원 한도(연 20회)		수술 100만 원 한도(연 2회) 입·통원 10만 원 한도(연 20회)	
순보험료	개	고양이	개	고양이
0세	224,325원	184,778원	167,291원	138,686원
...	...	...	...	...
12세	483,157원	281,543원	345,093원	201,109원

자료: 펫보험 활성화 TF 자료(2023. 7. 3.).

³³⁾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보험금)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이고, 위험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재원임.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조세금융신문(2020. 9. 16.), “‘거품(?) 뱅’ 실손보험 손해율 여전히 ‘심각’”.

3. 펫보험 관련 정책 현황

정부는 반려동물 복지 개선 및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20대 국정과제 중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37번, 43번, 48번에 명시되어 있다.³⁴⁾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반려동물 관련 정책 추진 배경에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복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이 절에서는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중 펫보험 활성화와 연관된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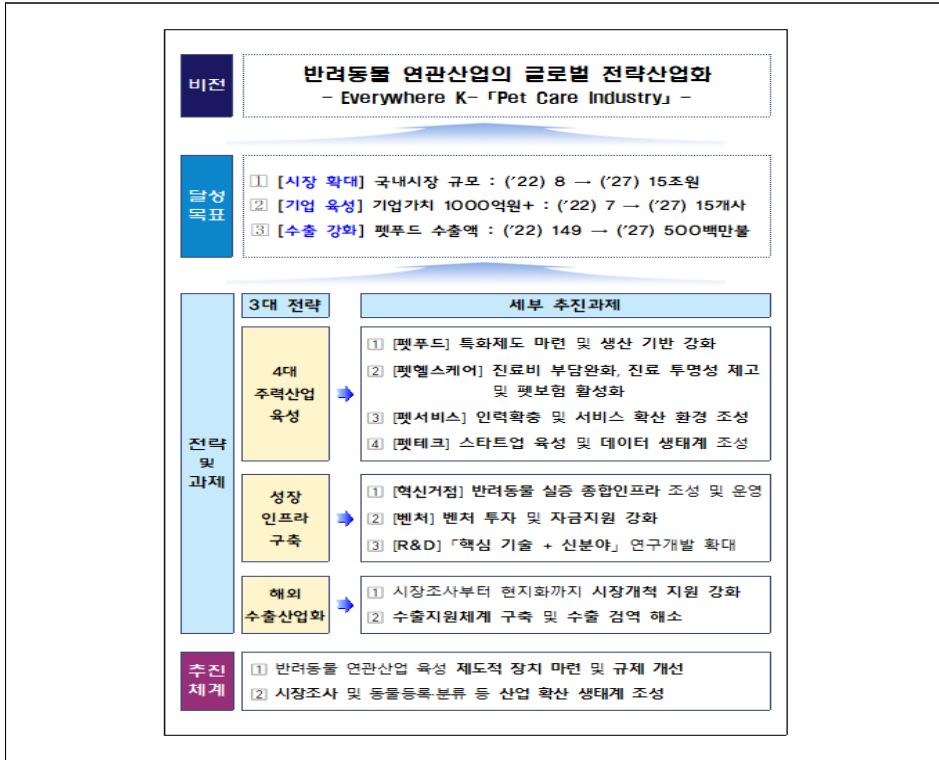
3.1.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2023. 8. 9.)³⁵⁾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8월 9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를 목표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그림 2-16>. 세부 추진과제 중 펫헬스케어 산업 육성이 펫보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³⁴⁾ 대한민국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중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37번, 금융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중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43번, 농식품부 등)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중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48번, 농식품부 등)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중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등임(대한민국 대통령실(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 120대 국정과제, 검색일: 2023. 11. 1).

³⁵⁾ 관계부처합동(2023. 8. 9.),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그림 2-1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8. 9.).

정부는 펫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료비 부담완화,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확대하고,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비교 게시, 현장 홍보·제도, 진료비 조사·분석 등을 협의 및 추진하고 있다<표 2-18>. 이러한 정책 추진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 이용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표 2-15〉 부가세 면세 대상 100여 개 진료항목(안)

분류체계(안)	부가세 면세 대상 추가항목(안) ※ 질병예방 목적 외 필요 목적 추가
진찰 및 입원	진찰,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조제/투약
검사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내과/피부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등
	(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등
	(외과)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범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등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등
	(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 치아 흡수성 병변, 치근단농양 등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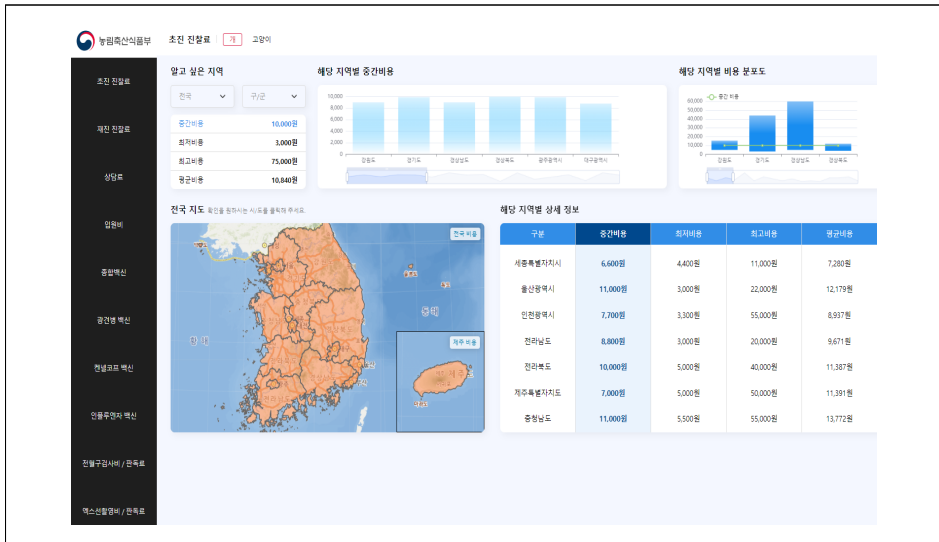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동물병원, 펫숍 등으로 보험사 제휴를 확대하여 판매 창구를 다양화하고, 간편 청구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편의 및 접근성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보상 한도, 횟수 등에 있어 기존의 획일적인 펫보험 상품에서 발달단계, 특성, 합리적인 보험료 등을 고려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진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를 조기 추진하고, 진료비 조사 및 공개를 확대한다.³⁶⁾ 예를 들면, 필수·다빈도 항목(중성화 수술, 외이염, 결막염, 무릎뼈 안쪽탈구, 위장관출혈 등 100여 개)에 대해 2023년까지 표준화를 실시하여 2024년 1월 표준 진료 절차 고시를 추진한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2023년 8월부터 현황 게시를 시작하였으며 항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³⁷⁾

³⁶⁾ 2인 이상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수의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시행, 2023. 1. 5). 2024년부터 1인 이상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적용됨.

³⁷⁾ 다만, 현재 공개 항목은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캔넬코프백신 접종비,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그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로 공개 범위가 낮은 수준임(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 검색일: 2023. 11. 1.).

〈그림 2-1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 시스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 검색일: 2023. 11. 1.

〈글상자 2-4〉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 운영 개시

- 피보험자 부담 치료비 20만 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8월 3일 보도자료 “우리 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 가능합니다”를 통해 8월 3일 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www.animalclinicfee.or.kr)을 운영한다고 발표함.
-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함.
- 진료비 항목은 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임. 구체적으로 초진 진찰료(개), 재진 진찰료(개), 상담료, 입원료(중형견 / 1일),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혈구 검사비 / 판독료, 엑스선촬영비 / 판독료 등임.
- 시도별 항목에 따른 평균, 중간, 최소, 최댓값 게시

자료: 저자 작성.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수립 및 비대면 서비스 검토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동물병원에 대한 전문과목(치과 등)과 2차 병원 체계 도입, 동물의료 개선 연구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 및 통계·현황 조사 등을 추진하고, 사진·영상 등 AI 기반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다만, 이러한 전문과목 및 2차 병원 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수의사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³⁸⁾³⁹⁾

3.2.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2023. 10. 16.)⁴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0월 16일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기존 2023년 8월 9일에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서 반려동물보험에 더욱 집중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부족과 동물의료·보험 간 제휴 및 연계가 부족한 것에 주목하여 보험인프라 구축, 소비자 편의성 증대(One-stop 서비스),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등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보험인프라구축을 위해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체인식정보(예: 비문, 홍채 등)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고,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화를 검토 및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의료기록 발급 의무화를 검토한다. 그리고 동물병원의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항목 표준화를 확대하고, 관련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소비자 편의성 증대(One-stop 서비스)는 동물병원, 펫샵 등이 간단손해

38) 팜뉴스(2022. 7. 11.), “수의사 전문의 제도, 수의사·수의대생 80%가 원한다”; 데일리벳(2022. 1. 5.), “동물병원 수의사의 ‘전문의’ 광고 불법…최대 면허효력정지”.

39) 전문수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내용은 미국(데일리벳(2021. 9. 23.), “[수의미래연구소] 베트윈 1 – 미국 수의사가 들려주는 전문수의사”), 영국(데일리벳(2021. 11. 19.), “[수의미래연구소] 베트윈 5 – 영국 수의사가 들려주는 동물의료계 ②”)을 참고 바람.

40) 관계부처합동(2023. 10. 16.),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보험대리점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⁴¹⁾ 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가 손쉽게 진료기록을 보험사로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게 수익업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보험사가 동물등록업무, 건강증진·돌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검토한다.

셋째, 정부는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다양하지 않은 보험 상품을 반려동물(연령, 종) 및 질병 등을 고려하여 다양화 한다<표 2-19>. 또한, 등록 동물에 대한 할인·백신접종 및 건강검진 등에 대한 할인·무사고 고객에 대한 혜택 강화 등을 제공하고, 과잉진료 방지를 통해 저렴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협력 병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혜택 제고를 위한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표 2-16〉 주요 반려동물보험 상품 비교

구분	A사	B사	C사
건종 특성 반영	특성 반영 없음(일반·할증 그룹으로만 구분)		
보장한도	수술 건당 100~150만 원	수술 건당 200~250만 원	수술 건당 150만 원
보장비율	50~70%	50~80%	70%
보험료(연)	평균 약 38만 원	평균 약 45만 원	평균 약 44만 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넷째, 펫보험 신규 플레이어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의 손해보험사 위주의 펫보험 시장에 펫보험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보험 전문회사를 허용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이는 미국(Trupanion), 영국(BOUGHTBYMANY), 일본(Anicom, 츠리히소액단기보험) 등이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여 펫보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에 착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러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일정별로 제시하였다<표 2-20>.

41)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9 등 개정.

〈표 2-17〉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추진 일정

구분	'23년(~12월)	'24년 1~6월	'24년 7~12월	'25년~
진료비	·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23년중~) · 진료비용 공시('23.1월~)	· 진료항목 표준 분류체계 고시('24.1월~)		· 진료항목 표준화 지속 보완
	· 진료내역·기록 발급 등 근거마련 검토 ('수의사법' 등 개정 추진)	· 진료내역·기록 발급 등 근거마련 추진 및 시행 (※ '수의사법' 개정 전제 시)		
상품 개발	· 건강관리 리워드 확대 · 보험상품 개선방안 검토·준비 · 반려동물 특화보험사 허용('23. 下~)	· 맞춤형 보험 상품 (1단계) 판매	· 맞춤형 보험상품(1단계) 보완	
		· 맞춤형 보험상품(2단계) 개발 검토 (인프라 구축 상황 등과 연계하여 출시 검토)		
기타 인프라 구축	· 보험·수의업계 협약 체결, 제휴관계 구축 등 추진	· 진료행위·통계·청구절차 등 제휴관계 지속 추진		
	· 반려동물보험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 세부 방안 검토 및 준비	·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	· 청구간소화 서비스 개시	· 청구간소화 참여 확대
	· 반려동물 등록제 ICT Sandbox 운영(~'24년)			· 등록제 법제화 검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3.3. 지방자치단체 유기견 펫보험 지원 사업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기견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와 조례를 근거로 동물병원과 협약하여 치료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 펫보험 무상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⁴²⁾

각 지자체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해 1년 동안 무상으로 펫보험을 지원하는 형태로 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은 2020년부터 운영하였고, 창원은 2021년, 대구는 2022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손해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유기동물에 대해 동물병원에서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입양에 필요한 치료 및 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⁴²⁾ 보험신보(2022. 8. 29.), “지자체 펫보험 무상지원제도 시행 확산”.

동물병원 및 손해보험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자체의 유기견 입양자에 대한 펫보험 지원 정책은 펫보험 가입자 수를 높이는 효과를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2-18〉 서울시 유기견 반려동물보험 지원사업



상품 보장 내용 (DB손해보험 프리미엄 반려동물보험II)					
보장담보	세부항목	보상한도	총보상한도	공제금액	보상비율
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질환 확장담보 포함)	입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천만원	1일당 3만원	60%
	통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일당 3만원	60%
	수술치료비	1회당 150만원 (연 2회 한도)		1회당 3만원	60%
반려동물 배상책임	타인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입인 손해	1사고당 5백만원	5백만원	1사고당 3만원	100%

보상 예시

사례1 반려동물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3일) 및 수술(1회)을 받아 총 25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	실제치료비	공제금액	보상비율	직용후 (공제금액 및 보상비율)	보험금
입원 (3일)	450,000원(150,000원X3일)	2,500,000원	90,000원(30,000원X3일)	60%	1,428,000원	1,428,000원
수술 (1회)	1,500,000원		30,000원			
계	1,950,000원	2,500,000원	120,000원	60%	1,428,000원	1,428,000원

사례2 반려동물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통원치료(2일)를 받아 총 25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	실제치료비	공제금액	보상비율	직용후 (공제금액 및 보상비율)	보험금
통원 (2일)	300,000원(150,000원X2일)	250,000원	60,000원(30,000원X2일)	60%	114,000원	114,000원
계	300,000원	250,000원	60,000원	60%	114,000원	114,000원

자료: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https://animal.seoul.go.kr/support2>), 검색일: 2023. 11. 1.

〈글상자 2-5〉 ‘동물보호법’ 중 동물의 구조·보호 규정

-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 ① 사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② 사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검색일: 2023. 12. 5.

3

펫보험 이용 실태조사

1. 조사개요

1.1. 조사목적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양육현황, 펫보험 가입 실태 및 가입 의향, 펫보험료 지불의사금액, 펫보험 관련 제도 인식, 동물병원 이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조사 기간 및 대상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반려동물 양육자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고려하여 지역 기준 조사 대상 할당 방식을 사용하였다.⁴³⁾

1.3. 설문지 내용⁴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원 수,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현황, 반려동물 관련 지출 및 동물병원 이용 현황, 펫보험 관련 현황, 펫보험 관련 제도와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3-1〉 ‘반려동물 양육 및 펫보험 가입 실태 조사’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비고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별, 연령, 거주지, 반려동물 마릿수	- 지역 기준 조사 대상 할당 방식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반려동물 마릿수, 성별, 품종, 연령	- 개와 고양이 양육자만을 대상으로 조사
반려동물 관련 지출 및 동물병원 이용 현황	반려동물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 월평균 동물병원 방문 횟수, 동물병원 평균 지출 비용, 방문 이유, 동물병원 선택 기준, 반려동물과의 관계,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반려동물 고비용 수술 경험 등	- 반려동물 관계 및 복지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활용)
펫보험 관련 현황	펫보험 인지도, 가입 여부, 만족도, 가입의향, 가입 필요성, 펫보험 가입 선호 방식, 펫보험 상품 속성 중도, 펫보험 지불의사금액 등	- 인지도(4점 척도 활용) - 만족도 및 가입의향(5점 척도 활용) - 지불의사 금액 관련 조건부가치측정법(CVM) 방법 활용
펫보험 관련 제도와 인식	반려동물등록제, 진료표준화, 진료비 공개의무화, 진료기록부 공개에 대한 인지도, 펫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의 필요성	- 인지도(4점 척도 활용) - 필요성(5점 척도 활용)
반려동물 주 양육자 정보	가구원수, 가구소득, 주 양육자 연령, 주 양육자 학력 등	- 5점 척도 활용

자료: 저자 작성.

43) (주)엠브레인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44)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함.

1.4. 설문 응답자 주요 특성

설문 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00명의 응답자 중 남성은 272명(45.3%)이고 여성은 328명(54.7%)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다. 연령대는 20대가 106명(17.7%), 30대가 192명(32.0%), 40대가 176명(29.3%), 50대가 103명(17.2%), 60대가 23명(3.8%)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341명(56.8%),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60명(10.0%),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에서 55명(9.2%), 대경권(대구, 경북)에서 51명(8.5%),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에서 82명(13.7%), 강원권(강원도)에서 11명(1.8%)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도시지역이 538명(89.7%)으로 농어촌지역 62명(10.3%)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거주 주택 종류는 단독주택이 55명(9.2%), 아파트가 394명(65.7%), 다세대/빌라/기타 등이 151명(25.2%)으로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컸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가 426명(71.0%), 고양이가 242명(40.3%)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가구소득(세전)은 300만 원 미만이 84명(14.0%), 300만~500만 원 미만이 153명(25.5%), 500만~700만 원 미만이 150명(25.0%), 700만~900만 원 미만이 110명(18.3%), 900만 원 이상이 103명(17.2%)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가 본인인 경우는 477명(79.5%), 다른 가족 구성원인 경우는 123명(20.5%)으로 나타났고, 주 양육자 성별은 남성이 199명(33.2%), 여성이 401명(66.8%)이다. 주 양육자 연령은 29세 이하가 109명(18.2%), 30대가 181명(30.2%), 40대가 173명(28.8%), 50대가 105명(17.5%), 60세 이상이 32명(5.3%)이다. 주 양육자 직업은 자영업이 40명(6.7%), 판매/영업/서비스직이 36명(6.0%), 기능/생산/노무직이 32명(5.3%), 사무직이 288명(48.0%), 경영/관리직이 28명(4.7%), 전문직/자유직이 64명(10.7%), 가정주부가 75명(12.5%), 학생이 17명(2.8%), 기타가 20명(3.3%)이다. 주 양육자 학력은 고졸(대학생 포함) 이하가 119명(19.8%), 대학교 졸업(전문대졸/대학원생 포함)이 426명(71.0%), 대학원 졸업 이상이 55명(9.2%)으로 나타났다.

〈표 3-2〉 설문 응답자의 주요 특성

단위: 건, %

구분		사례 수	비율
성별	남성	272	45.3
	여성	328	54.7
연령	20대	106	17.7
	30대	192	32.0
	40대	176	29.3
	50대	103	17.2
	60대	23	3.8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41	56.8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60	10.0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55	9.2
	대경권(대구, 경북)	51	8.5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82	13.7
	강원권(강원도)	11	1.8
거주지역	도시지역	538	89.7
	농어촌 지역	62	10.3
거주 주택 종류	단독주택	55	9.2
	아파트	394	65.7
	다세대/빌라/기타	151	25.2
반려동물 종류	개	426	71.0
	고양이	242	40.3
가구원수	1명	113	18.8
	2명	134	22.3
	3명	172	28.7
	4명 이상	181	30.2
월평균 가구소득(세전)	300만 원 미만	84	14.0
	300만~500만 원 미만	153	25.5
	500만~700만 원 미만	150	25.0
	700만~900만 원 미만	110	18.3
	900만 원 이상	103	17.2
주 양육자	본인	477	79.5
	타인	123	20.5
주 양육자 성별	남성	199	33.2
	여성	401	66.8
주 양육자 연령	29세 이하	109	18.2
	30~39세	181	30.2
	40~49세	173	28.8
	50~59세	105	17.5
	60세 이상	32	5.3
주 양육자 직업	자영업	40	6.7
	판매/영업/서비스직	36	6.0
	기능/생산/노무직	32	5.3
	사무직	288	48.0
	경영/관리직	28	4.7
	전문직/자유직	64	10.7
	가정주부	75	12.5
	학생	17	2.8
주 양육자 학력	기타	20	3.3
	고졸(대학생 포함) 이하	119	19.8
	대학교 졸업(전문대졸/대학원생 포함)	426	71.0
	대학원 졸업 이상	55	9.2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2.1.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반려동물 양육 가구(개, 고양이)의 양육 마릿수는 개는 1.2마리, 고양이는 1.6마리로 1마리를 양육하는 가구 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개의 경우 전체 426명의 응답자 중에 359(84.3%)명이 1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고양이는 전체 242명 중에 163명(67.4%)이 1마리를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개와 고양이를 동시에 키우는 경우를 제외하였을 경우 강아지만 1마리 키우는 경우는 303가구, 고양이만 1마리 키우는 가구는 115가구로 나타났다.

〈표 3-3〉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

단위: 명, %

구분		1	2	3	4	5	6	7	8	계	평균(마리)
개	빈도	359	54	11	1	-	1	-	-	426	1.2
	비율(%)	84.3	12.7	2.6	0.2	-	0.2	-	-	100.0	-
고양이	빈도	163	45	21	4	5	2	-	2	242	1.6
	비율(%)	67.4	18.6	8.7	1.7	2.1	0.8	-	0.8	100.0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수컷 개를 키우는 응답자 수(265명)가 암컷 개를 키우는 응답자 수(20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수컷을 키우는 응답자 수(145명)가 암컷을 키우는 응답자 수(155명)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의 경우 주 양육자가 남성인 경우 수컷 개를 키우는 사례가 98명으로 나타나 암컷을 키우는 응답수 65명보다 많았고,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 수컷 개를 키우는 경우가 167명으로 암컷을 키우는 경우 140명보다 많았다. 반면, 고양이의 경우 주 양육자가 남성인 경우 수컷을 키우는 경우가 54명으로 암컷을 키우는 경우 54명과 동일하였고,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 수컷을 키우는 경우가 91명,

암컷을 키우는 경우가 101명으로 나타났다.

〈표 3-4〉 반려동물 성별 및 주 양육자 성별

단위: 명, %

구분			0	1	2	3	4	5	6	7	계
개	수컷	빈도	161	250	14	-	1	-	-	-	426
		비율(%)	37.8	64.0	3.5	-	0.0	-	-	-	100.0
		남성	45	91	6	-	1	-	-	-	143
		여성	116	159	8	-	-	-	-	-	283
	암컷	빈도	221	184	19	2	-	-	-	-	426
		비율(%)	51.9	43.2	4.5	0.5	-	-	-	-	100.0
		남성	78	60	5	-	-	-	-	-	143
		여성	143	124	14	2	-	-	-	-	283
고양이	수컷	빈도	97	117	22	1	4	-	-	1	242
		비율(%)	40.1	48.3	9.1	0.4	1.7	-	-	0.4	100.0
		남성	35	45	8	1	-	-	-	-	89
		여성	62	72	14	-	4	-	-	1	153
	암컷	빈도	87	127	18	7	1	2	-	-	242
		비율(%)	36.0	52.5	7.4	2.9	0.4	0.8	-	-	100.0
		남성	35	46	8	-	-	-	-	-	89
		여성	52	81	10	7	1	2	-	-	15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품종은 몰티즈가 23.9%로 가장 많고, 푸들(18.8%), 믹스견(17.6%), 포메라니안(14.1%) 순이다. 고양이는 코리안숏헤어의 비중이 57.9%로 가장 크고, 그다음은 러시안블루(14.0%), 페르시안(11.2%)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반려동물 품종(중복응답 가능)

단위: %, 개

구분	개		고양이	
	품종	비중(%)	품종	비중(%)
1위	몰티즈	23.9	코리안숏헤어 ⁴⁵⁾	57.9
2위	푸들	18.8	러시안블루	14.0
3위	믹스견	17.6	페르시안	11.2
4위	포메라니안	14.1	삼	7.4
5위	시추	5.9	터키쉬앙고라	6.6
6위	치와와	5.6	스코티시폴드	5.4
7위	비숑 프리제	4.7	아메리칸숏헤어	3.7
8위	요크셔 테리어	3.5	브리티시숏헤어	2.9
9위	진돗개	2.6	벵갈	1.2
10위	기타	13.6	기타	3.3
사례 수	426		242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등록 여부는 전부 등록한 경우가 58.8%로 가장 비중이 높고, 일부 등록이 6.3%, 전부 미등록이 34.8%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에서는 전부 등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60.0%, 일부 등록이 6.9%, 전부 미등록이 33.1%로 조사된 반면 농촌에서는 전부 등록이 48.4%, 일부 등록이 1.6%, 전부 미등록이 50.0%로 전부 미등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 개의 경우는 전부 등록이 76.1%, 일부 등록이 8.7%, 전부 미등록이 15.3%로 나타났고, 고양이의 경우 전부 등록이 24.8%, 일부 등록이 13.2%, 전부 미등록이 62.0%로 확인되었다. 고양이는 개와 다르게 현재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가 아니고, 등록제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개에 비해 동물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⁴⁵⁾ 코리안숏헤어는 특정 품종이라기 보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야생고양이를 의미함(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A%B3%A0%EC%96%91%EC%9D%B4>), 검색일: 2023. 11. 13).

〈표 3-6〉 반려동물 등록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부 등록	일부 등록	전부 미등록	계	
전체	빈도	353	38	209	600	
	비율(%)	58.8	6.3	34.8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323	37	178	538
		비율(%)	60.0	6.9	33.1	100.0
	농촌	빈도	30	1	31	62
		비율(%)	48.4	1.6	50.0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324	37	65	426
		비율(%)	76.1	8.7	15.3	100.0
	고양이	빈도	60	32	150	242
		비율(%)	24.8	13.2	62.0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입양 주 경로는 가정입양(지인, 카페, 커뮤니티 등을 통한 입양)이 43.8%로 가장 높고, 펫샵을 통한 입양이 30.3%, 보호소 및 유기 동물 입양이 23.2%, 브리더(번식자)를 통한 입양이 2.7% 순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 연령별로 보았을 때도 가정입양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60대의 경우 가정입양 비율이 65.2%로 특히 높았다. 6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펫샵과 보호소/유기 동물 입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반려동물 종류별로 보았을 때 개의 경우는 가정입양이 43.7%, 펫샵을 통한 입양이 37.3%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양이의 경우는 가정입양이 41.7%, 보호소 및 유기동물 입양이 38.4%로 비중이 높았다.

〈표 3-7〉 반려동물 입양 주 경로

단위: 명, %

구분		가정입양	펫샵 통한 입양	보호소/유기동물 입양	브리더를 통한 입양	계	
전체	빈도	263	182	139	16	600	
	비율(%)	43.8	30.3	23.2	2.7	100.0	
주 양육 자 연령	20대 이하	빈도	50	24	31	1	106
		비율(%)	47.2	22.6	29.2	0.9	100.0
	30대	빈도	78	60	50	4	192
		비율(%)	40.6	31.3	26.0	2.1	100.0
	40대	빈도	73	59	37	7	176
		비율(%)	41.5	33.5	21.0	4.0	100.0
	50대	빈도	47	35	17	4	103
		비율(%)	45.6	34.0	16.5	3.9	100.0
	60대 이상	빈도	15	4	4	0	23
		비율(%)	65.2	17.4	17.4	0.0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186	159	67	14	426
		비율(%)	43.7	37.3	15.7	3.3	100.0
	고양이	빈도	101	42	93	6	242
		비율(%)	41.7	17.4	38.4	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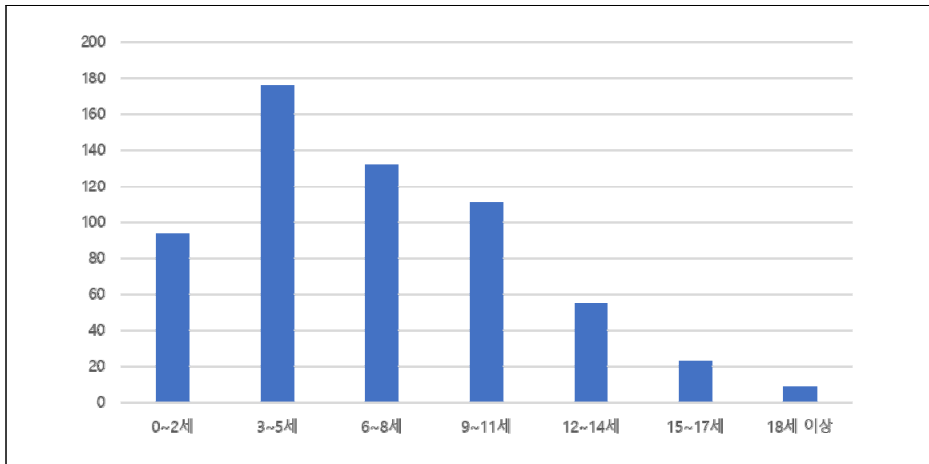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연령⁴⁶⁾ 분포는 0~2세가 15.7%, 3~5세가 29.3%, 6~8세가 22.0%, 9~11세가 18.5%, 12~14세가 9.2%, 15~17세가 3.8%, 18세 이상이 1.5%로 나타났다<그림 3-1>. 평균 연령은 약 6.9세로 추정된다. Montoya et al.(2023)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종류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의 평균 수명은 약 12.7세,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약 11.2세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9세 이상의 노령 반려동물 비율도 3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 양육자 연령별로 보았을 때 60대 이상의 경우 반려동물 연령이 6~8세가 3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3~5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개와 고양이 모두 3~5세 비중이 각각 29.1%, 31.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6~8세로 각각 23.2%와 20.2%를 차지하였다.

46)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만 나이임.

〈그림 3-1〉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연령 분포

단위: 명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8〉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연령 분포

단위: 명, %

구분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계
전체	빈도	94	176	132	111	55	23	9	600
	비율(%)	15.7	29.3	22.0	18.5	9.2	3.8	1.5	100.0
주 양육자 연령	20대 이하	빈도	23	38	15	18	10	4	109
		비율(%)	21.1	34.9	13.8	16.5	9.2	3.7	100.0
	30대	빈도	32	52	38	35	13	8	181
		비율(%)	17.7	28.7	21.0	19.3	7.2	4.4	100.0
	40대	빈도	24	54	35	31	18	7	173
		비율(%)	13.9	31.2	20.2	17.9	10.4	4.0	100.0
	50대	빈도	11	27	32	23	8	3	105
		비율(%)	10.5	25.7	30.5	21.9	7.6	2.9	100.0
	60대 이상	빈도	4	5	12	4	6	1	32
		비율(%)	12.5	15.6	37.5	12.5	18.8	3.1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56	124	99	79	45	18	426
		비율(%)	13.1	29.1	23.2	18.5	10.6	4.2	100.0
	고양이	빈도	44	77	49	45	17	6	242
		비율(%)	18.2	31.8	20.2	18.6	7.0	2.5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글상자 3-1〉 반려동물 수명

- 반려동물 수명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한 편임. 다만,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Teng et al.(2022)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영국에서 죽은 30,563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평균 수명(0세)이 11.23세(11.35-11.47, 95% 신뢰구간)로 제시함. 다만,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예를 들면, 잭 러셀 테리어는 12.72세(12.53-12.90, 95% 신뢰구간)으로 가장 길고, 요크셔 테리어가 12.54세(12.30-12.77, 95% 신뢰구간), 보더 콜리가 12.10세(11.85-12.22, 95% 신뢰구간) 순으로 나 타남. 프렌치 불도그가 4.53세(4.14-5.01, 95% 신뢰구간)으로 가장 짧음. 다만, 잭 러셀 테리어의 경우 평균 수명은 12.72세지만 표본 중 19세까지 생존한 경우가 있고, 프렌치 불도그는 평균 수명은 4.53세지만 11세까지 생존한 표본이 존재함.
- Montoya et al.(2023)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동물병원 자료를 이용하여 개와 고양이의 평균 수명(0세)이 각각 12.69세(12.68-12.70, 95% 신뢰구간), 11.18세(11.16-11.20, 95% 신뢰구간)임을 제시함. 또한,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은 크기가 작고, 최근 연도일수록 늘어나지만, 반려동물이 비만일 경우 평균 수명이 감소함을 보임.

자료: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과거 반려동물 양육 여부는 개를 키웠다고 응답한 사람이 60.2%, 고양이를 키웠다고 응답한 사람이 20.8%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의 반려동물이 처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3.7%로 나타나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의 모습을 보여준다(〈표 3-9〉). 현재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 중 과거 개를 키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66.7%, 고양이를 키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17.4%, 경험 없음 응답자의 비중은 31.0%로 조사되었다. 현재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과거 개를 키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55.8%, 고양이를 키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1.8%, 경험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3.1%로 나타나 반려동물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를 키웠던 사람은 개를 키울 가능성이 높고, 고양이를 키웠던 사람은 고양이를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9〉 과거 반려동물 양육 여부(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개	고양이	경험 없음	계
전체	빈도	361	125	202	600
	비율(%)	60.2	20.8	33.7	-
반려동물	개	빈도	284	74	426
		비율(%)	66.7	17.4	-
	고양이	빈도	135	77	242
		비율(%)	55.8	3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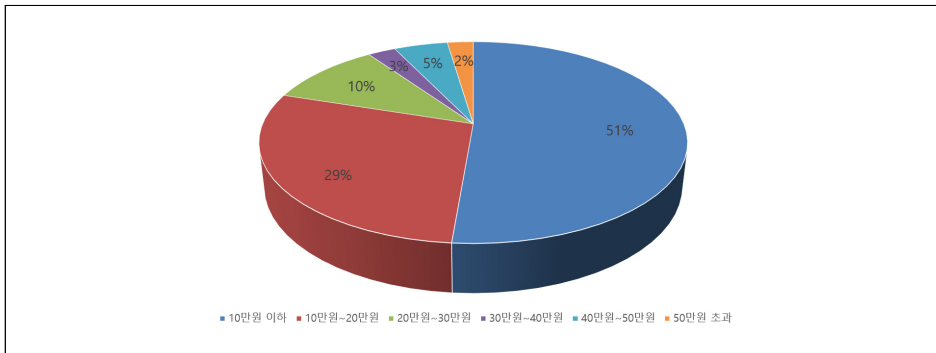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 반려동물 관련 지출 및 동물병원 이용 현황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평균 16만 8,850원으로 나타났다<그림 3-2>. 하지만 표준편차가 15만 714원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별 지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반려동물 관련 월평균 지출액이 1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51.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의 가구는 28.7%, 20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의 가구는 10.3%, 30만 원 초과 40만 원 이하의 가구는 2.5%, 4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의 가구는 4.8%, 50만 원 초과 가구는 2.3%로 조사되었다.

〈그림 3-2〉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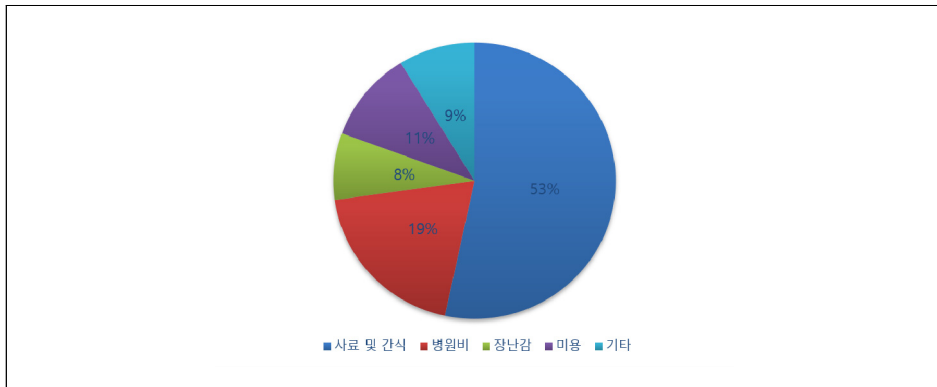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항목별 비중은 사료 및 간식이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병원비가 19%, 장난감 8%, 미용 11%, 그 외 기타 비용 9% 순이다. 지출액의 항목별 금액은 사료 및 간식의 평균 지출액이 8만 331원, 병원비가 4만 58원, 장난감 비용이 1만 4,127원, 미용비가 1만 8,521원, 기타 비용이 1만 5,812원으로 조사되었다<표 3-3>.

〈그림 3-3〉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항목별 비중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항목별 지출액은 평균 지출액과 지출액 중간값 간 차이가 있다. 전체 지출액의 평균은 16만 8,850원이지만 중간값은 10만 원이고, 사료 및 간식 지출액 평균은 8만 331원이지만 중간값은 6만 원이다. 병원비의 경우 평균 4만 58원이지만 중간값은 2만 원이며, 장난감의 평균 지출액은 1만 4,127원이고 중간값은 1만 원이다. 미용은 평균 지출액이 1만 8,521원이지만 중간값은 1만 원이고, 기타 비용의 평균값은 1만 5,812원이지만 중간값은 0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소비 수준이 평균값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표 3-10〉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

단위: 원

구분	비중	금액	표준편차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
전체	100.0	168,850	140,713.8	10,000	100,000	1,000,000
사료 및 간식	53.4	80,331	7,279.3	3,000	60,000	600,000
병원비	19.4	40,058	64,469.3	0	20,000	720,000
장난감	7.8	14,127	21,215.6	0	10,000	240,000
미용	10.7	18,521	27,308.7	0	10,000	200,000
기타	8.8	15,812	35,879.9	0	0	490,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 방문주기는 주 1회 이상이 0.8%, 2~3주에 1회가 7.8%, 한 달에 1회가 22.8%, 2개월에 1회가 11.8%, 3개월에 1회가 16.8%, 4~6개월에 1회가 13.5%, 7개월~1년에 1회가 24.5%, 가본 적 없음이 1.8%로 나타났다<표 3-12>.

미국 수의사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 미국 동물병원협회(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AAHA)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최소 연 1회, 노령동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의 건강검진(physical exam)을 권장하고 있다.⁴⁷⁾ 이 기준에 따르면 전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응답자의 대부분이 동물병원 방문 횟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문이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검진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3-11〉 반려동물 생애 단계

구분	신생아기 (Puppy/Kitten)	청년기 (Young adult)	성년기 (Mature adult)	노령기 (Senior)
개	~6-9달	~3-4세	신체적, 사회적 성숙 완료~ 예상 수명의 마지막 25%까지 (품종 및 크기에 따라 다름)	예상 수명의 마지막 25%~수명이 다할 때 까지
고양이	~1세	1~6세	7~10세	10세 이상

자료: 아이안 동물의료센터(<http://www.aianamc.co.kr/health-checkup-center/>), 검색일: 2023. 11. 18.; 미국 동물병원협회(<https://www.aaha.org/aaha-guidelines/life-stage-canine-2019/canine-life-stage-definitions/>, <https://www.aaha.org/aaha-guidelines/life-stage-feline-2021/feline-life-stage-definitions/>), 검색일: 2023. 11. 18.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 방문 주기의 특징으로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지역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고, 개보다는 고양이 양육자의 방문 빈도가 낮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물병원 방문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의 양육 가구 중에도 동물

47) 아이안 동물의료센터(<http://www.aianamc.co.kr/health-checkup-center/>), 검색일: 2023. 11. 18.; 미국 동물병원협회(<https://www.aaha.org/aaha-guidelines/2023-aaha-senior-care-guidelines-for-dogs-and-cats/home/>), 검색일: 2023. 11. 18.

병원을 한 달에 1회 이상 방문하는 비중이 23.9%로 낮은 비중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2〉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 방문 주기

단위: 명, %

구분		주 1회 이상	2~3주에 1회	한 달에 1회	2개월에 1회	3개월에 1회	4~6개월에 1회	7개월~1년에 1회	기본 적 없음	계
전체	빈도	5	47	137	71	101	81	147	11	600
	비율 (%)	0.8	7.8	22.8	11.8	16.8	13.5	24.5	1.8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4	46	127	66	90	72	124	538
		비율 (%)	0.7	8.6	23.6	12.3	16.7	13.4	23.0	100.0
	농어촌	빈도	1	1	10	5	11	9	23	62
		비율 (%)	1.6	1.6	16.1	8.1	17.7	14.5	37.1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5	46	118	53	78	47	70	426
		비율 (%)	1.2	10.8	27.7	12.4	18.3	11.0	16.4	100.0
	고양이	빈도	3	9	37	31	35	39	86	242
		비율 (%)	1.2	3.7	15.3	12.8	14.5	16.1	35.5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빈도	0	5	15	5	15	12	9	84
		비율 (%)	0.0	6.0	17.9	6.0	17.9	14.3	34.5	100.0
	300만~500만 원	빈도	1	14	36	19	20	22	39	153
		비율 (%)	0.7	9.2	23.5	12.4	13.1	14.4	25.5	100.0
	500만~700만 원	빈도	1	14	30	22	29	19	32	150
		비율 (%)	0.7	9.3	20.0	14.7	19.3	12.7	21.3	100.0
	700만~900만 원	빈도	2	7	24	16	19	17	24	110
		비율 (%)	1.8	6.4	21.8	14.5	17.3	15.5	21.8	100.0
	900만 원 이상	빈도	1	7	32	9	18	11	23	103
		비율 (%)	1.0	6.8	31.1	8.7	17.5	10.7	22.3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 1회 방문 평균 지출 비용은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 4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5만 원 미만이 27.3%, 10만~15만 원 미만이 17.8%, 25만 원 이상이 5.3%, 15만~20만 원 미만이 4.4%, 20만~25만 원 미만이 2.4%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13>. 거주지역으로 구분하였을 때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모두 5만 원~1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려동물로 구분하였을 때도 5만 원~1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고양이의 경우 25만 원 이상이 8.3%로 개 3.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지 않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3〉 동물병원 1회 방문 평균 지출 비용

단위: 명, %

구분		5만 원 미만	5만~10만 원	10만~15만 원	15만~20만 원	20만~25만 원	25만 원 이상	계
전체	빈도	161	252	105	26	14	31	589
	비율(%)	27.3	42.8	17.8	4.4	2.4	5.3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148	224	92	25	13	529
		비율(%)	28.0	42.3	17.4	4.7	2.5	100.0
	농어촌	빈도	13	28	13	1	4	60
		비율(%)	21.7	46.7	21.7	1.7	1.7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113	194	75	16	6	417
		비율(%)	27.1	46.5	18.0	3.8	1.4	100.0
	고양이	빈도	62	88	44	15	11	240
		비율(%)	25.8	36.7	18.3	6.3	4.6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빈도	20	33	19	2	2	81
		비율(%)	24.7	40.7	23.5	2.5	2.5	100.0
	300만~500만 원	빈도	38	64	32	8	3	151
		비율(%)	25.2	42.4	21.2	5.3	2.0	100.0
	500만~700만 원	빈도	42	70	19	5	2	147
		비율(%)	28.6	47.6	12.9	3.4	1.4	100.0
	700만~900만 원	빈도	30	48	15	5	4	109
		비율(%)	27.5	44.0	13.8	4.6	3.7	100.0
	900만 원 이상	빈도	31	37	20	6	3	101
		비율(%)	30.7	36.6	19.8	5.9	3.0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 방문 주된 요인은 예방접종이 전체의 6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표 3-14>. 중복응답이 가능함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의 반려동물 양육자가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종류별로 보았을 때도 예방접종이 중요한 방문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치아질환, 안과질환, 관절염 등의 비중도 높게 확인되었다.

〈표 3-14〉 동물병원 방문 주된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예방 접종	치아 질환	안과 질환	관절염	이물질 섭취	신장 질환	피부 질환	기타	계	
전체		빈도	369	92	73	61	50	41	41	209	589
		비율 (%)	62.6	15.6	12.4	10.4	8.5	7.0	7.0	35.5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333	84	62	55	45	36	38	187	529
		비율 (%)	62.9	15.9	11.7	10.4	8.5	6.8	7.2	35.3	100.0
	농어촌	빈도	36	8	11	6	5	5	3	22	60
		비율 (%)	60.0	13.3	18.3	10.0	8.3	8.3	5.0	36.7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264	63	52	58	39	25	34	141	417
		비율 (%)	63.3	15.1	12.5	13.9	9.4	6.0	8.2	33.8	100.0
	고양이	빈도	149	46	32	18	20	20	9	99	240
		비율 (%)	62.1	19.2	13.3	7.5	8.3	8.3	3.8	41.3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 선택 기준(중복응답 가능)은 거주지와 거리가 전체의 6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균 진료비 43.3%, 친절한 응대 42.7%, 지인 추천 및 이용 후기 28.7%, 병원 규모 및 시설 23.7%, 24시간 진료 여부 16.8%, 의사 약력 16.0%, 진료과목 12.2%, 기타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15>.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였을 때도 도시와 농어촌 반려동물 양육자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15〉 동물병원 선택 주된 기준(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거주지 와의 거리	평균 진료비	친절한 응대	지인 추천 및 이용 후기	병원 규모 및 시설	24시간 진료 여부	의사 약력	진료 과목	기타	계	
전체	빈도	413	260	256	172	142	101	96	73	7	600	
	비율 (%)	68.8	43.3	42.7	28.7	23.7	16.8	16.0	12.2	1.2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371	237	231	158	129	93	88	65	7	538
		비율 (%)	69.0	44.1	42.9	29.4	24.0	17.3	16.4	12.1	1.3	100.0
	농어촌	빈도	42	23	25	14	13	8	8	8	0	62
		비율 (%)	67.7	37.1	40.3	22.6	21.0	12.9	12.9	12.9	0.0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296	189	94	121	95	72	69	45	4	426
		비율 (%)	69.5	44.4	45.5	28.4	22.3	16.9	16.2	10.6	0.9	100.0
	고양이	빈도	164	106	96	75	67	44	44	36	4	242
		비율 (%)	67.8	43.8	39.7	31.0	27.7	18.2	18.2	14.9	1.7	100.0
주 양 육자 성별	남성	빈도	139	93	85	52	46	30	36	20	3	199
		비율 (%)	69.8	46.7	42.7	26.1	23.1	15.1	18.1	10.1	1.5	100.0
	여성	빈도	274	167	171	120	96	71	60	53	4	401
		비율 (%)	68.3	41.6	42.6	29.9	23.9	17.7	15.0	13.2	1.0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빈도	59	42	40	26	26	19	11	13	1	84
		비율 (%)	70.2	50.0	47.6	31.0	31.0	22.6	13.1	15.5	1.2	100.0
	300만~ 500만 원	빈도	98	68	70	50	28	17	22	16	1	153
		비율 (%)	64.1	44.4	45.8	32.7	18.3	11.1	14.4	10.5	0.7	100.0
	500만~ 700만 원	빈도	100	69	59	44	38	26	21	18	3	150
		비율 (%)	66.7	46.0	39.3	29.3	25.3	17.3	14.0	12.0	2.0	100.0
	700만~ 900만 원	빈도	82	40	41	33	33	23	26	18	2	110
		비율 (%)	74.5	36.4	37.3	30.0	30.0	20.9	23.6	16.4	1.8	100.0
	900만 원 이상	빈도	74	41	46	19	17	16	16	8	0	103
		비율 (%)	71.8	39.8	44.7	18.4	16.5	15.5	15.5	7.8	0.0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 85.3%의 응답자는 동물병원에 데려간다고 응답하였다<표 3-16>. 하지만 질병에 걸렸는지 알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8.2%, 동물병원 방문 없이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인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주 양육자 성별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이 동물병원에 데려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동물병원에 데려간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았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양육자가 반려동물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동물병원에 데려간다고 응답하였으나, 반려동물 양육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6〉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조치

단위: 명, %

구분		동물병원에 데려감	질병에 걸렸는지 알기 어려움	동물병원 방문 없이 약국 에서 약을 사다 먹임	기타	계	
전체		빈도	512	49	36	3	600
		비율(%)	85.3	8.2	6.0	0.5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460	45	30	3	538
		비율(%)	85.5	8.4	5.6	0.2	100.0
	농어촌	빈도	52	4	6	0	62
		비율(%)	83.9	6.5	9.7	0.0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366	32	26	2	426
		비율(%)	85.9	7.5	6.1	0.5	100.0
	고양이	빈도	200	22	19	1	242
		비율(%)	82.6	9.1	7.9	0.4	100.0
주 양 육자 성별	남성	빈도	159	23	15	2	199
		비율(%)	79.9	11.6	7.5	1.0	100.0
	여성	빈도	353	26	21	1	401
		비율(%)	88.0	6.5	5.2	0.2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빈도	66	8	9	1	84
		비율(%)	78.6	9.5	10.7	1.2	100.0
	300만~ 500만 원	빈도	123	14	15	1	153
		비율(%)	80.4	9.2	9.8	0.7	100.0
	500만~ 700만 원	빈도	129	14	7	0	150
		비율(%)	86.0	9.3	4.7	0.0	100.0
	700만~ 900만 원	빈도	96	8	5	1	110
		비율(%)	87.3	7.3	4.5	0.9	100.0
	900만 원 이상	빈도	98	5	0	0	103
		비율(%)	95.1	4.9	0.0	0.0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설문 응답자와 반려동물과의 친밀도는 5점 척도(매우 불편함, 불편함, 보통, 친밀함, 매우 친밀함)로 조사하였을 때 매우 친밀함이 5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친밀함은 39.7%로 나타나 평균 점수 4.45로 친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7>. 설문 응답자가 주 양육자인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4.51로 나타났고 주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4.24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와 고양이에 상관없이 반려동물 양육자와 반려동물 간 친밀도가 높다고 조사되었다.

〈표 3-17〉 설문 응답자와 반려동물과의 친밀도(5점 척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함	보통	친밀함	매우 친밀함	평균 점수	계
전체	빈도	0	2	42	238	318	4.45	600
	비율(%)	0.0	0.3	7.0	39.7	53.0	-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0	2	37	209	4.46	538
		비율(%)	0.0	0.4	6.9	38.8	-	100.0
	농어촌	빈도	0	0	5	29	4.37	62
		비율(%)	0.0	0.0	8.1	46.8	-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0	2	26	173	4.46	426
		비율(%)	0.0	0.5	6.1	40.6	-	100.0
	고양이	빈도	0	1	18	98	4.43	242
		비율(%)	0.0	0.4	7.4	40.5	-	100.0
주 양육자	본인	빈도	0	1	23	186	4.51	477
		비율(%)	0.0	0.2	4.8	39.0	-	100.0
	타인	빈도	0	1	19	52	4.24	123
		비율(%)	0.0	0.8	15.4	42.3	-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설문 응답자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을 5점 척도: ‘사람과 같은 대우가 필요 없음’(①), ‘보통’(③), ‘사람과 같은 대우가 필요함’(⑤)로 조사하였을 때 ‘보통’(③)이 33.7%로 가장 비중이 높고, ‘보통’(③)에서 ‘사람과 같은 대우가 필요함’(④)이 30.0%, ‘사람과 같은 대우가 필요함’(⑤)이 29.7%로 나타나 평균 점수가 3.82가 나타났<표 3-18>.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는 도시의 평균

점수가 3.82로 농어촌지역 3.76보다 약간 높았다. 개를 키우는 응답자의 점수는 3.84로 고양이 양육자 3.75보다 높았으며, 주 양육자가 본인인 경우가 3.85로 타인의 경우 3.68보다 높았다.

〈표 3-18〉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5점 척도)

단위: 명, %

구분		사람과 같은 대우가 필요 없음	〈---	보통	---〉	사람과 같은 대우가 필요함	평균 점수	계	
전체		빈도	7	33	202	180	178	3.82	600
		비율 (%)	1.2	5.5	33.7	30.0	29.7	-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6	29	178	167	158	3.82	538
		비율 (%)	1.1	5.4	33.1	31.0	29.4	-	100.0
	농어촌	빈도	1	4	24	13	20	3.76	62
		비율 (%)	1.6	6.5	38.7	21.0	32.3	-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6	24	133	133	130	3.84	426
		비율 (%)	1.4	5.6	31.2	31.2	30.5	-	100.0
	고양이	빈도	3	11	93	71	64	3.75	242
		비율 (%)	1.2	4.5	38.4	29.3	26.4	-	100.0
주 양육자	본인	빈도	5	22	160	143	147	3.85	477
		비율 (%)	1.0	4.6	33.5	30.0	30.8	-	100.0
	타인	빈도	2	11	42	37	31	3.68	123
		비율 (%)	1.6	8.9	34.1	30.1	25.2	-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수술 경험 유무는 경험 있음이 24.8%, 경험 없음이 75.2%로 없음의 비중이 높았다<표 3-19>. 남성 응답자의 없음 비중이 79.4%로 여성 응답자의 비중 71.6%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50대와 60대가 없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거주지역별로 보

았을 때는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없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 반려동물 종류로 보았을 때는 개보다 고양이 양육자의 없음 응답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9〉 반려동물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수술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빈도	149	451	600	
	비율(%)	24.8	75.2	100.0	
성별	남성	빈도	56	216	272
		비율(%)	20.6	79.4	100.0
	여성	빈도	93	235	328
		비율(%)	28.4	71.6	100.0
연령	20대	빈도	31	75	106
		비율(%)	29.2	70.8	100.0
	30대	빈도	43	149	192
		비율(%)	22.4	77.6	100.0
	40대	빈도	55	121	176
		비율(%)	31.3	68.8	100.0
	50대	빈도	18	85	103
		비율(%)	17.5	82.5	100.0
	60대	빈도	2	21	23
		비율(%)	8.7	91.3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137	401	538
		비율(%)	25.5	74.5	100.0
	농어촌	빈도	12	50	62
		비율(%)	19.4	80.6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124	302	426
		비율(%)	29.1	70.9	100.0
	고양이	빈도	50	192	242
		비율(%)	20.7	79.3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과거 반려동물 양육 가구 여부를 고려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수술 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과거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없지만 현재의 반려동물에 대해 100만 원 이상 수술을 경험한 양육 가구 비중은 21.8%, 경험하지 않은 양육 가구는 78.2%로 나타났다<표 3-20>. 한편, 과거 반려동물 양육을 경험한 양육 가구는 100만 원 이상 수술을 경험한 비중이 26.4%, 그렇지 않은 경우는 73.6%로 나타나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그 차이는 4.6%로 크지는 않았다.⁴⁸⁾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비용(100만 원 이상)의 수술 경험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게 자주 확인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3-20〉 과거 반려동물 양육 경험 유무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수술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반려 동물 양육 경험	없음	빈도	44	158	202
		비율(%)	21.8	78.2	100.0
	있음	빈도	105	293	398
		비율(%)	26.4	73.6	100.0
	계		149	451	6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100만 원 이상의 수술 경험 횟수는 1회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1>. 이러한 경험은 거주지역, 반려동물 종류, 월평균 가구소득에 구분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고액의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48) 반려동물 양육 경험 유무와 100만 원 이상 수술 경험 유무에 대해 독립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고, 검정 결과 p-value값이 0.22로 나타남.

〈표 3-21〉 100만 원 이상의 수술을 경험한 횟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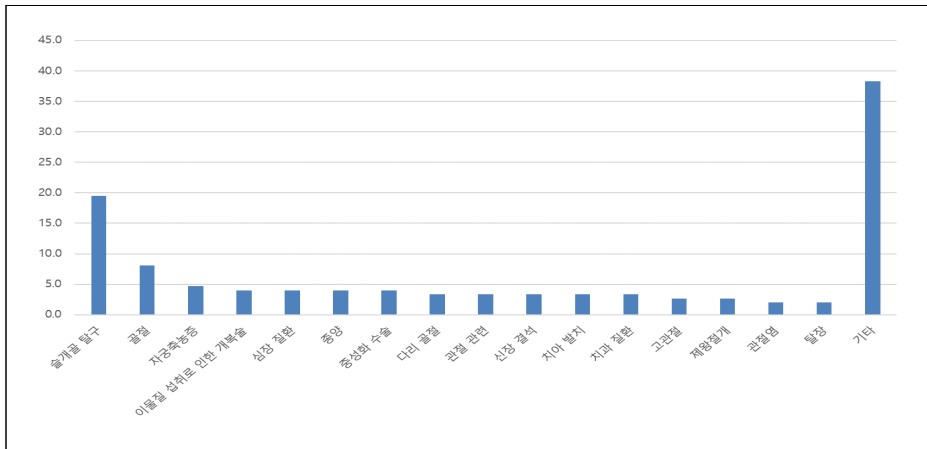
구분		0	1	2	3	4	7	계
전체	빈도	451	102	33	11	2	1	600
	비율 (%)	75.2	17.0	5.5	1.8	0.3	0.2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401	93	30	11	2	538
		비율 (%)	74.5	17.3	5.6	2.0	0.4	100.0
	농어촌	빈도	50	9	3	0	0	62
		비율 (%)	80.6	14.5	4.8	0.0	0.0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302	83	28	11	1	426
		비율 (%)	70.9	19.5	6.6	2.6	0.2	100.0
	고양이	빈도	192	36	11	1	1	242
		비율 (%)	79.3	14.9	4.5	0.4	0.4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빈도	65	13	5	1	0	84
		비율 (%)	77.4	15.5	6.0	1.2	0.0	100.0
	300만~500만 원	빈도	117	26	8	2	0	153
		비율 (%)	76.5	17.0	5.2	1.3	0.0	100.0
	500만~700만 원	빈도	114	20	9	5	2	150
		비율 (%)	76.0	13.3	6.0	3.3	1.3	100.0
	700만~900만 원	빈도	76	25	6	2	0	110
		비율 (%)	69.1	22.7	5.5	1.8	0.0	100.0
	900만 원 이상	빈도	79	18	5	1	0	103
		비율 (%)	76.7	17.5	4.9	1.0	0.0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0만 원 이상의 수술을 경험한 149명의 응답자에 대해 병명을 조사한 결과, 168건의 응답이 있었고 이 중 19.5%가 슬개골 탈구를 응답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3-4). 그 외 골절 8.1%, 자궁축농증 4.7%, 이물질 섭취로 인한 개복술 4.0%, 심장질환 4.0%, 종양 4.0%, 중성화수술 4.0% 등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그림 3-4〉 100만 원 이상의 수술이 필요했던 병명(중복응답,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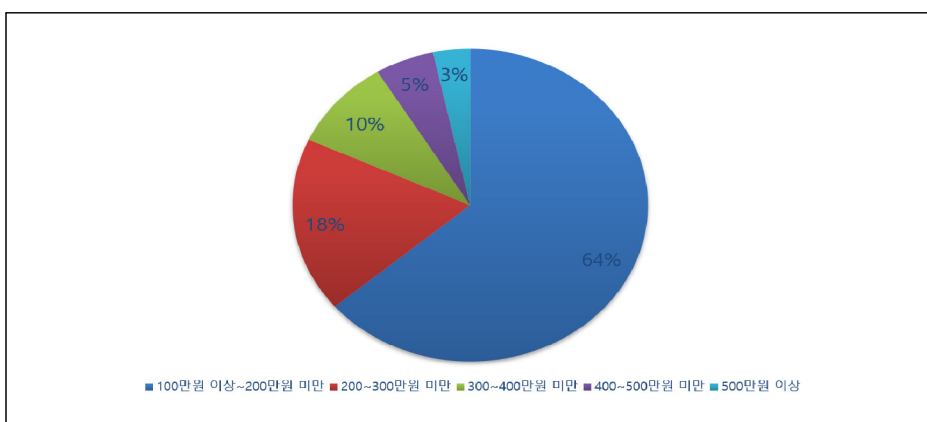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0만 원 이상의 수술비 분포를 보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64%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5>. 그리고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8%,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10%,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5%, 500만 원 이상이 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100만 원 이상의 수술비분포(중복응답, %)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슬개골 탈구⁴⁹⁾만을 응답한 25명을 대상으로 비용을 분석한 결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응답하였다<표 3-22>.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연도 및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3-22〉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슬개골 탈구 비용

단위: 명, 만 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비용	표준편차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
슬개골 탈구	100.0	206만 원	92.2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주: 슬개골 탈구만 응답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의 질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주일 이상 방치한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전체의 16.7%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중이 83.3%로 조사되었다<표 3-23>. 앞의 <표 3-22>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반려동물의 질병에 대해 인지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16.7% 정도가 반려동물의 질병을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대 응답자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⁴⁹⁾ 슬개골은 무릎 관절 위에 있는 작은 뼈로, 이 뼈가 옆으로 빠지는 것을 슬개골 탈구라고 함(홍성원·전국보, 2022). 유전적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여 소형견에서 자주 나타남(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53264&cid=42883&categoryId=59597>), 반려견 슬개골 건강, 검색일: 2023. 9. 22.).

〈표 3-23〉 반려동물의 질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주일 이상 방치한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빈도	100	500	600
		비율(%)	16.7	83.3	100.0
성별	남성	빈도	36	236	272
		비율(%)	13.2	86.8	100.0
	여성	빈도	64	264	328
		비율(%)	19.5	80.5	100.0
연령	20대	빈도	25	81	106
		비율(%)	23.6	76.4	100.0
	30대	빈도	36	156	192
		비율(%)	18.8	81.3	100.0
	40대	빈도	21	155	176
		비율(%)	11.9	88.1	100.0
	50대	빈도	15	88	103
		비율(%)	14.6	85.4	100.0
	60대	빈도	3	20	23
		비율(%)	13.0	87.0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84	454	538
		비율(%)	15.6	84.4	100.0
	농어촌	빈도	16	46	62
		비율(%)	25.8	74.2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74	352	426
		비율(%)	17.4	82.6	100.0
	고양이	빈도	42	200	242
		비율(%)	17.4	82.6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현재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병원 응급진료 경험 유무는 34.2%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65.8%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표 3-24).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20대와 60대가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73.6%와 78.3%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가 69.9%로 다른 경우보다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의 아니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3-24〉 현재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병원 응급진료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빈도	205	395	600
		비율(%)	34.2	65.8	100.0
연령	20대	빈도	28	78	106
		비율(%)	26.4	73.6	100.0
	30대	빈도	71	121	192
		비율(%)	37.0	63.0	100.0
	40대	빈도	67	109	176
		비율(%)	38.1	61.9	100.0
	50대	빈도	34	69	103
		비율(%)	33.0	67.0	100.0
	60대	빈도	5	18	23
		비율(%)	21.7	78.3	100.0
가구원 수	1명	빈도	34	79	113
		비율(%)	30.1	69.9	100.0
	2명	빈도	45	73	134
		비율(%)	36.6	63.4	100.0
	3명	빈도	57	115	172
		비율(%)	33.1	66.9	100.0
	4명 이상	빈도	65	116	181
		비율(%)	35.9	64.1	100.0
반려동물	개	빈도	163	263	426
		비율(%)	38.3	61.7	100.0
	고양이	빈도	79	163	242
		비율(%)	27.4	72.6	100.0
월 평균가 구소득	300만 원 미만	빈도	25	59	84
		비율(%)	29.8	70.2	100.0
	300만~ 500만 원	빈도	44	109	153
		비율(%)	28.8	71.2	100.0
	500만~ 700만 원	빈도	53	97	150
		비율(%)	35.3	64.7	100.0
	700만~ 900만 원	빈도	45	65	110
		비율(%)	40.9	59.1	100.0
	900만 원 이상	빈도	38	65	103
		비율(%)	36.9	63.1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현재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1박 이상 입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41.3%로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중 58.7%보다 낮게 조사되었다〈표 3-25〉.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서는 가구원 수가

1명일 때,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아니오 비중이 높았다.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서는 개보다는 고양이 양육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낮을수록 동물병원 1박 이상 입원 경험에 대해 아니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3-25〉 현재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1박 이상 입원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빈도	248	352	600
	비율(%)	41.3	58.7	100.0
가구 원수	1명	빈도	40	73
		비율(%)	35.4	64.6
	2명	빈도	60	74
		비율(%)	44.8	55.2
	3명	빈도	70	102
		비율(%)	40.7	59.3
	4명 이상	빈도	78	103
		비율(%)	43.1	56.9
거주 지역	도시	빈도	228	310
		비율(%)	42.4	57.6
	농어촌	빈도	20	42
		비율(%)	32.3	67.7
반려 동물	개	빈도	198	228
		비율(%)	46.5	53.5
	고양이	빈도	91	151
		비율(%)	37.6	62.4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빈도	30	54
		비율(%)	35.7	64.3
	300만~ 500만 원	빈도	61	92
		비율(%)	39.9	60.1
	500만~ 700만 원	빈도	62	88
		비율(%)	41.3	58.7
	700만~ 900만 원	빈도	47	63
		비율(%)	42.7	57.3
	900만 원 이상	빈도	48	55
		비율(%)	46.6	53.4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3. 펫보험 관련 현황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4점 척도(오늘 처음 들어봤다, 명칭만 들어본 적 있다, 명칭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2.78로 나타나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보통 이상임이 확인되었다<표 3-26>. 거주지역별로 보면 도시 지역의 인지도가 높고, 고양이보다는 개 양육자의 인지도가 높았다.

〈표 3-26〉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4점 척도)

단위: 명, %

구분		오늘 처음 들어봤다	명칭만 들어 본 적 있다	명칭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평균 점수	계	
전체		빈도	9	209	287	95	2.78	600
		비율(%)	1.5	34.8	47.8	15.8	-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5	185	262	86	2.80	538
		비율(%)	0.9	34.4	48.7	16.0	-	100.0
	농어촌	빈도	4	24	25	9	2.63	62
		비율(%)	6.5	38.7	40.3	14.5	-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5	131	213	77	2.85	426
		비율(%)	1.2	30.8	50.0	18.1	-	100.0
	고양이	빈도	5	93	106	38	2.73	242
		비율(%)	2.1	38.4	43.8	15.7	-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8.0%,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88.5%, 가입 거절 당함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5%로 조사되었다<표 3-27>.⁵⁰⁾ 여성 응답자보다 남성 응답자의 가입률이 높고, 농어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와 고양이의 가입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양육자 성별의 경우에도 남성인 경우가 여

⁵⁰⁾ 김경선·강윤지(2023)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펫보험 가입률 1% 미만보다는 높게 제시되었음.

성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주 양육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입률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가입 거절 사유로는 반려동물 연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질병 내역(6건), 반려동물 유전 질병 발생 가능성(2건), 반려동물 종류(1건) 등이 조사되었다.

〈표 3-27〉 펫보험 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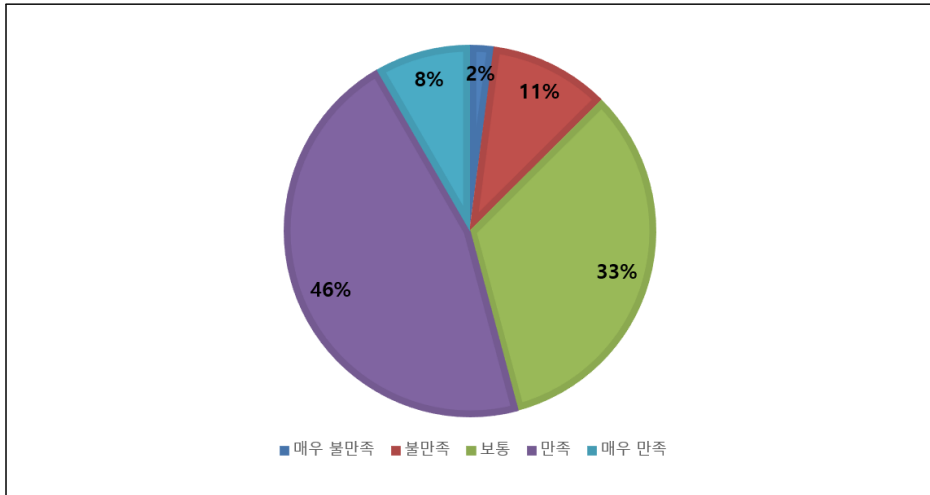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가입 거절 당함	계	
전체		빈도	48	531	21	600
		비율(%)	8.0	88.5	3.5	100.0
성별	남성	빈도	26	237	9	272
		비율(%)	9.6	87.1	3.3	100.0
	여성	빈도	22	294	12	328
		비율(%)	6.7	89.6	3.7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46	472	20	538
		비율(%)	8.6	87.7	3.7	100.0
	농어촌	빈도	2	59	1	62
		비율(%)	3.2	95.2	1.6	100.0
반려동물	개	빈도	42	365	19	426
		비율(%)	9.9	85.7	4.5	100.0
	고양이	빈도	25	214	3	242
		비율(%)	10.3	88.4	1.2	100.0
주 양육자 성별	남성	빈도	44	416	17	477
		비율(%)	12.6	83.9	3.5	100.0
	여성	빈도	4	115	4	123
		비율(%)	5.7	90.8	3.5	100.0
주 양육자 연령	20대	빈도	15	90	4	106
		비율(%)	13.8	82.6	3.7	100.0
	30대	빈도	13	159	9	192
		비율(%)	7.2	87.8	5.0	100.0
	40대	빈도	12	158	3	176
		비율(%)	6.9	91.3	1.7	100.0
	50대	빈도	8	94	3	103
		비율(%)	7.6	89.5	2.9	100.0
	60대	빈도	0	30	2	23
		비율(%)	0.0	93.8	6.3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펫보험 가입자(48명)를 대상으로 펫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로 조사한 결과 평균 3.48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로 조사되었다(그림 3-6). 만족 응답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 33.3%, 불만족 10.4%, 매우 만족 8.3%, 매우 불만족 2.1%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6〉 펫보험 가입자의 펫보험 만족도(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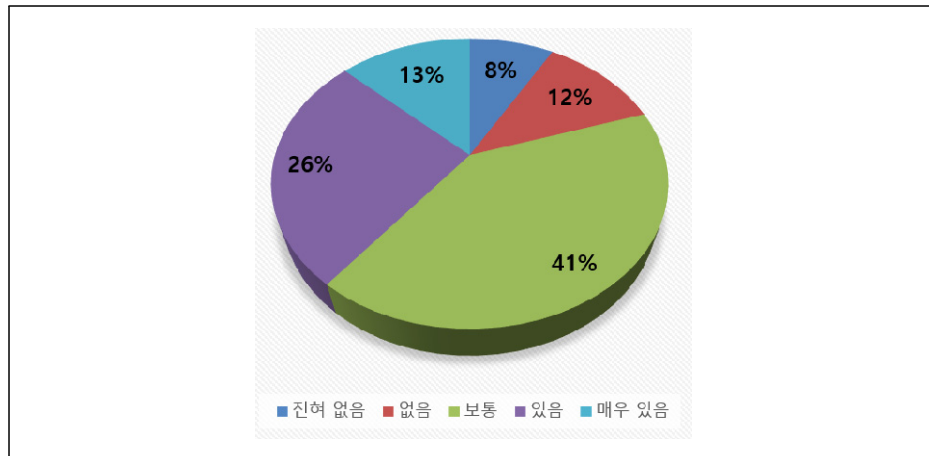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펫보험 가입자(48명)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보험금 청구 거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명(22.9%)이 있음으로 대답하였고, 37명(77.1%)이 청구 거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거부 이유로는 보장 질병이 아니어서(8명), 면책 기간이 아니어서(1명), 자료 부족(1명),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어서(1명) 등이 조사되었다.

펫보험 미가입자(531명)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5점 척도(전혀 없음, 없음, 보통, 있음, 매우 있음)로 조사한 결과 평균 3.24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가입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7).

〈그림 3-7〉 펫보험 가입자의 펫보험 가입 의향(5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자의 펫보험 가입 필요성을 5점 척도(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로 조사한 결과 필요함(37.5%)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보통(33.3%), 매우 필요함(18.7%), 필요하지 않음(8.2%), 전혀 필요하지 않음(2.3%)으로 조사되었다<표 3-28>. 펫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해 반려동물 양육자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펫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77.1%로 매우 높게 확인되었다.

〈표 3-28〉 펫보험 가입 필요성과 펫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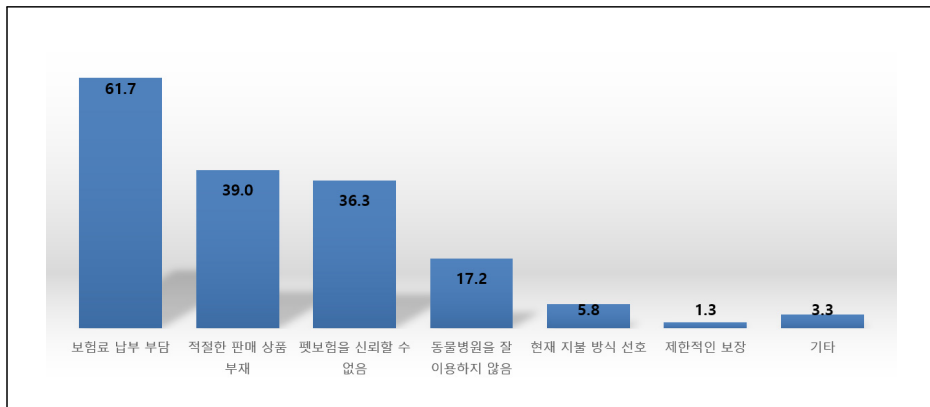
구분			펫보험 가입 필요성					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펫보험 가입 여부	예	빈도	0	2	9	24	13	48
		비율(%)	0.0	4.2	18.8	50.0	27.1	100.0
	아니오	빈도	14	45	188	194	90	531
		비율(%)	2.6	8.5	35.4	36.5	16.9	100.0
	가입 거 절	빈도	0	2	3	7	9	21
		비율(%)	0.0	9.5	14.3	33.3	42.9	100.0
계		비율(%)	2.3	8.2	33.3	37.5	18.7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자(n=600)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가능) 전체의 61.7%가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 그다음으로 적절한 판매 상품의 부재(39.0%), 펫보험을 신뢰할 수 없음(36.3%), 동물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음(17.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의 필요성,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동물병원 이용 확대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3-8〉 펫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원인(중복응답, %)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자(n=600)의 펫보험 가입 선호방식은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6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3-29>.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성이 높았고 40대, 50대, 60대에서도 50% 이상의 온라인 가입 선호도가 확인되었다.

펫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보험 설계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펫보험이 사람보험 대비 낮은 수수료로 인하여 판매 유인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펫보험료가 낮고, 가입 기간이 짧으며, 손해율이 일정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⁵¹⁾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펫보험에 대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강화 또는 다른 가입 채널

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의 필요성이 있다.

〈표 3-29〉 펫보험 가입 선호 방식

단위: 명, %

구분		온라인	상관없음	대면(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	전화가입(TM)	계	
전체		빈도	375	116	97	12	600
		비율(%)	62.5	19.3	16.2	2.0	100.0
연령	20대	빈도	75	10	19	2	106
		비율(%)	70.8	9.4	17.9	1.9	100.0
	30대	빈도	120	45	24	3	192
		비율(%)	62.5	23.4	12.5	1.6	100.0
	40대	빈도	108	32	33	3	176
		비율(%)	61.4	18.2	18.8	1.7	100.0
	50대	빈도	57	23	19	4	103
		비율(%)	55.3	22.3	18.4	3.9	100.0
	60대	빈도	15	6	2	0	23
		비율(%)	65.2	26.1	8.7	0.0	100.0
거주 지역	도시	빈도	341	97	88	12	538
		비율(%)	63.4	18.0	16.4	2.2	100.0
	농어촌	빈도	34	19	9	0	62
		비율(%)	54.8	30.6	14.5	0.0	100.0
반려 동물	개	빈도	263	74	79	10	426
		비율(%)	61.7	17.4	18.5	2.3	100.0
	고양이	빈도	157	52	31	2	242
		비율(%)	64.9	21.5	12.8	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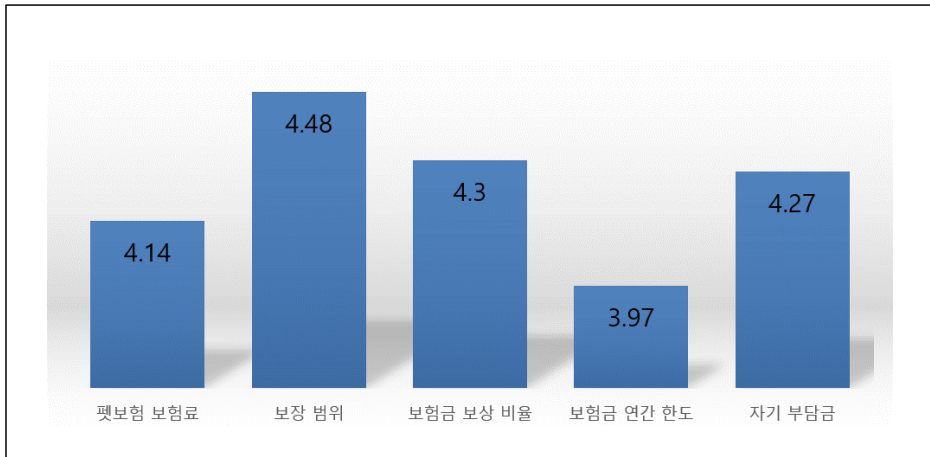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자가 펫보험 가입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상비율, 연간한도, 자기부담금 등에 대한 중요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낮은 펫보험 보험료(매월 4만 원, 5만 원, 8만 원 등)의 평균 점수는 4.14, 보장범위(통원비만 보장, 통원비와 입원비 보장, 통원비·입원비·수술비 보장 등)의 평균 점수는 4.48, 보험금 보상 비율(40%, 60%, 80% 등)의 평균 점수는

51) CEO스코데일리(2023. 5. 8.), “펫보험에 주목하는 정부·보험업계, ‘동물 등록제’ 변수 부상 이유는”.

4.30, 보험금 연간 한도(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등)의 평균 점수는 3.97, 자기부담금(1만 원, 2만 원, 3만 원)의 평균 점수는 4.27로 나타났다(그림 3-9).

〈그림 3-9〉 펫보험 가입에 있어 항목별 중요도(5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글상자 3-2〉 펫보험 관련 용어 설명

- 보험료 : 보험 가입자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매월 회사에 납부 하는 금액
- 보장범위 :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진료 서비스 범위(통원비, 입원비, 수술비)
- 보상비율 : 진료비용 발생 시 보험사가 지불하는 비율 (예: 40% 약정 시 보험사 40% 부담, 본인 60% 부담)
- 연간 한도 : 보험사가 연간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 (예: 연간 진료비 500만 원 약정, 500만 원 이상 발생 시 본인 부담)
- 자기부담금: 진료 비용 발생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 (예: 1만 원 약정 시, 1만 원 제외 보험사와 본인 비율에 따라 부담)

자료: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자의 펫보험에 대한 월평균 지불의사액을 주관식으로 질문하였다. 질문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현재 펫보험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 조건을 제시하였다.

〈글상자 3-3〉 펫보험 가입 약관

- 반려동물 20세까지 갱신 가능(만 10세까지 가입 가능), 총 보장한도 연간 1,000만 원, 자기부담금 2만 원, 진료비 70% 지급

자료: 저자 작성.

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는 평균 32,992원을 응답하였다(표 3-30). 다만, 중간값은 30,000원이고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5,000원에서 500,000원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3-3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펫보험료가 4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여 나이에 따라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불의사 가격과 시장 가격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3-30〉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펫보험 지불의사액

단위: 명, 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금액	표준편차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
펫보험 지불의사	600	32,992원	30,184.18	5,000원	30,000원	500,000원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4. 펫보험 관련 제도 및 필요성

펫보험 관련 제도에 대한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해 인지도(4점 척도) 및 필요성(5점 척도)을 조사하였다. 펫보험과 관련된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인배 외(2017), 권용수(2021), 김경선·강윤지(2023) 등에서 제기한 개선과제를 검토한 후 반려동물등록제, 진료표준화,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료기록부 공개 등 네 가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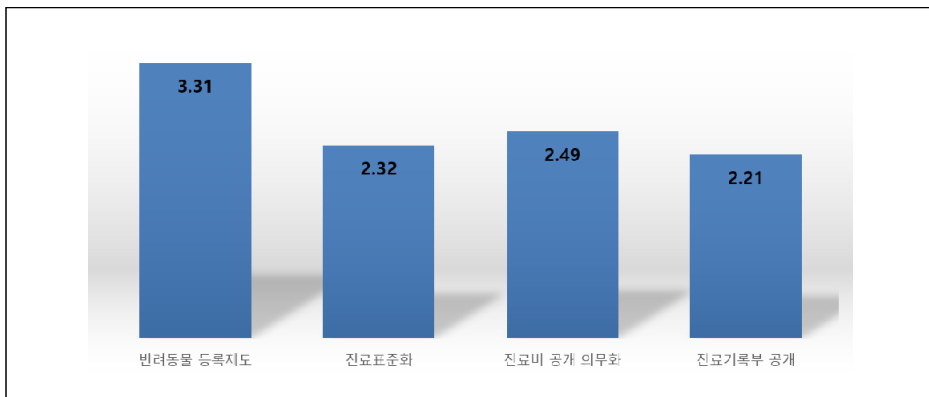
〈글상자 3-4〉 펫보험 관련 제도

-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우리나라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시행).
- 진료표준화란 진료 행위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표준코드 체계에 따라 질병명, 진료항목 내용, 진료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함.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진료항목에 대해 동물병원의 게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수의사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의 진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진료서류를 의미함. 우리나라는 '수의사법'에서 진료기록부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아 동물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기록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자료: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등록제도', '진료표준화',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료기록부 공개'에 대한 인지도를 4점 척도(오늘 처음 들어봤다, 명칭만 들어본 적 있다, 명칭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로 조사한 결과 각각 평균 3.31, 2.32, 2.49, 2.21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경우 현재 의무화가 시행되어 있고, 반려동물 양육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인지도를 보였지만, 다른 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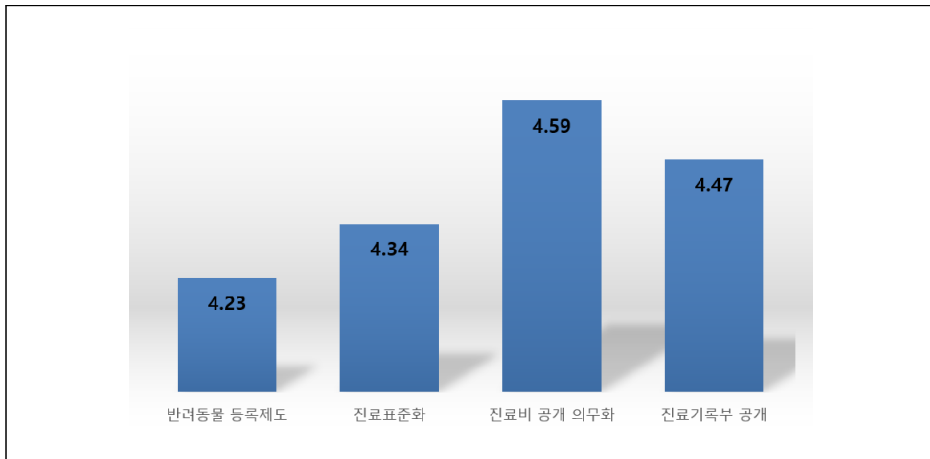
〈그림 3-10〉 펫보험 관련 제도 인지도(4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등록제도’, ‘진료표준화’,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료기록부 공개’에 대해 동물병원 이용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을 5점 척도(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로 조사한 결과 각각 평균 4.23, 4.34, 4.59, 4.47로 조사되었다. 펫보험 관련 제도 인지도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도에 인지도가 높은 것과 다르게 동물병원 이용 및 펫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투명성 및 진료기록부 공개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1〉 동물병원 이용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5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비 경감 및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저렴한 보험료에 대한 의견이 전체의 1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높은 진료비 문제(12.8%), 진료 표준화(10.8%), 없음(10.5%), 병원별로 진료비가 다름(8.2%), 펫보험 보장범위 확대(7.5%), 진료비 투명화(5.3%), 진료내역 공개(4.7%), 펫보험 활성화(3.3%) 등 다양한 응답이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 나이 제한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 과잉진료로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양이 양육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등이 나타났다.

3. 설문조사 분석

3.1. 반려동물 병원비 지출 결정 요인 분석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병원비 지출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반려동물 병원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을 하였다. 펫보험 가입 목적이 병원비 부담 완화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병원비 지출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병원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비 지출 자료는 다수의 양육 가구에서 지출액 없음(0)을 포함하는 중도 절단된(censored) 자료이므로 이를 고려한 헤크만의 2단계 선택모형(Heckman's two-step selection model)을 사용하였다(Heckman, 1979).⁵²⁾ 모형의 변수는 앞에서 제시한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양육 가구 주요 특성과 유의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헤크만의 2단계 선택모형(two-step selection model)은 1단계에서 동물병원비 지출 여부에 대한 선택 방정식(selection equation)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 동물병원 지출액에 대한 회귀방정식(regression equation)을 추정한다(이헌동·안병일, 2016).⁵³⁾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병원비 지출여부와 병원비 지출액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31). 먼저, 병원비 지출 여부(1단계)에 대한 추정 결과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양육 가구의 특성 중 성별, 학력, 도시 거주 여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 반려동물 등록 여부, 반려동물

⁵²⁾ 중도절단된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에는 헤크만 모형(Heckman model)과 토빗모형(Tobit model)을 사용할 수 있음. 토빗모형에 비해 헤크만 모형은 선택방정식과 회귀방정식에 대해 서로 다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이헌동·안병일, 2016; 김성우 외, 2021).

⁵³⁾ 추정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헌동·안병일(2016), 김성우 외(2021)를 참고 바람.

복지에 대한 인식, 가족 수 등은 병원비 지출을 할 확률과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⁵⁴⁾ 병원비 지출액(2단계)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 양육자가 여성일 경우,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이 높을수록, 반려동물의 나이가 많을수록 병원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양육 반려동물 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동물병원 지출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자의 학력, 도시거주 여부, 가구소득, 반려동물 등록 여부,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 반려동물 양육 수 등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 3-31〉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병원비 지출에 대한 헤크만 2단계 추정 결과

변수	1단계 추정(Probit) (병원비 지출 여부)			2단계 추정(OLS) (병원비 지출액)		
	계숫값	표준오차	p-value	계숫값	표준오차	p-value
양육자 성별	0.084	0.141	0.548	-9102.911**	4613.337	0.048
학력	0.161	0.122	0.185	5074.069	4245.517	0.232
도시 거주 여부	-0.255	0.216	0.237	1682.204	6919.980	0.808
가구소득	-	-	-	469.970	789.022	0.551
반려동물 관련 지출	6.87e-06***	1.06e-06	0.000	0.373***	0.021	0.000
반려동물 등록 여부	0.334**	0.134	0.012	5881.261	5053.568	0.245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0.109*	0.066	0.096	2282.726	2418.984	0.345
양육 반려동물 수	-0.121	0.083	0.144	-10982.680***	2378.877	0.000
지금까지 반려동물 양육 수	0.033	0.034	0.331	489.675	1046.339	0.640
반려동물 나이	-	-	-	2588.990***	475.850	0.000
가족 수	0.094*	0.053	0.076	-	-	-
상수항	-1.009*	0.520	0.052	-61237.970***	22667.060	0.007
Inverse Mills Ratio($\hat{\lambda}$)	-	-	-	35269.44**	15399.5	0.022
LR test	Wald $\chi^2 = 384.23$, Prob> $\chi^2 = 0.000$					
관측치 수	600			477		

주: *** p<0.01, ** p<0.05, * p<0.10. 숫자의 크기에 차이가 있어 분석 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수점 표기에 차이가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⁵⁴⁾ 헤크만 2단계 추정모형을 이용하기 위하여 병원비 지출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병원비 지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족 수를 고려하였다. 이는 설문조사 항목 중에 병원비 지출 여부 및 지출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Inverse Mills Ratio($\hat{\lambda}$) 값이 가장 적합하게 나타난 변수를 활용하였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구원 수가 많으면 가구원 중 한 명이 동물병원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물병원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비용 크기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병원비 지출 결정 요인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병원비 지출액이 높다고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도 병원비 지출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비 경감 정책이 고소득 양육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과거 및 현재 많은 수의 반려동물을 양육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물병원 지출액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소득, 학력, 과거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 등과 상관없이 노령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병원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반려동물 연령을 고려한 병원비 경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대한 반려동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전반적인 동물병원 방문에 대한 교육, 지원, 책임 강화와 저소득 가구에 대한 동물병원 이용 지원 정책이 반려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수의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펫보험 가입 의향 및 필요성 인식 요인 분석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의향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펫보험 가입 의향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양육 가구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의향 및 필요성은 설문조사에서 순서형 5점 척도로 각각 (전혀 없음, 없음, 보통, 있음, 매우 있음)과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으로 조사되었다.⁵⁵⁾ 종속변수가 순서화된 응답임을 고려하여 이러한 종속변수에 대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순서형 로짓

⁵⁵⁾ 펫보험 가입 의향 조사에서 펫보험 가입 응답자와 펫보험 가입하려고 했으나 가입 거절당한 응답자의 경우 매우 있음으로 처리함.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김상현 외, 2018; 최원실 외, 2020). 모형의 변수는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양육 가구 주요 특성과 유의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⁵⁶⁾

펫보험 가입 의향 및 필요성 분석을 위한 순서형 로짓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⁵⁷⁾

$$Y_{ki}^* = X_{ki}\beta_k + \epsilon_{ki}$$

$$Y_{ki} = 1, Y_{ki}^* \leq \delta_{k1} \quad \text{일 때 ('전혀 없음'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Y_{ki} = 2, \delta_{k1} < Y_{ki}^* \leq \delta_{k2} \quad \text{일 때 ('없음' 또는 '필요하지 않음')}$$

$$Y_{ki} = 3, \delta_{k2} < Y_{ki}^* \leq \delta_{k3} \quad \text{일 때 ('보통')}$$

$$Y_{ki} = 4, \delta_{k3} < Y_{ki}^* \leq \delta_{k4} \quad \text{일 때 ('있음' 또는 '필요함')}$$

$$Y_{ki} = 5, \delta_{k4} < Y_{ki}^* \quad \text{일 때 ('매우 있음' 또는 '매우 필요함')}$$

여기에서 $k=1$ 일 때, 펫보험 가입 의향을 의미하고, $k=2$ 일 때, 펫보험 필요성을 의미한다. X_{ki} 는 설명변수이고, 관측되지 않는 변수(latent variable) Y_{ki}^* 의 값에 따라 관측되는 Y_{ki} 값이 1 ('전혀 없음'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없음' 또는 '필요하지 않음'), 3 ('보통'), 4 ('있음' 또는 '필요함'), 5 ('매우 있음' 또는 '매우 필요함')으로 결정된다. $\delta_1, \delta_2, \delta_3, \delta_4$ 는 Y_{ki}^* 의 절사점(cutoff point)으로 관찰 가능한 응답에 대한 기준값이며, ϵ_{ki} 는 로짓분포를 가정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의향 및 필요성 인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32>. 먼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의향과 양의 관계에 있는 변수로는 응답자 성별(남성), 병원비 지출액, 반려동물 등록 여부, 반려동물 복지

⁵⁶⁾ 순서형 로짓 모형을 종속변수 값에 상관없이 설명변수의 영향력이 일정하다는 평행회귀선 가정(parallel regression or proportional odds assumption)으로 수식이 성립한다(이성우 외, 2008; 김상현 외, 2018). 따라서 이 가정을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하였다.

⁵⁷⁾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상현 외(2018), 이두영 외(2022)를 참고하기 바람.

에 대한 인식,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100만 원 이상 수술 경험 유무, 반려동물 응급진료 경험 유무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동물 연령은 펫보험 가입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의향 및 필요성 인식 분석

변수	펫보험 가입 의향		펫보험 가입 필요성	
	계수값	승산비 ⁵⁸⁾ (odds ratio)	계수값	승산비 (odds ratio)
응답자 성별	0.58*** (0.16)	1.79***	0.38** (0.17)	1.46
응답자 연령	-	-	0.02 (0.08)	1.02
주 양육자 학력	-0.18 (0.19)	0.83	-	-
도시 거주 여부	0.15 (0.25)	1.16	-	-
가구소득	-	-	-0.02 (0.03)	0.98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	-	-	4.33e-07 (8.98e-07)	1.00
병원비 지출액	3.59e-06** (1.65e-06)	1.00**	-2.84e-07 (1.96e-06)	1.00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	-	-	0.14 (0.12)	1.15
양육 반려동물 수	0.07 (0.09)	1.07	-0.01 (0.09)	0.99
반려동물 연령	-0.07*** (0.02)	0.94***	-0.03* (0.02)	0.97
지금까지 반려동물 양육 수	0.07 (0.09)	1.05	0.04 (0.04)	1.04
반려동물 등록 여부	0.36** (0.17)	1.43**	0.24 (0.17)	1.28
반려동물과의 친밀도	-	-	0.35*** (0.13)	1.42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0.55*** (0.09)	1.74***	0.56*** (0.09)	1.75
동물병원 방문 빈도	-0.09 (0.06)	0.91	-0.00 (0.06)	1.00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 100만 원 이상 수술 경험	0.37* (0.22)	1.45*	0.24 (0.22)	1.27
반려동물 응급진료 경험 유무	0.39** (0.18)	1.48**	0.04 (0.18)	1.04
반려동물 1박 이상 입원 경험 유무	-0.12 (0.19)	0.89	0.41** (0.19)	1.51
δ_1	-1.04		0.41	
δ_2	0.04		2.03	
δ_3	1.97		4.11	
δ_4	3.20		6.07	
Log-L	-820.41		-752.95	

(계속)

변수	펫보험 가입 의향		펫보험 가입 필요성	
	계숫값	승산비 ⁵⁹⁾ (odds ratio)	계숫값	승산비 (odds ratio)
χ^2 (모든 $\beta_i = 0$)	125.02***		101.62***	
평행회귀선 검정 χ^2 (39)	49.48		55.62	
Adjusted R-squared	0.07		0.06	
표본수(N)	600		600	

주: *** $p < 0.01$, ** $p < 0.05$, * $p < 0.10$. 숫자의 크기에 차이가 있어 분석 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수점 표기에 차이가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의향 한계효과 결과는 〈표 3-33〉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는 펫보험 가입 의향 분석의 추정 계숫값 및 승산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응답자 성별이 남성일 경우 가입 의향이 ‘전혀 없음’, ‘없음’, ‘보통’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4%p, 4%p, 5%p 감소하고, ‘있음’, ‘매우 있음’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3%p, 9%p 증가한다. 다음으로 병원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가입 의향이 ‘전혀 없음’, ‘없음’, ‘보통’을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음’, ‘매우 있음’을 선택할 확률은 증가한다. 각각의 한계 확률의 크기가 매우 작지만 병원비 지출액을 고려할 경우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도 ‘전혀 없음’, ‘없음’, ‘보통’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2%p, 2%p, 3%p 감소하고, ‘있음’, ‘매우 있음’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2%p, 6%p 증가한다. 그 외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반려동물 응급진료 경험이 있을 경우 펫보험 가입 의향이 ‘전혀 없음’, ‘없음’, ‘보통’을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음’, ‘매우 있음’을 선택할 확률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8) 승산비(odds ratio)는 변수값에 따라 사건의 발생 확률을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을 의미함(김상현 외, 2018). 승산비가 1 이상일 경우 변수에 따라 발생 확률이 높음을 의미함.

59) 승산비(odds ratio)는 변수값에 따라 사건의 발생 확률을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을 의미함(김상현 외, 2018). 승산비가 1 이상일 경우 변수에 따라 발생 확률이 높음을 의미함.

〈표 3-33〉 펫보험 가입 의향 한계효과 분석 결과

변수	Pr(Y= 1)	Pr(Y= 2)	Pr(Y= 3)	Pr(Y= 4)	Pr(Y= 5)
	전혀 없음	없음	보통	있음	매우 있음
응답자 성별	-0.04*** (0.01)	-0.04*** (0.01)	-0.05*** (0.01)	0.03*** (0.01)	0.09*** (0.03)
주 양육자 학력	0.01(0.01)	0.01(0.01)	0.01(0.01)	-0.01(0.01)	-0.03(0.02)
도시 거주 여부	-0.01(0.02)	-0.01(0.02)	-0.01(0.02)	0.01(0.01)	0.02(0.04)
병원비 지출액	-2.55e-07** (1.11e-07)	-2.63e-07** (1.14e-07)	-3.19e-07** (1.34e-07)	2.19e-07** (9.76e-08)	6.18e-07** (2.53e-07)
양육 반려동물 수	-0.005(0.006)	-0.005(0.006)	-0.006(0.007)	0.004(0.005)	0.011(0.013)
반려동물 연령	0.004*** (0.001)	0.004*** (0.001)	0.005*** (0.002)	-0.004*** (0.001)	-0.010*** (0.003)
지금까지 반려동물 양육 수	-0.003(0.003)	-0.003(0.003)	-0.004(0.003)	0.003(0.002)	0.008(0.006)
반려동물 등록 여부	-0.02** (0.01)	-0.02** (0.01)	-0.03** (0.01)	0.02** (0.01)	0.06** (0.03)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0.04*** (0.01)	-0.04*** (0.01)	-0.04*** (0.01)	0.03*** (0.01)	0.09*** (0.01)
동물병원 방문 빈도	0.01(0.004)	0.01(0.004)	0.01(0.005)	-0.01(0.003)	-0.01(0.009)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 100만 원 이상 수술 경험	-0.02* (0.01)	-0.02* (0.01)	-0.03* (0.02)	0.02* (0.01)	0.06* (0.03)
반려동물 응급진료 경험 유무	-0.03** (0.01)	-0.03** (0.01)	-0.03** (0.01)	0.02** (0.01)	0.06** (0.03)
반려동물 1박 이상 입원 경험 유무	0.01(0.01)	0.01(0.01)	0.01(0.02)	-0.01(0.01)	-0.02(0.03)

주: *** p<0.01, ** p<0.05, * p<0.10. 숫자의 크기에 차이가 있어 분석 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수점 표기에 차이가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필요성과 양의 관계에 있는 변수는 응답자 성별(남성), 반려동물과의 친밀도,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반려동물 1박 이상 입원 경험 유무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동물 연령은 펫보험 가입 필요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소득,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 병원비 지출액, 펫보험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동물병원 진료 경험이 있을 경우 펫

보험의 가입 필요성을 더욱 공감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동물병원 진료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도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 판매와 이와 동시에 반려동물 개체 식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의 펫보험 가입 의향과 유사하게 노령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가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입양 단계 및 나이 어린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 가구가 펫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펫보험 인지도가 높더라도 가입 필요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는 점은 펫보험 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펫보험 가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필요성 한계효과 결과는 <표 3-34>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는 펫보험 가입 필요성 분석의 추정 계숫값 및 승산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응답자 성별이 남성일 경우 가입 필요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1%p, 2%p, 5%p 감소하고, ‘필요함’, ‘매우 필요함’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3%p, 5%p 증가한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0.1%p, 0.2%p, 0.3%p 증가하고, ‘필요함’, ‘매우 필요함’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0.3%p, 0.5%p 감소한다. 다음으로 반려동물과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가입 필요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1%p, 2%p, 4%p 감소하고, ‘필요함’, ‘매우 필요함’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3%p, 5%p 증가한다. 그 외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반려동물 응급진료 경험이 있을 경우 펫보험 가입 의향이 ‘전혀 없음’, ‘없음’, ‘보통’을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고, ‘있음’, ‘매우 있음’을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펫보험 가입 필요성 한계효과 분석 결과

변수	Pr(Y= 1)	Pr(Y= 2)	Pr(Y= 3)	Pr(Y= 4)	Pr(Y=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응답자 성별	-0.01**(0.004)	-0.02**(0.011)	-0.05**(0.021)	0.03**(0.013)	0.05**(0.024)
응답자 연령	-0.0004(0.002)	-0.001(0.005)	-0.003(0.010)	0.001(0.006)	0.003(0.011)
주 양육자 학력	-	-	-	-	-
도시 거주 여부	-	-	-	-	-
가구소득	0.0004(0.001)	0.001(0.002)	0.003(0.004)	-0.001(0.002)	-0.003(0.004)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	-9.66e-09 (2.02e-08)	-2.80e-08 (5.82e-08)	-5.49e-08 (1.14e-07)	3.15e-08 (6.56e-08)	6.11e-08 (1.27e-07)
병원비 지출액	6.35e-09 (4.37e-08)	1.84e-08 (1.27e-07)	3.61e-08 (2.48e-07)	-2.07e-08 (1.42e-07)	-4.01e-08 (2.76e-07)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	-0.003(0.003)	-0.009(0.008)	-0.018(0.015)	0.010(0.009)	0.020(0.016)
양육 반려동물 수	0.003(0.002)	0.001(0.006)	0.002(0.012)	-0.001(0.007)	-0.002(0.013)
반려동물 연령	0.001*(0.0005)	0.002*(0.001)	0.004*(0.002)	-0.003*(0.001)	-0.005*(0.003)
지금까지 반려동물 양육 수	-0.001(0.001)	-0.003(0.003)	-0.005(0.005)	0.003(0.003)	0.006(0.005)
반려동물 등록 여부	-0.005(0.004)	-0.016(0.011)	-0.031(0.022)	0.018(0.013)	0.034(0.025)
반려동물과의 친밀도	-0.01**(0.004)	-0.02**(0.009)	-0.04*** (0.017)	0.03*** (0.010)	0.05*** (0.019)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0.01*** (0.004)	-0.04*** (0.007)	-0.07*** (0.011)	0.04*** (0.007)	0.08*** (0.013)
동물병원 방문 빈도	0.0009(0.001)	0.0003(0.004)	0.0006(0.007)	-0.0003(0.004)	-0.0006(0.008)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 100만 원 이상 수술 경험	-0.01(0.01)	-0.02(0.01)	-0.03(0.03)	0.02(0.02)	0.03(0.03)
반려동물 응급진료 경험 유무	-0.001(0.004)	-0.002(0.012)	-0.005(0.023)	0.003(0.013)	0.005(0.026)
반려동물 1박 이상 입원 경험 유무	-0.01*(0.005)	-0.03**(0.013)	-0.05**(0.024)	0.03**(0.014)	0.06**(0.027)

주: *** p<0.01, ** p<0.05, * p<0.10. 숫자의 크기에 차이가 있어 분석 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수점 표기에 차이가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펫보험 가입 의향 및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⁶⁰⁾ 먼저, 동물병원에 대한 지출액이 높거나 고액의 수술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를 위한 펫보험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고액의 수술 경험 또는 동물병원에서 입원한 경험이 있더라도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면책조항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품은 반려동물 양육자가 추후 또 다른 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펫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가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어린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펫보험 홍보 활동의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펫샵, 동물병원 등에서 간단한 손해보험판매 허용을 입양 단계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3.3. 펫보험 지불의사금액 추정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양육 가구의 특성과 지불의사금액 간 연관성과 펫보험 지불 의향에 있어서 양육 가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격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펫보험이 현재 시장에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60) 펫보험 가입 의향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완벽히 동일하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평행회귀선 가정과 모형 설정의 차이가 있고, 가입 의향과 필요성에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펫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으나 경제적 요인, 적절한 상품의 부재 등에 의해 가입 의향은 낮을 수 있다.

라 반려동물 양육자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1% 미만)을 고려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펫보험 가입자의 지불의사금액은 설문조사에서 이중양분선택법으로 조사되었다. 펫보험에 대한 이중양분선택법은 처음 제시금액의 응답에 따라 ‘예’라고 응답할 경우 처음 금액의 2배를 제시하고, ‘아니오’라고 응답할 경우 처음 금액의 1/2을 제시하여 지불할 의사를 조사하는 방식이다(김재홍, 2006). 이 방식은 미리 설정된 제시금액을 한 번 문의하는 단일양분선택법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Henemann et al., 1991).

월평균 지불의향 제시금액은 1차례 예비조사와 우리나라 펫보험 가격을 고려하여 1만 원부터 8만 원까지 1만 원 가격으로 8개를 600명에 대해 균등하게 75번씩 임의(random)로 제시하였다(표 3-35). 분석을 위하여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사용하였다. 지불의사 질문에 대한 응답자(i)의 1차와 2차 내재 지불의사 금액을 ω_{1i}^* , ω_{2i}^* 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변량 정규분포모형은 다음과 같다(김재홍, 2006).

$$\begin{aligned}\omega_{1i}^* &= X_{1i}B_1 + \epsilon_{1i} \\ \omega_{2i}^* &= X_{2i}B_2 + \epsilon_{2i}\end{aligned}$$

ϵ_{1i} , ϵ_{2i} 는 오차항을 의미하며, 이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X 는 설명변수를 의미하고, B 는 회귀계수 벡터를 의미한다.⁶¹⁾ 추가적으로 모형의 변수는 앞에서 제시한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주요 특성과 유의수준을 고려하였다.

61)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재홍(2006)과 Jeanty(2007)를 참고하기 바람.

〈표 3-35〉 지불의향 제시금액

구분	첫 번째 제시금액	두 번째 제시금액		개수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 '예'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 '아니오'	
1유형	10,000원	5,000원	20,000원	75
2유형	20,000원	10,000원	40,000원	75
3유형	30,000원	15,000원	60,000원	75
4유형	40,000원	20,000원	80,000원	75
5유형	50,000원	25,000원	100,000원	75
6유형	60,000원	30,000원	120,000원	75
7유형	70,000원	35,000원	140,000원	75
8유형	80,000원	40,000원	160,000원	75
합계	-	-	-	6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지불의사액 모형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36).⁶²⁾ 펫보험 월평균 지불의사액에 대해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 반려동물과의 친밀도, 넓은 보장 범위 중요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고, 제시금액, 낮은 자기부담금 중요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 연령, 성별, 가구소득, 병원비 지출액, 반려동물 등록 여부, 낮은 보험료 중요도, 높은 보험금 보상 비율 중요도, 높은 보험금 연간 한도 중요도 등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62) 본 연구는 첫 번째 응답자와 두 번째 응답자가 동일하므로 응답의 계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정함. 이를 통해 하나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음.

〈표 3-36〉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펫보험 지불의사액 모형 추정결과

변수	계숫값	표준오차
절편	0.09283	0.43396
응답자 연령	-0.05991	0.04206
응답자 성별	0.05056	0.08942
가구소득	-0.00489	0.01603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	1.48e-06***	4.65e-07
병원비 지출액	2.85e-07	1.13e-06
지금까지 반려동물 양육 수	0.00211	0.02030
반려동물과의 친밀도	0.31458***	0.07036
반려동물 등록 여부	0.12747	0.08563
반려동물 나이	-0.00714	0.00994
제시금액	-0.00003***	1.95e-06
낮은 보험료 중요도	-0.07432	0.05719
넓은 보장 범위 중요도	0.13509*	0.07384
높은 보험금 보상 비율 중요도	-0.10265	0.07863
높은 보험금 연간 한도 중요도	0.08141	0.05602
낮은 자기부담금 중요도	-0.11690*	0.06450
ρ	0.14274	0.10845
Log-L	-665.41193	
표본수	600	

주: *** p<0.01, ** p<0.05, * p<0.10. 숫자의 크기에 차이가 있어 분석 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수점 표기에 차이가 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지불의사액은 47,566 원/월으로 추정되었으며, 95% 신뢰구간은 43,405원/월에서 51,868원/월으로 나타났다<표 3-37>.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2015)은 조건부가치측정법 활용 시 추정된 지불의사액에 대해 가중치를 고려한 표본조정 지불의사액을 제시하였다(장진영 외, 2017). 이를 고려하여 펫보험에 대한 지불 거부 응답자를 감안한 표본조정 지불의사액은 45,822원/월으로 추정된다.

〈표 3-37〉 반려동물 양육자의 펫보험 월평균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단위: 원

구분	지불의사액	95% 신뢰구간	지불의사액(표본조정)
지불의사액	47,565.99	[43,405.33~51,868.39]	45,821.90

주: 지불의사액(표본조정)은 지불거부 응답자 수를 고려한 값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펫보험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지불의사가 반려동물 가구 특성 중 가구소득 수준보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 반려동물과의 친밀도 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높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높은 펫보험 지불의사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반려동물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지불의사금액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펫보험료는 반려동물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경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펫보험 가격 설정이 반려동물이 노령화될수록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험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불 의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으로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이 확인되었다. 상품의 속성에 따라 양육 가구의 차별적인 선호가 있음을 시사한다. 펫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선호를 고려한 일부 속성에 특화된 상품이 개발 및 판매될 필요가 있다.

4. 시사점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자의 펫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 6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및 펫보험 가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자의 반려동물 관련

지출의 평균값은 높은 수준이지만, 다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및 동물병원비 지출액은 이보다 낮아 평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펫보험 관련하여 인지도와 가입 의향은 높게 조사되었으나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보험료에 대한 납부 부담’, ‘적절한 판매 상품 부재’, ‘펫보험을 신뢰할 수 없음’, ‘동물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음’ 등이 조사되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 방문 빈도를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비 지출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동물병원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소득이 동물병원비 지출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도 병원비 지출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령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병원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어 반려동물의 연령을 고려한 병원비 경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펫보험 가입 의향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양육 가구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의향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먼저, 펫보험 가입 의향 분석 결과 동물병원에 대한 지출액이 높거나 고액의 수술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일수록 가입 의향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한 펫보험 상품 개발의 필요성 있고, 반려동물 연령이 낮을수록 가입 의향이 높으므로 어린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펫보험 홍보 활동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펫보험 가입 필요성 분석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동물병원 진료 경험이 있을 경우 펫보험의 가입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동물병원 진료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도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판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펫보험 인지도가 높더라도 가입 필요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는 점은 펫보험 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펫보험 가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지불의사 금액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펫보험 지불의사금액(WT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지불의사는 4만 7,566원/월(표본 조정 시 4만 5,322원/월)으로 추정되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높은 경제적 능력이 높은 펫보험 지불의사 금액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반려동물이 노령화될수록 펫보험의 가격 상승이 펫보험 가입 탈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수준보다 낮은 가격의 펫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품의 속성에 따라 양육 가구의 차별적인 선호가 있어 다양한 선호를 고려한 특화된 상품 개발 및 판매의 필요성이 있다.

4

해외 펫보험 사례

1. 국내외 펫보험 산업 개황

반려동물 산업은 입양·사료·진료 등 연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필요로 하는 선진국형 산업으로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⁶³⁾ 시장 전망업체인 Global Market Insight에 따르면 전 세계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372,041백만 달러에서 2032년 776,185백만 달러로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Global Market Insights, 2022). 이 중 펫헬스케어는 181,173백만 달러에서 388,632백만 달러로 연평균 7.9% 성장이 전망된다. 이는 2022년 전체의 48.7%이고, 2023년 전체의 50.1%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에서 펫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시사한다. 수의산업은 동기간 92,615백만 달러에서 177,144백만 달러로 연평균 6.7% 성장이 기대되고, 펫보험은 9,686백만 달러에서 45,379백만 달러로 연평균 16.7% 성장이 전망된다.

Global Market Insight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를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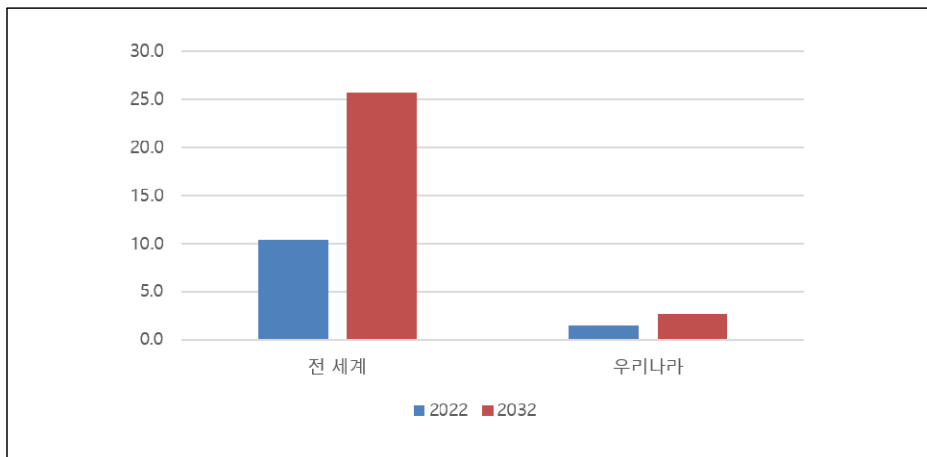
⁶³⁾ 관계부처 합동(202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 제시된 자료를 참고함.

6,136백만 달러에서 2032년 15,241백만 달러로 연평균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중 펫헬스 케어는 1,959백만 달러에서 5,764백만 달러로 연평균 1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의산업은 동기간 1,490백만 달러에서 3,930백만 달러로 연평균 10.2% 성장이 전망되고, 펫보험은 23백만 달러에서 107백만 달러로 연평균 1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펫보험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펫보험 산업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수의서비스 산업 대비 1.5%로 전 세계 펫보험 산업의 수의서비스 산업 대비 비중이 10.5%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또한 2023년 전망 또한 우리나라 펫보험 산업이 수의서비스 산업 대비 비중이 2.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 세계 펫보험 산업의 수의서비스 산업 대비 비중이 25.7%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크게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 펫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반려동물 및 펫보험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장한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의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그림 4-1〉 전 세계 및 국내 수의 서비스 산업 대비 펫보험 산업 규모 비중(%)

단위: %



자료: Global Market Insights(2022).

2. 미국

2.1. 반려동물 인구 및 양육현황

미국은 반려동물 개체 수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이다. 미국 수의사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에 따르면 미국의 반려견 수는 2016년 7,681만 마리에서 2020년 8,374만~8,885만 마리로 증가하였다(AVMA, 2022).⁶⁴⁾ 반려견 보유 가구 비중은 38%에서 45%로 증가하여 미국 전체 1억 2,800만 가구 중 6,200만 가구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반려묘 수는 5,839만 마리에서 6,022만~6,191만 마리로 증가하였다. 반려묘 보유 가구 비중은 25%에서 26%로 증가하여 미국 전체 가구 중 3,700만 가구로 추정된다.

〈표 4-1〉 미국 반려동물 개체 수

단위: 마리, 마리/가구, %

구분	항목	2016	2020
반려견	반려동물 수	76,811,305	83,739,829~88,853,254
	가구당 보유 수	1.6	1.46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중	38%	45%
반려묘	반려동물 수	58,385,725	60,217,861~61,910,686
	가구당 보유 수	1.8	1.78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중	25%	26%

자료: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2022), “2022 AVMA Pet Ownership & Demographics Sourcebook”. 검색일: 2023. 12. 2.

64) 미국 수의사회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양육현황, 소비현황, 동물병원 이용 현황 등을 포함하는 AVMA 애완동물 양육 및 인구통계 자료집(Pet Ownership & Demographics Sourcebook)을 발간함(미국 수의사협회(<https://www.avma.org/news/new-report-takes-deep-dive-pet-ownership>), 검색일: 2023. 12. 2.).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내용과 유사함.

미국 수의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에서도 주기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반려견 양육 가구 수는 2022년 6,900만 가구, 반려묘 양육 가구 수는 4,530만 가구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반려견 450만 가구, 반려묘 168만 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표 4-2〉 미국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

단위: 백만 가구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반려견	46.3	56.7	54.4	60.2	63.4	69.0
반려묘	38.9	45.3	42.9	47.1	42.7	45.3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https://www.iii.org/fact-statistic/facts-statistics-pet-ownership-and-insurance>),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s National Pet Owners Survey(2011-2012, 2013-2014, 2016-2016, 2017-2018, 2019-2020, 2021-2022), 검색일: 2023. 12. 2.

2020년 기준 미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연평균 양육비는 〈표 4-3〉에 제시되었다. 반려견 보유가구가 연 912달러, 반려묘 보유가구가 연 653달러, 반려견·묘 보유가구가 연 807달러로 나타났다(AVMA, 2022). 구체적으로 반려견 보유 가구의 사료 및 간식 비용이 339달러/연, 수의사 진료비가 367달러/연, 장난감이 79달러/연, 미용이 99달러/연, 그 외가 28달러/연으로 조사되었다. 반려묘 보유 가구의 사료 및 간식 비용은 310달러/연, 수의사 진료비가 253달러/연, 장난감 50달러/연, 미용 18달러/연, 그 외가 22달러/연으로 조사되었고, 반려견·묘 보유 가구의 사료 및 간식 비용은 321달러/연, 수의사 진료비가 311달러/연, 장난감 83달러/연, 미용 64달러/연, 그 외가 28달러/연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연평균 지출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⁶⁵⁾

⁶⁵⁾ 참고로 우리나라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1마리당 양육비용은 월 17.60만 원, 반려묘는 14.87만 원으로 나타난다. 평균 반려견 양육 마릿수가 1.16마리, 반려묘가

〈표 4-3〉 주요 항목별 연간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

단위: 달러/연

지출항목	반려견 보유 가구	반려묘 보유 가구	반려견묘 보유 가구
사료 및 간식(Food)	339	310	321
수의사 진료비(Veterinary care)	367	253	311
장난감(Toys)	79	50	83
미용(Grooming)	99	18	64
그 외(Other)	28	22	28
합계	912	653	807

자료: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2022), "2022 AVMA Pet Ownership & Demographics Sourcebook". 검색일: 2023. 12. 2.

다만, Forbes Advisor(2023)의 수의사 방문 비용 분석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평균 치료 비용은 질환 유형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또한 양육 가구의 병원비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동일 질환에 대하여 반려견 진료비용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심장질환, 치아질환, 방광염에 대해서는 반려묘 진료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1.42마리임을 고려하였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동물병원 평균비 자료가 있는 2021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월평균 양육비는 16.3만 원(마리당 12.35만 원), 월평균 병원비는 5.5만 원(마리당 4.25만 원)이다. 다만, 리서치 기관인 Statista에 따르면 2019년 국민 1인당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연평균 162달러, 우리나라는 31달러, 일본은 42달러, 영국은 93달러로 차이가 있다(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15339/pet-care-spending-per-capita-worldwide/>), 검색일: 2023. 12. 3.).

〈표 4-4〉 반려동물 질환 유형별 평균 진료비용

단위: 달러

질환 유형	반려견	반려묘
종양	4,100	3,800
이물질 섭취로 인한 질환	3,500	3,400
당뇨	2,700	1,900
골절	2,700	2,300
심장 질환	1,200	1,400
관절염	700	500
치아 질환	600	800
방광염	400	1,100
안과 질환	300	260
고양이 신장 질환	-	1,300

자료: Forbes Advisor(2023. 3. 29), "How Much Does A Vet Visit Cost?".

2.2.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미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금액은 지난 기간 꾸준히 증가하였다(지인배, 2019).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APPA)에 따르면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금액 규모는 2018년 905억 달러에서 2022년 1,36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4-5〉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지출 금액 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출액	90.5	97.1	108.9	123.6	136.8

자료: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https://www.americanpetproducts.org>), 검색일: 2023. 12. 3.

미국의 2022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전체 1,368억이며 항목별 규모는 펫푸드, 간식이 581억,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업이 315억, 수의업이 359억, 기타 서비스가 114억으로 추정된다(표 4-6). 미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연평균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6〉 미국 반려동물 연관산업 항목별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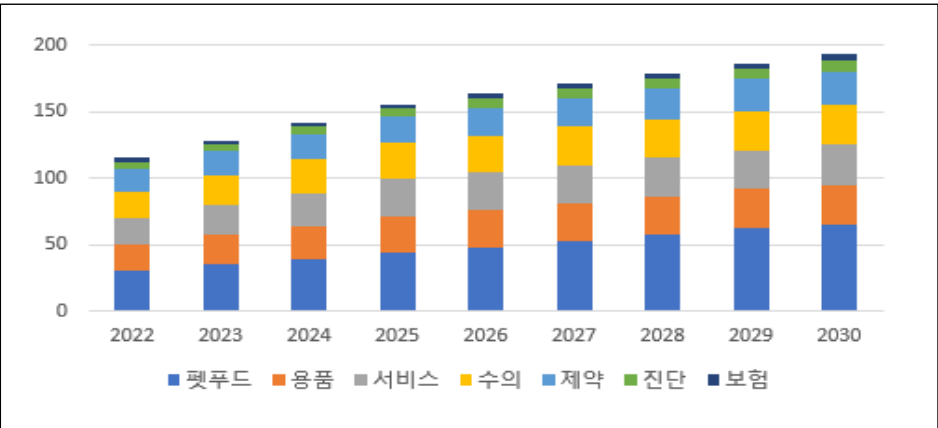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전망)	성장률(%)
펫푸드, 간식	58.1	62.7	7.9
반려동물 및 용품 소매업	31.5	32.1	1.9
수의업	35.9	37.0	3.1
기타 서비스	11.4	11.8	3.5
합계	136.8	143.6	5.0

자료: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https://www.americanpetproducts.org>), 검색일: 2023. 12. 3.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2023년 미국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1,400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여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국가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⁶⁶⁾

〈그림 4-2〉 미국 반려동물 산업 규모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loomberg(2023. 3. 23.), “Global Pet Industry To Grow To \$500 Billion By 2030, Bloomberg Intelligence Report Finds”.

⁶⁶⁾ Bloomberg(2023. 3. 23.), “Global Pet Industry To Grow To \$500 Billion By 2030, Bloomberg Intelligence Report Finds”.

2.3. 펫보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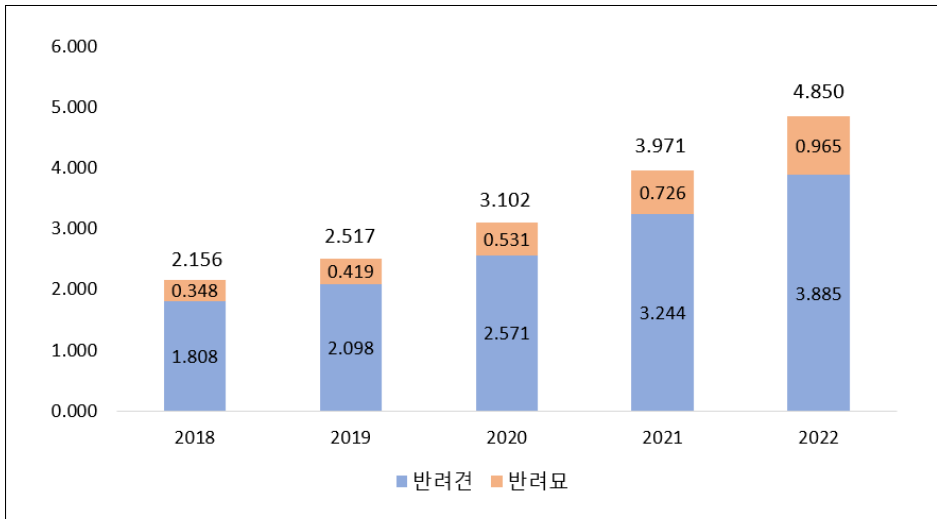
미국은 반려견을 대상으로 Veterinary Pet Insurance(VPI) 회사가 1982년 처음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미국 보험감독자협회(NAIC), 2019). 2007년 북미반려동물 보험사협회(NAPHIA)가 미국과 캐나다의 애완동물 보험 산업을 위한 성장, 자료 수집,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해 설립되었다(지인배, 2019).

미국의 펫보험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성장하였으며, 동기간 보험료 역시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미국에서 펫보험에 가입된 반려동물 수 비중은 전체 반려견의 4~5%, 전체 반려묘의 경우 1~2%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중 반려견의 보험 가입 비중이 80.1%, 반려묘의 가입 비중이 19.9%를 차지한다.

미국 내 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 수(반려견+반려묘)는 전년 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22.5%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반려견 수는 2018년 1.808(백만 마리)에서 2022년 3.885(백만 마리)로 2.1배 증가하였으며, 반려묘 수는 동기간 0.348(백만 마리)에서 0.965(백만 마리)로 2.8배 증가하였다.

〈그림 4-3〉 보험에 가입된 반려동물 수

단위: 백만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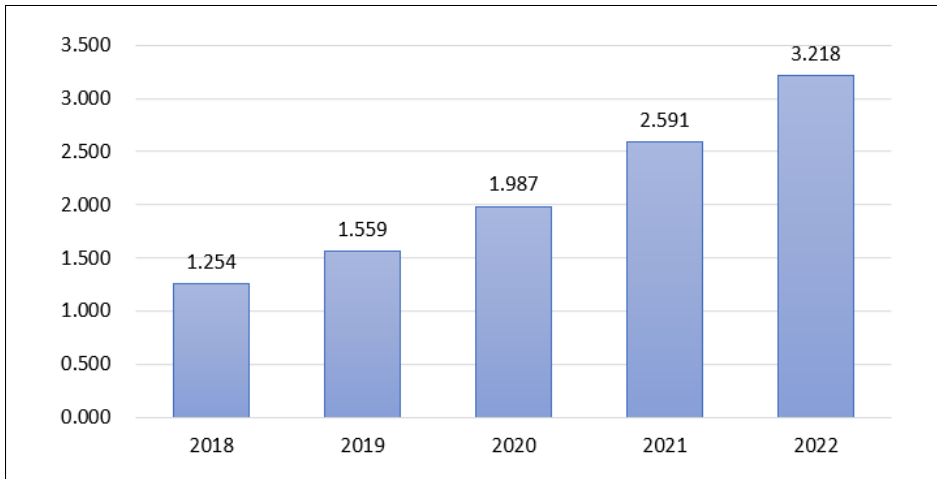


자료: 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NAPHIA)(<https://naphia.org/industry-data/section-2-total-pets-insured/>),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2023, 검색일: 2023. 12. 3.

펫보험에 가입된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총 보험료 규모 역시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미국의 총 보험료 규모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4.2% 증가한 약 3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2022년 말 기준 보험료가 288억 원 수준인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그림 4-4〉 미국 펫보험 시장 규모 가입된 반려동물 수

단위: 십억 달러



자료: 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NAPHIA)(<https://naphia.org/industry-data/section-2-total-pets-insured/>),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2023, 검색일: 2023. 12. 3.

미국의 반려견 보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2.3%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25.8%를 기록하고 있다. 반려견 보험 시장규모는 2018년 약 11억 달러에서 2022년 약 28억 달러로 2.5배 증가하였으며, 반려묘 보험 시장규모는 동기간 1.3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3.1배 증가하였다.

〈표 4-7〉 미국 펫보험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반려견	1.118	1.390	1.770	2.291	2.801
반려묘	0.136	0.169	0.217	0.300	0.417
합계	1.254	1.559	1.987	2.591	3.218

자료: 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NAPHIA)(<https://naphia.org/industry-data/section-1-gross-written-premium/>),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2023, 검색일: 2023. 12. 3.

미국의 연평균 보험료 역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펫보험 보장 범위가 사고, 질환 및 웰니스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연평균 반려견 보험료는 2022년 기준 1,134달러로, 이는 2018년과 비교하여 1.4배 증가한 수치이다.⁶⁷⁾ 동일한 보장 범위의 반려묘 보험료는 2022년 기준 613.7달러로 반려견 보험료의 54.1% 수준이나, 반려묘 보험료 역시 2018년과 비교하여 1.4배 증가하였다.

〈표 4-8〉 보장범위별 연평균 보험료

단위: 달러

보장 범위	반려동물 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
사고, 질환 및 웰니스 모두 포함	반려견	811.9	969.7	991.6	1051.3	1134.3
	반려묘	451.5	531.7	542.5	559.1	613.7
사고 및 질환 포함	반려견	560.1	594.6	612.7	625.2	640.0
	반려묘	359.6	365.9	366.7	369.6	387.0
사고만 포함	반려견	158.4	169.3	184.5	192.4	200.6
	반려묘	115.9	117.2	121.4	121.0	122.2

주 1)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가중평균한 값임.

2) 2021년과 2022년에 가중평균 계산을 위해 사용된 표본 데이터 구성이 2018~2020년 표본과 다름. (2021년 3개 회사 추가, 2022년 1개 회사 추가)

자료: 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NAPHIA)(<https://naphia.org/industry-data/section-2-total-pets-insured/>),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2023, 검색일: 2023. 12. 3.

Forbes Advisor(2023)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5,000달러 한도 내 250달러 자기 부담, 80% 지급을 보장하는 펫보험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월평균 44달러, 반려묘의 경우 월평균 월 30달러로 확인되었다.

⁶⁷⁾ 사고(accident)는 이물질 섭취, 열상, 자동차 사고, 인대 파열, 중독 등을 의미함. 사고 및 질환(accident & illness)은 사고 해택과 암, 감염, 소화기 문제 등의 질병을 의미함. 웰니스(Wellness)는 예방접종, 조기건강검진, 올바른 영양섭취를 위한 상담, 치아 관리 등이 포함되는 종합 플랜을 의미함(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NAPHIA)(<https://naphia.org/industry-data/about-this-data/>), 검색일: 2023. 12. 3).

〈표 4-9〉 반려동물 유형별 월평균 보험 비용

단위: 달러/월

반려동물 유형	연간 5,000달러 한도, 250달러 자부담, 80% 지급 시	무제한 한도, 500달러 자부담, 90% 지급 시
반려견 강아지 (3개월가량)	44	57
반려견 (2살 이상)	44	56
반려묘	30	47

자료: Forbes Advisor(2023. 3. 29.), “How Much Does A Vet Visit Cost?”.

반려견 월평균 보험료를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반려견 강아지의 보험료는 33~64달러 사이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나, 2살이 넘어가는 경우 해당 편차가 40~51달러 사이로 줄어든다. 다만, 우리나라 자기부담금이 1~3만 원 수준인 것에 비해 트루패니언(Truepanion)의 경우 0~\$1,000로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표 4-10〉 보험사별 반려견 월평균 보험료

단위: 달러/월

보험회사	반려견 강아지	반려견
Pets Best	33	40
MetLife	32	41
Lemonade	27	42
ASPCA	39	43
Figo	36	44
Spot	39	45
Pumpkin	64	49
Embrace	50	50
Fetch by the Dodo	39	51

주: 자기부담금 \$250, 환급 수준 80%의 보험에 대해 PetInsurer.com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펫 보험 비용에 대한 Forbes Advisor 분석.

자료: Forbes Advisor(2023. 3. 29.), “How Much Does A Vet Visit Cost?”.

〈글상자 4-1〉 미국 펫보험 보상 예시

총 청구액(Total Veterinary Bill):	\$269.74	
환급 요약(Reimbursement Summary):		
처치(Treatments)	보장 서비스	비보장 서비스
진단 및 치료(Diagnostics and Treatments)	\$115.00	
• 장내 기생충 검사(실험실 작업) • SQ 수액(피부 아래에 투여되는 수액)		
처방약(Prescription Medicines)	\$97.20	
• 메트로니다졸, 항생제 및 구충제의 RX • Kaopectate(비스무트 차살리실산염)의 RX		
통조림 블랜드 다이어트(Canned Bland Diet)		\$6.54
진료소 방문(진찰, Office Visit: Veterinary Exam)		\$54.00
총계(Total Covered):	\$212.20	
환급 수준(90%, Reimbursement Level):	\$190.98	
자기부담금(deductible):	\$100	
환급액(Your Reimbursement):	\$90.98	

자료: healtypaws(<https://www.healthypawspetinsurance.com/claim-examples>), 검색일: 2023. 1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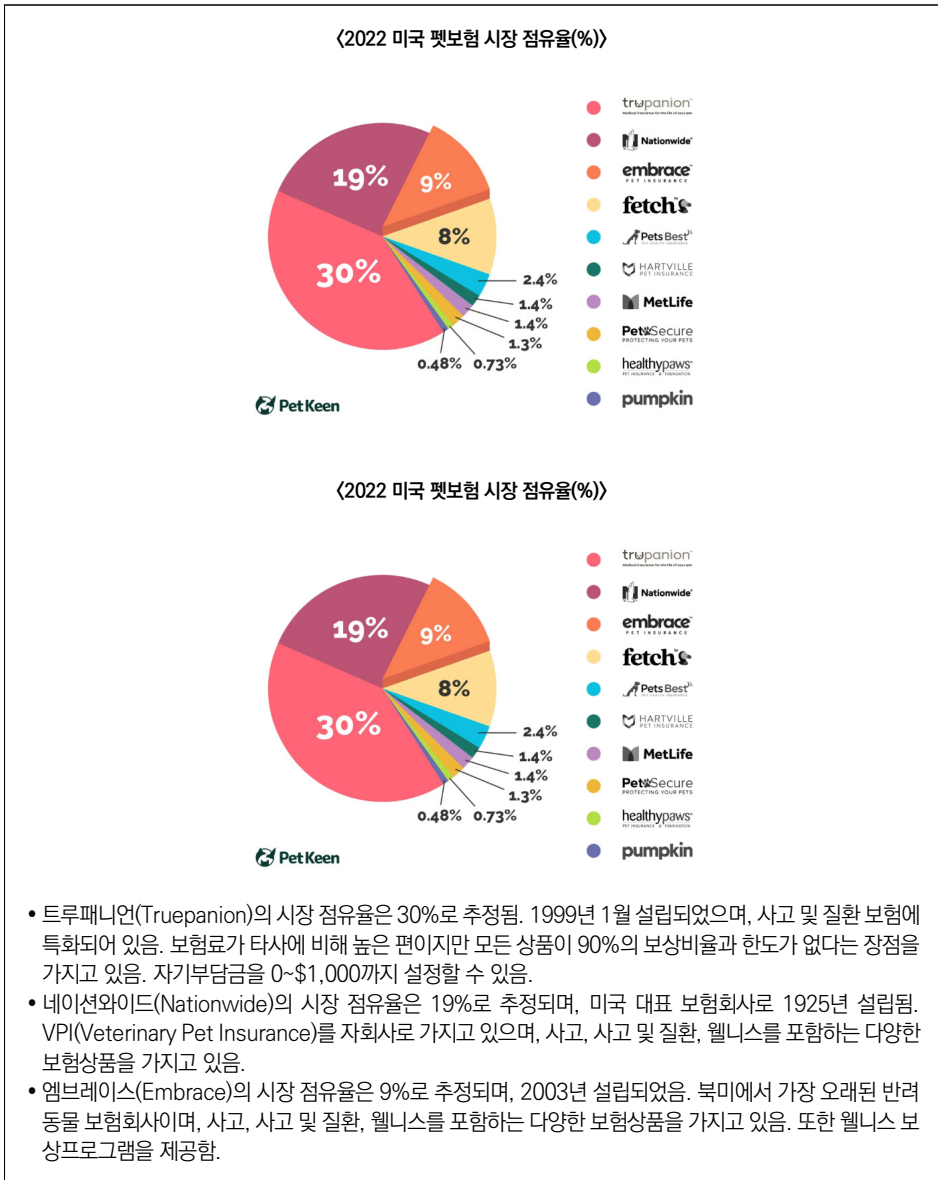
〈글상자 4-2〉 트루패니언(Truepanion) 경영실적



자료: Google(<https://www.google.com/>), 검색일: 2023. 12. 4.

⁶⁸⁾ MarketBeat(2023. 6. 28.), “Down Over 80%, is Pet Insurer Trupanion Worth the Risk Premium?”.

〈글상자 4-3〉 미국 주요 펫보험사



자료: Petkeen(<https://petkeen.com/pet-insurance-market-share-by-brand/>), 검색일: 2023. 12. 3.

2.4. 주요 제도 현황

2.4.1. 동물등록제

미국은 동물등록제와 라이선스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주마다 규정이 다르고 개와 고양이에 대한 적용도 다르다.⁶⁹⁾ 일반적으로 개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지만 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뉴욕은 1894년부터 개에 대해서 라이선스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중성화 수술한 개에 대해 8.50달러/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34달러/연을 부과하고 있다.

2.4.2. 진료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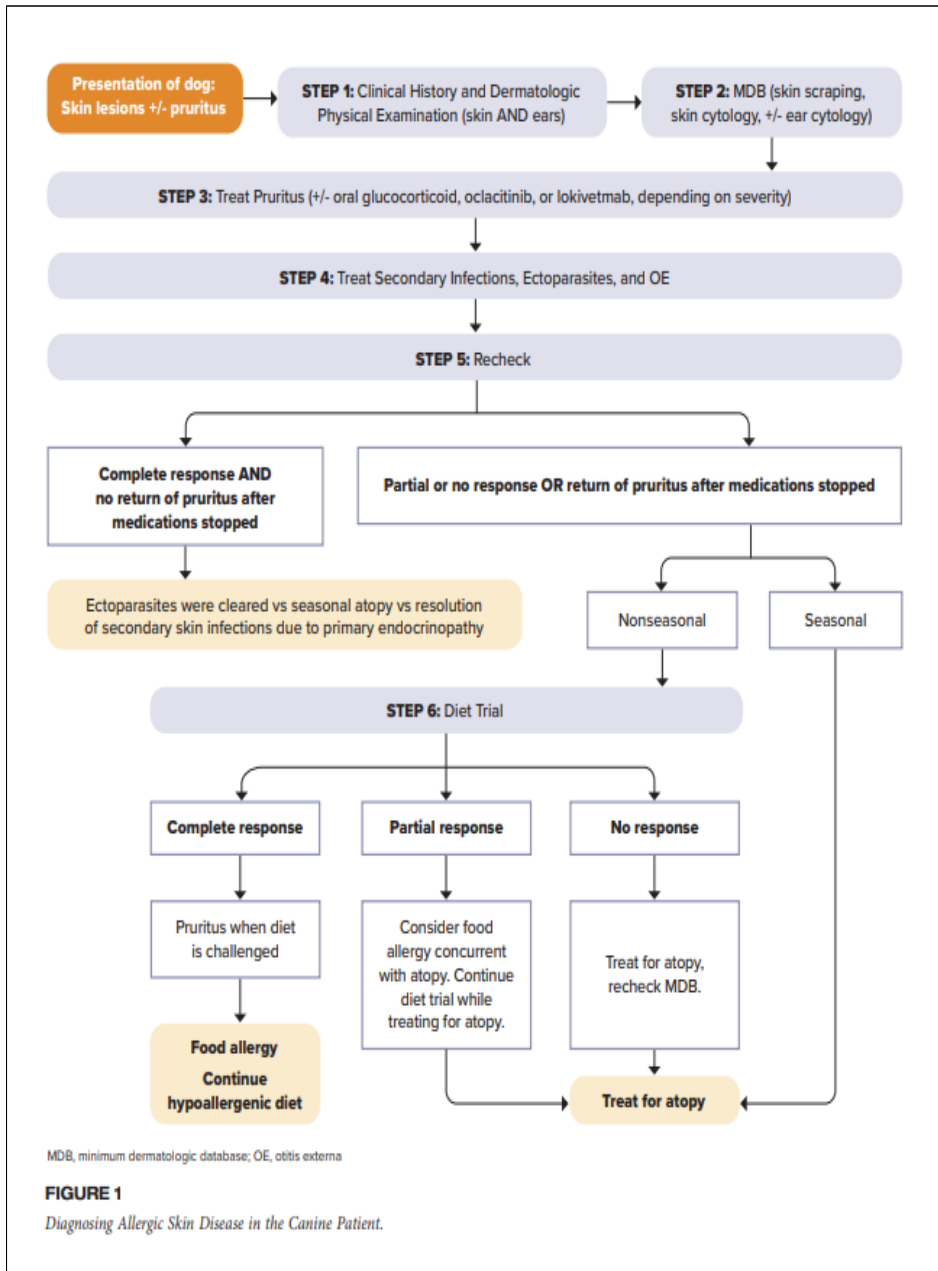
미국 동물병원협회(AAHA)의 가이드라인(AAHA Guidelines)은 수의학 전문가들이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자 활용, 반려동물에 대한 임상 진단 및 치료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한다.⁷⁰⁾ 미국의 동물병원 대다수는 보호자와의 소송에서 가이드라인 준수가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⁷¹⁾

⁶⁹⁾ 미국 주별 라이선스 비용(<https://spoilt pups.com/dog-license-requirements-by-state/>), 검색일: 2023. 6. 22.

⁷⁰⁾ 미국 동물병원협회(<https://www.aaha.org/aaha-guidelines/2023-aaha-management-of-allergic-skin-diseases-in-dogs-and-cats-guidelines/home/>), 검색일: 2023. 12. 3.

⁷¹⁾ 데일리벳(2023. 5. 26.),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어디까지 왔나”.

〈그림 4-5〉 미국 동물병원협회 가이드라인(개의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진단)



자료: AAHA 홈페이지(<https://www.aaha.org/globalassets/02-guidelines/2023-aaha-management-of-allergic-skin-diseases-in-dogs-and-cats-guidelines/resources/2023-aaha-management-of-allergic-skin-diseases-guidelines-new.pdf>), 검색일: 2023. 12. 3.

〈그림 4-6〉 미국 동물병원협회 가이드라인(개의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진단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AAHA 홈페이지(<https://www.aaha.org/globalassets/02-guidelines/2023-aaha-management-of-allergic-skin-diseases-in-dogs-and-cats-guidelines/resources/2023-aaha-management-of-allergic-skin-diseases-guidelines-new.pdf>), 검색일: 2023. 12. 3.

2.4.3. 진료비 공개

미국에서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 또한, 표준수가제 또한 운영되고 있지 않다.⁷²⁾ 따라서 미국 동물병원 진료비는 지역, 수의사 경력, 약품 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⁷³⁾ 다만, 미국 동물병원협회(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AAHA)에서 2~3년마다 평균 진료 비용을 제시하는 “수의사 수수료 참조(The Veterinary Fee Reference)”를 발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950개 진료소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500개 이상의 수의 서비스에 대한 항목별로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4-7〉 미국 동물병원협회(AAHA)의 수의사 수수료 참조(The Veterinary Fee Reference) 목차

CONTENTS			
List of Tables	ix	Chapter 8: Diagnostic and Imaging Services	195
Preface	xxv	Data Tables: Diagnostic Services	198
Survey Methodology	xxvi	Data Tables: Imaging Services	203
		Data Tables: Diagnostic Imaging Cases	216
Chapter 1: Overview	1	Chapter 9: Prescription Medications	225
How to Use the Data	1	Data Tables: Prescription Fees	227
Statistical Process	2	Data Tables: Percentage Markups	228
Introduction to Setting Fees	3	Chapter 10: Fluid Therapy Services	233
Get Started with a Review of Your Fee Schedule	9	Data Tables: Fluids Setup	235
Data Tables: Summary of Fees	11	Data Tables: Fluid Therapy	239
Data Tables: Fee Adjustments	32	Chapter 11: Hospitalization Services	243
Data Tables: Demographics of Respondents	36	Data Tables: Hospitalization, No Overnight Stay	245
Chapter 2: Examinations and Preventive Care Services: Telemedicine and Office Visits	41	Data Tables: Hospitalization, Overnight Stay	252
Data Tables: Telemedicine: Examinations and Consultations	45	Chapter 12: Anesthesia Services	261
Data Tables: Examinations and Consultations	50	Data Tables: General Anesthesia Services	263
Data Tables: Preventive Care Services	59	Data Tables: Other Anesthesia Services	275
Data Tables: Health Certificates	76	Chapter 13: Treatment Procedures	283
Chapter 3: Vaccination Services and Protocols	79	Data Tables: General Treatment Procedures	285
Data Tables: Vaccination Services	81	Data Tables: Treatment Cases	287
Chapter 4: Discounts on Services	87	Chapter 14: Surgical Procedures	319
Data Tables: Discounts on Services	90	Data Tables: General Surgical Procedures	321
Chapter 5: Grooming and Boarding Services	95	Data Tables: Elective Surgical Procedures	324
Data Tables: Grooming Services	97	Data Tables: Nonelective Surgical Procedures	333
Data Tables: Boarding Services	103	Data Tables: Surgical Cases	360
Chapter 6: Dental Services	109	Chapter 15: End-of-Life Services	381
Data Tables: Dental Case	112	Data Tables: Euthanasia	383
Data Tables: General Dental Services	121	Data Tables: Necropsy	397
Chapter 7: Laboratory Services	123	Data Tables: Cremation	400
Data Tables: General Laboratory Services	126	Surveys	405
Data Tables: Laboratory Tests Completed In-House	129	Recommended Reading	438
Data Tables: Laboratory Tests Completed by Outside Lab	153		

자료: AAHA(2020).

⁷²⁾ 조선일보(2023. 2. 2.), “미국, 반려동물 평균 진료비 공시… 독일, 진료수가제 시행”.

⁷³⁾ VetHelpDirect(2022. 8. 18.), “Do vet prices vary much and why?”.

〈그림 4-8〉 미국 동물병원협회(AAHA)의 수의사 수수료 참조(The Veterinary Fee Reference)
가격 예시

TABLE 1.1 2020 AVERAGE AND MEDIAN FEES FOR ALL PRACTICES, CONTINUED			
SERVICE	2020 AVERAGE FEES	2020 NUMBER OF RESPONDENTS	2020 MEDIAN FEES
General Dental Services			
Extraction of Moderately Loose Premolar Tooth	\$40.40	231	\$36.25
Extraction of Firmly Implanted Upper Fourth Premolar Tooth	\$100.22	232	\$75.00
Postoperative Injectable Antibiotic	\$33.03	161	\$30.00
Postoperative Antibiotics, One-Week Supply	\$33.10	222	\$30.00
CHAPTER 7: LABORATORY SERVICES			
General Laboratory Services			
Lab and Blood Collection: Canine	\$15.35	105	\$15.00
Lab and Blood Collection: Feline	\$15.12	110	\$15.00
Lab and Blood Collection: Ferret	\$11.35	20	\$12.50
Laboratory Tests Completed In-House			
Blood Parasite Testing: <i>Ehrlichia</i>	\$48.89	89	\$45.00
CBC, Automated	\$51.33	195	\$50.00
CBC with 8-12 Chemistries	\$123.51	115	\$120.00
CBC with 16-24 Chemistries and T4	\$172.39	91	\$180.00
CBC with Manual Differential	\$59.45	69	\$55.00
CBC, with No Differential	\$53.63	111	\$50.00

자료: AAHA(2020).

2.4.4. 진료기록부 공개

미국 대부분의 주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기록을 요구할 때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보존기간이 최소 3년으로 1년인 우리나라 보다 길다.⁷⁴⁾ 또한, 진료기록부 공개와 관련하여 미국 수의사협회(AVMA)의 ‘수의학 윤리 원칙(Principles of veterinary medical ethics of the AVMA)’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있다.

⁷⁴⁾ CVMAinLine 홈페이지(<https://cvma-inline.net/wp-content/uploads/2020/02/MEDICAL-RECORDS-FAQ.pdf>), 검색일: 2023. 12. 2. 미국은 주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에 차이가 있음. 보통 최소 2년이며, 텍사스주의 경우 마지막 진료 이후 5년임(UCI(<https://www.ucishredding.com/how-long-do-veterinary-offices-keep-records/>), 검색일: 2023. 9. 20.).

〈글상자 4-4〉 수의학의 윤리 원칙

7. 비밀유지 및 기록보관

- a. 수의사는 환자, 동료 및 기타 보건 전문가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 진료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 b. 수의사와 그 동료는 고객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수의사는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다른 개인이나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진료 정보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 c. 수의사 진료기록은 수의사 진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기록은 주 및 연방 법률에 의해 제정된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i. 진료기록은 진료소와 진료소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원본 기록은 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 ii. 수의학 진료기록 내의 정보는 기밀입니다. 법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환자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 iii. 수의사는 고객이 요청할 때 진료기록 사본이나 요약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의사는 해당 조항을 문서화하기 위해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iv. 수의사가 진료기록이나 기록의 일부를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익을 위해 제거,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진료 소유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비윤리적입니다.

자료: AAHA 홈페이지(<https://www.avma.org/AVMA-policies/PRINCIPLES-OF-VETERINARY-MEDICAL-ETHICS-OF-THE-AVMA>), 검색일: 2023. 12. 3.

3. 일본⁷⁵⁾

3.1. 반려동물 인구 및 양육 현황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상황과 제도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국가이다. 일본은 과거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잘 키우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고령화 및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였다(전승훈 외, 2022).

일본 펫푸드협회(一般社団法人 ペットフード協会)⁷⁶⁾의 “2022년 전국 개·고양이 실태조사”⁷⁷⁾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려견 수는 약 705만 마리, 반려묘 수는 약 884만 마리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반려견 마릿수 약 545만 마리와 반려묘 마릿수 254만 마리와 비교하였을 때 반려견은 약 1.3배, 고양이는 1.6배 많고 반려묘 숫자가 반려견 숫자보다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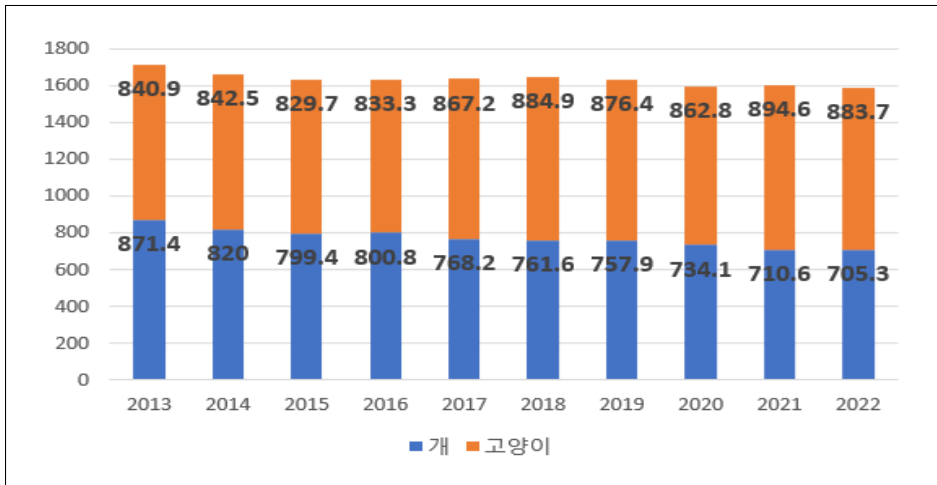
75) 일본 펫보험 실태 파악 및 우리나라 상품과의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펫보험 판매 담당자와 자문을 실시함(2023년 9월, 12월).

76) 一般社団法人 ペットフード協会(일반사단법인 펫푸드협회)는 기존 임의 단체 펫푸드 공업회에서 시작되어 2009년 4월 1일 일반사단법인 펫푸드협회로 전환되었음. 현재 펫푸드협회는 일본 내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 93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77)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미국 수의사회의 AVMA 애완동물 양육 및 인구통계 자료집(Pet Ownership & Demographics Sourcebook)과 유사한 조사임. 전국 개·고양이 실태조사는 반려동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해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 회원사의 마케팅, 상품 개발을 지원함. 조사 대상은 20~7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양육률, 양육 의향, 개 등록 유무 등을 조사함(JAPAN PET FOOD ASSOCIATION(<https://petfood.or.jp/data/chart/2022/index.html>), 검색일: 2023. 12. 3.).

〈그림 4-9〉 연도별 반려동물 개체 수

단위: 만 마리



자료: 일본 펫푸드협회(<https://petfood.or.jp/topics/img/221226.pdf>), 2022년 전국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검색일: 2023. 12. 3.

〈표 4-11〉 연도별 반려동물 총 개체 수

단위: 만 마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개	871.4	820.0	799.4	800.8	768.2	761.6	757.9	734.1	710.6	705.3
고양이	840.9	842.5	829.7	833.3	867.2	884.9	876.4	862.8	894.6	883.7
합계	1712.3	1662.5	1629.1	1634.1	1635.4	1646.5	1634.3	1596.9	1605.2	1589.0

자료: 일본 펫푸드협회(<https://petfood.or.jp/topics/img/221226.pdf>), 2022년 전국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검색일: 2023. 12. 3.

2022년 새로 입양된 반려동물의 수는 85만 8천마리로, 이중 반려견의 수는 42만6천 마리로 과거 10년 중 최대치이며, 새로 입양된 반려묘의 수는 43만2천 마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022년 입양된 반려견의 수가 최대치이긴 하지만 총 반려동물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태어나 최근 들어 평균 수명을 맞이하여 죽은 반려견의 수가 80만~100만 마리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4-12〉 연도별 반려동물 입양 개체 수

단위: 만 마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반려견	34.4	30.3	37.8	41.7	33.3	36.0	35.0	41.6	39.7	42.6
반려묘	34.3	35.4	35.8	39.9	44.4	35.1	39.4	46.0	48.9	43.2
합계	68.7	65.7	73.6	81.6	77.7	71.1	74.4	87.6	88.6	85.8

자료: 일본 펫푸드협회(<https://petfood.or.jp/topics/img/221226.pdf>), 2022년 전국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검색일: 2023. 12. 3.

2013 이후로 반려견을 양육하는 가구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 702만 가구에서 2022년 564만 가구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구 대비 반려견 양육 가구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12.85% 대비 약 3% 감소한 9.69%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묘 양육 가구 수는 2013년 491만 가구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소폭 증가하여 2022년 503만 가구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대비 2025년 반려묘 양육 가구 비중은 8.6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반려견 양육비율이 19.0%, 반려묘 양육비율이 7.1%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반려견은 우리나라보다 양육비율이 낮고 반려묘는 우리나라보다 양육비율이 높다.

〈표 4-13〉 연도별 일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반려견	가구 수	7,018	6,649	6,493	6,495	6,252	6,116	6,166	5,887	5,640
	비율	12.85	12.10	11.73	11.64	11.12	10.80	10.82	10.26	9.69
반려묘	가구 수	4,909	4,814	4,756	4,766	4,901	5,025	4,994	5,034	5,025
	비율	8.99	8.76	8.59	8.54	8.72	8.88	8.76	8.77	8.63
총가구 수		54,595	54,952	55,364	55,812	56,222	56,614	56,997	57,381	57,855

자료: 일본 펫푸드협회(<https://petfood.or.jp/topics/img/221226.pdf>), 2022년 전국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검색일: 2023. 12. 3.

일본 펫푸드협회는 연도별 반려동물 평생 양육 비용과 월평균 양육비용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일본의 반려견 양육 비용은 각 항목에서 증가하였다. 2022년 반려견 평생 양육비용은 252만 엔이고 월평균 지출액은 13,904엔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수의비용이 4,653엔으로 나타났다. 보험 비용은 이 기간 동안 2,662엔에서 2,885엔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지출 규모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⁷⁸⁾

〈표 4-14〉 일본의 연도별 반려견 양육 비용

단위: 엔(¥), %

구분	평생 비용	지출 총액	사료	간식	수의 비용	보험	미용	용품	장난감
2017	1,600,827	9,543	2,750	1,184	3,335	2,662	3,223	1,235	917
2018	1,793,005	10,368	2,629	1,261	3,642	2,832	3,410	1,238	876
2019	2,004,139	11,562	3,148	1,292	3,951	3,250	3,541	1,404	1,147
2020	2,073,531	12,020	3,074	1,409	4,343	2,892	3,687	1,427	1,175
2021	2,448,784	13,843	3,531	1,577	4,713	3,190	4,044	1,513	1,169
2022	2,517,524	13,904	3,642	1,615	4,653	2,885	3,970	1,593	1,164
연평균 증가율	9.5	7.8	5.8	6.4	6.9	1.6	4.3	5.2	4.9

주: 평생 비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을 매월 지출 평균을 의미함.

자료: 일본 펫푸드협회(<https://petfood.or.jp/topics/img/221226.pdf>), 2022년 전국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검색일: 2023. 12. 3.

한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일본의 반려묘 양육 비용은 증가 추세이나 연도별 변동은 있다. 2022년 반려견 양육비용은 132만 엔이고 월평균 지출액은 7,286엔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수의비용이 2,392엔으로 나타났다. 반려견보다 반려묘의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 비용은 이 기간 동안 2,096엔에서 2,069엔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⁷⁸⁾ 참고로 우리나라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평균 양육비는 20.82만 원(마리당: 15.38만 원), 월평균 병원비는 8.34만 원(마리당: 6.09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리서치 기관인 Statista에 따르면 2019년 국민 1인당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연평균 162달러, 우리나라는 31달러, 일본은 42달러, 영국은 93달러로 차이가 있다(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15339/pet-care-spending-per-capita-worldwide/>), 검색일: 2023. 12. 3.).

〈표 4-15〉 일본의 연도별 반려묘 양육 비용

단위: 엔(¥), %

구분	평생 비용	지출총액	사료	간식	수의비용	보험	잡화	장난감, 의류
2017	1,076,313	5,777	2,293	1,095	2,528	2,096	1,158	576
2018	1,121,526	6,236	2,599	1,092	2,412	1,729	1,164	599
2019	1,344,751	7,485	2,745	1,303	3,016	2,349	1,329	747
2020	1,235,071	7,252	2,673	1,241	2,918	1,758	1,309	820
2021	1,535,678	8,460	2,978	1,346	3,367	2,731	1,429	850
2022	1,316,467	7,286	2,877	1,356	2,392	2,069	1,299	808
연평균 증가율	4.1	4.8	4.6	4.4	-1.1	-0.3	2.3	7.0

자료: 일본 펫푸드협회(<https://petfood.or.jp/topics/img/221226.pdf>), 2022년 전국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검색일: 2023. 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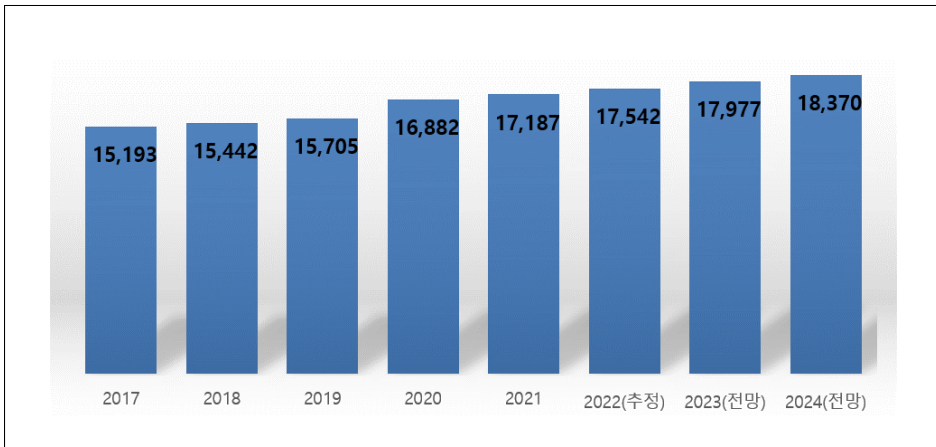
3.2.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일본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최근 반려동물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증가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경향으로 인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병원, 펫보험과 같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들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마케팅 리서치 전문 업체인 야노경제연구소(Yano Research Institute)에서는 2022년도 반려동물 관련 총 시장 규모를 2021년도 대비 1.8% 증가한 1조 7,542억 엔으로 추산하였다. 이 중 펫 푸드가 6,379억 엔(36.4%), 펫 용품이 2,911억 엔(16.6%), 펫 서비스가 8,252억 엔(47.0%)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0〉 반려동물 관련 총 시장 규모

단위: 억 엔



자료: 야노경제연구소(https://www.yanoresearch.com/en/press-release/show/press_id/3053), 검색
일: 2023. 12. 3.

〈표 4-16〉 일본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추이

단위: 억 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정)	2023 (전망)	2024 (전망)
펫푸드	5,015	5,212	5,333	5,822	6,083	6,379	6,725	7,078
펫용품	2,561	2,576	2,667	2,864	2,880	2,911	2,974	2,999
펫서비스	7,617	7,654	7,705	8,196	8,225	8,252	8,278	8,294
합계	15,193	15,442	15,705	16,882	17,187	17,542	17,977	18,370

자료: 일본 펫푸드협회(<https://petfood.or.jp/topics/img/221226.pdf>), 2022년 전국 개·고양이 사육실
태조사, 검색일: 2023. 12. 3.

3.3. 펫보험 현황

일본의 반려동물 보험은 “일본 반려동물소유자 클럽(현재의 펫&패밀리 소유
단기보험회사)”의 “노가와 료스케” 대표이사가 1995년 일본 최초로 판매하기 시
작하였다(전승훈 외, 2022). 1990년대 일본의 반려동물 양육이 크게 확대되어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펫보험은 2006년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기존 공제사업자가 “보험회사” 또는 “소액단기보험회사”로 전환되면서 반려동물보험 전문보험사가 등장하게 된 것이 보험률 가입이 증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코리안리, 2018).⁷⁹⁾ 또한, 일본의 1973년 제정된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999년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고 2013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평생 관리 책임을 부여하게 되면서 펫보험 성장에 기여하였다(코리안리, 2018).

〈글상자 4-5〉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조 4항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의 목적 등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해당 동물이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적절히 사육하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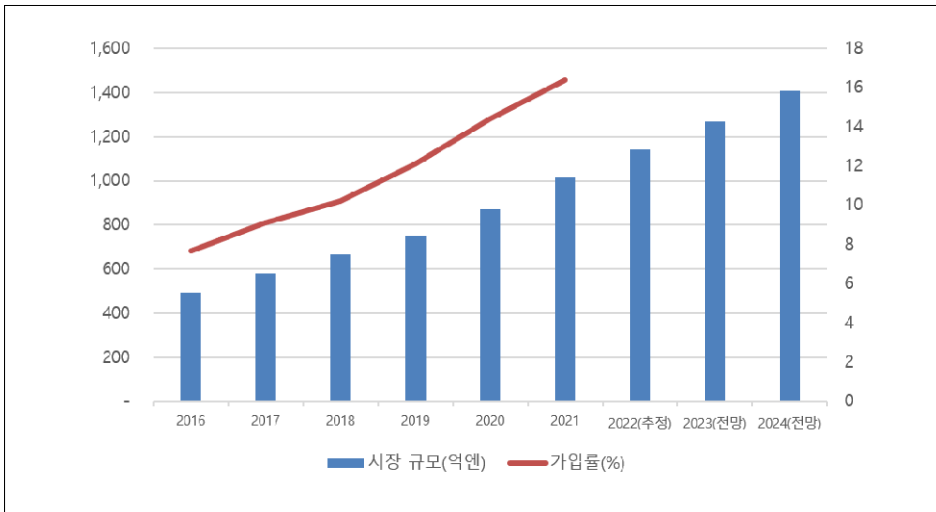
자료: e-Gov포털(<https://www.e-gov.go.jp/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검색일: 2023. 12. 2.

일본의 펫보험 시장 규모는 2016년 493억 엔에서 2022년 1,140억 엔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향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펫보험 가입률 또한 2016년 7.7%에서 2021년 16.4%로 성장하였다.

⁷⁹⁾ 반려동물 손해보험사와 단기소액보험사의 차이점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금융청으로부터 면허가 필요한 반면 소액단기보험사의 경우 재무국에 등록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함. 자본금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손해보험사의 경우 10억 엔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단기소액보험사의 경우 1,000만 엔 이상이 필요함. 이외에도 보험메뉴, 연간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계약자 보호 안정망에서 차이가 있음(류성경, 2021).

〈그림 4-11〉 펫보험 시장 규모와 가입률

단위: 억 엔, %



자료: GlobalStockPicking(<https://www.globalstockpicking.com/2022/09/25/anicom-dominant-japanese-pet-insurance/>), 검색일: 2023. 12. .3.

일본 내 펫보험 회사는 6개 손해보험회사(아이펫, 약사, 애니콤, AU, 반려동물 & 패밀리, 라쿠텐)와 10개 반려동물 소액단기보험사(이펫, 이온, SBI 이키이키, FPC, 츠바키, 일본반려동물, 페츠베스트, 반려동물진료지원, 리틀패밀리) 등이 있다.⁸⁰⁾ 이 중 2020년 보험료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애니콤이 약 51% 점유율로 시장 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로 아이펫이 약 22%, 반려동물&패밀리(P&F)가 약 7%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⁸¹⁾

애니콤 보험회사는 12년 연속 펫보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상우, 2023). 애니콤 보험회사는 애니콤홀딩스의 자회사이며, 애니콤홀딩스는 2000년 공제회사로 시작하여, 2005년 애니콤 인터내셔널(현재의 애니콤홀딩스)을 설립한 후 손해보험업

⁸⁰⁾ 일본 손해보험 판매 웹사이트(<https://ppnet.co.jp/pet-hoken/plan/>), 검색일: 2023. 12. 3. 자료를 참고함.

⁸¹⁾ anicom(<https://www.anicom.co.jp/ir/>), 2022-2024 애니콤 중기계획, 검색일: 2023. 12. 3.

면허를 2007년 취득한 동물보험 전문회사이다(이상우, 2023).

〈글상자 4-6〉 일본의 애니콤홀딩스

애니콤홀딩스는 일본 최초로 동물병원에 보험 카드만 제시하면 보장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OTC(over-the-counter)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애니콤 보험에 가입된 동물병원 수는 6,500개 이상(일본 전체 동물병원의 50% 이상)이며, 연간 300만 건이 넘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 85%가 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또한, 전국 2,000여개 주요 펫샵과 펫보험 대리점과 협약하여 애완동물 매장을 통해 입양되는 어린 반려동물을 가장 큰 영업망으로 하여 80% 이상을 신규보험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외에도 금융 기관을 통한 대리점 및 창구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애니콤에는 100명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2020년 12월 31일 기준). 이를 통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수의사 상담 서비스, 통계 분석, 유전자 및 미생물 연구 등 수의학 발전에 기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출생 전(upstream), 양육(midstream), 사망 전후(downstream)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업스트림 사업으로는 유전자와 번식 연구, 미드스트림 사업으로는 동물병원 진료기록 관리 시스템 판매, 반려동물 장내미생물 측정 서비스, 다운스트림으로는 첨단 진료 등에 참여하고 있다. 애니콤홀딩스는 애니콤손해보험, 애니콤파페(ICT를 이용한 동물병원 지원사업), 애니콤 선진진료 연구소(동물진료 연구, 동물병원 경영), SIMNET(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사육자와 고객 연결 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일본 애니콤홀딩스 웹사이트(<https://www.anicom.co.jp/en/company/outline/>), 검색일: 2023. 12. 3.

일본의 펫보험 상품은 동물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 수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에서 제시하는 연간 최대 한도액 내에서 실비로 보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상품에 따라 보상비율은 50%, 70%, 90%, 100%로 다양하며, 매월 지불하는 방식과 연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⁸²⁾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콤사의 보험상품은 크게 후미리, 보시, 푸치 세가지로 구분되며, 푸치(시니어)의 경우 8세 이상 개와 고양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험료는 말티즈 개(0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장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50엔/월(취리히)부터 3,910엔/월(애니콤)까지 다양한 가격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⁸²⁾ 일본 손해보험 판매 웹사이트(<https://ppnet.co.jp/pet-hoken/plan/>), 검색일: 2023. 12. 3. 자료를 참고함.

〈표 4-17〉 애니콤사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비교

구분		도부츠 캔호 후미리		도부츠 캔 보시		도부츠 캔보 푸치(시니어)
가입 대상		개, 고양이, 조류, 토끼, 족제비		개, 고양이		
가입 연령		7세 11개월(개, 고양이) 이하 3세 11개월(조류, 토끼, 족제비) 이하		7세 11개월 이하		8세 이상
보장 형태		통원, 입원, 수술 보장		입원, 수술 특화형		입원, 수술 특화형
보장 비율		50%	70%	50%	70%	70%
보장 내역	통원	1일 최고 10,000엔 (20일)	1일 최고 14,000엔 (20일)	-		
	입원	1일 최고 10,000엔 (20일)	1일 최고 14,000엔 (20일)	1일 최고 10,000엔 (20일)	1일 최고 14,000엔 (20일)	1일 최고 14,000엔 (20일)
	수술	1회 최고 100,000엔 (2회)	1회 최고 140,000엔 (2회)	1회 최고 100,000엔 (2회)	1회 최고 140,000엔 (2회)	1회 최고 140,000엔 (2회)

자료: 애니콤사 홈페이지(<https://www.anicom-sompo.co.jp/products/>), 검색일: 2023. 12. 4.

〈표 4-18〉 아이펫사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 비교

구분		우리아이		우리아이 라이트
특징		통원, 입원, 수술		수술, 수술을 포함한 입원
		자기부담금 없음		최소 30,000엔 지불 필요
가입 조건		12세 11개월 미만의 강아지, 고양이		12세 11개월 미만의 강아지, 고양이
보상 한도		50% 보상	70% 보상	90%
세부 보상 내역	통원	1일 최대 12,000엔 / 각 22일까지	1일 최대 12,000엔 / 각 22일까지	수술, 수술을 포함한 연속적인 입원의 경우에도 보상
	입원	1일 최대 12,000엔 / 각 22일까지	1일 최대 30,000엔 / 각 22일까지	수술 1회당 최대 10일 입원까지 보상
	수술	1일 최대 100,000엔 / 각 2일까지	1일 최대 150,000엔 / 각 2일까지	수술 1회당 최대 50만 엔/연 2회
	한도	최대 72.8만 엔	최대 122.4만 엔	연 2회

자료: 아이펫 홈페이지(<https://www.ipet-ins.com/products/uchinoko-light/compensation/>), 검색
일: 2023. 12. 4.

3.4. 주요제도 현황

3.4.1. 동물등록제

일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구 읍면에 반려견을 등록하는 것, 반려견에 연 1회 광견병 예방 주사를 놓는 것, 개의 감찰(등록표)과 주사필표(광견병 예방주사 접종 증명)를 반려견에게 장착하는 것을 법에 의해 의무화 하고 있다. 광견병예방법에 따라 반려인은 반려견을 기르기 시작한 날 또는 생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신고를 해야하며, 동물애호관리법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에 따라 브리더나 펫샵 등에서 판매되는 개,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하였다.⁸³⁾

〈표 4-19〉 마이크로칩 장착 비율

단위: %

구분	개	고양이	미장착	모름
비율	22.5	7.4	70.4	1.3

자료: 일본 펫푸드협회(<https://petfood.or.jp/topics/img/221226.pdf>), 2022년 전국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검색일: 2023. 12. 3.

3.4.2. 진료표준화

일본 수의사회에서는 수의사의 망세, 소동물 진료의 지침, 사육 동물 진료소 개설의 가이드 등 진료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예시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⁸⁴⁾

⁸³⁾ 데일리벳(2022. 6. 7.), “반려동물 이력제,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먼저 도입한 일본”.

⁸⁴⁾ 일본 수의사회(<http://nichiju.lin.gr.jp/about/kitei.html>), 검색일: 2023. 12. 4.

3.4.3. 진료비 공개

일본 내 독점금지법로 인해 수의사 진료비와 관련하여 표준진료비와 같이 기준 요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내 진료비 격차가 존재한다. 일본 수의사회에서는 수의사 진료 요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있다.

〈글상자 4-7〉 수의사의 진료 요금에 대한 일본 수의사회 입장

수의사의 진료요금은 독점금지법에 의해 수의사 단체(수의사회 등)가 기준요금을 정하거나 수의사끼리 협정하여 요금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법 하에서는 수의사는 각자가 요금을 설정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에 따라 요금에 격차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일본 수의사회 웹사이트(<http://nichiju.lin.gr.jp/>), 검색일: 2023. 12. 4.

일본 수의사회는 소동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소동물에 대한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2015년, 2021년 진료 요금 실태조사인 ‘가정 사육 동물(개·고양이)의 진료 요금 실태 조사 결과’를 실시하여 공지하였다. 최근에 실시된 2021년 조사에서는 1,096명의 수의사가 참석하였고, 응답자 속성(성별, 나이, 개업연수, 수입 등), 직원 수, 진찰료, 시간외 진료, 입원료, 주사료, 수액료, 문서료, 수혈료, 조제료, 일반 처치, 상처 처치, 비뇨 생식기, 안과, 치과, 구강외과, 안락사 처치, 마취료, 눈, 귀,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등에 대해 가격대별 분포와 중앙값을 제시하고 있다.⁸⁵⁾ 또한, 각 병원에서는 개별적으로, 초진료, 진료료, 광견병 예방접종, 백신, 검사, 예방, 중성화 수술등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⁸⁵⁾ 일본 수의사회(<http://nichiju.lin.gr.jp/small/ryokin.html>), 검색일: 2023. 12. 4.

〈그림 4-12〉 일본 수의사회 ‘가정 사육 동물(개·고양이) 진료 요금 실태 조사 결과’ 예시(초진료/
재진료/ 통상)

イ 診療料金に関する質問

あなたの診療施設における各料金をお知らせください。

A. 診察料】 初診料

1. 無料23件(2.1%)

2. 500円未満5件(0.5%)

3. 500～1,000円未満155件(14.1%)

4. 1,000～2,000円未満833件(76.0%)

5. 2,000～3,000円未満65件(5.9%)

6. 3,000～5,000円未満9件(0.8%)

7. 5,000～7,500円未満1件(0.1%)

8. 7,500～10,000円未満1件(0.1%)

9. 10,000～12,500円未満1件(0.1%)

10. 12,500～15,000円未満1件(0.1%)

11. 15,000～17,500円未満0件(0.0%)

12. 17,500～20,000円未満0件(0.0%)

13. 20,000～25,000円未満0件(0.0%)

14. 25,000～30,000円未満0件(0.0%)

15. 30,000～40,000円未満0件(0.0%)

16. 40,000～50,000円未満0件(0.0%)

17. 50,000円以上0件(0.0%)

18. 対応外0件(0.0%)

無回答2件(0.2%)

全体1096件(100.0%)

[中央値: 1500円]

A. 診察料】 再診料

1. 無料54件(4.9%)

2. 500円未満54件(4.9%)

3. 500～1,000円未満848件(77.4%)

4. 1,000～2,000円未満125件(11.4%)

5. 2,000～3,000円未満10件(0.9%)

6. 3,000～5,000円未満0件(0.0%)

7. 5,000～7,500円未満1件(0.1%)

8. 7,500～10,000円未満1件(0.1%)

9. 10,000～12,500円未満0件(0.0%)

10. 12,500～15,000円未満0件(0.0%)

11. 15,000～17,500円未満0件(0.0%)

12. 17,500～20,000円未満0件(0.0%)

13. 20,000～25,000円未満0件(0.0%)

14. 25,000～30,000円未満0件(0.0%)

15. 30,000～40,000円未満0件(0.0%)

16. 40,000～50,000円未満0件(0.0%)

17. 50,000円以上0件(0.0%)

18. 対応外0件(0.0%)

無回答3件(0.3%)

全体1096件(100.0%)

[中央値: 750円]

B. 往診料】 通常

1. 無料17件(1.6%)

2. 500円未満2件(0.2%)

3. 500～1,000円未満32件(2.9%)

4. 1,000～2,000円未満231件(21.1%)

5. 2,000～3,000円未満323件(29.5%)

6. 3,000～5,000円未満242件(22.1%)

7. 5,000～7,500円未満27件(2.5%)

8. 7,500～10,000円未満1件(0.1%)

9. 10,000～12,500円未満0件(0.0%)

10. 12,500～15,000円未満1件(0.1%)

11. 15,000～17,500円未満0件(0.0%)

12. 17,500～20,000円未満0件(0.0%)

13. 20,000～25,000円未満0件(0.0%)

14. 25,000～30,000円未満0件(0.0%)

15. 30,000～40,000円未満0件(0.0%)

16. 40,000～50,000円未満0件(0.0%)

17. 50,000円以上0件(0.0%)

18. 対応外185件(16.9%)

無回答35件(3.2%)

全体1096件(100.0%)

[中央値: 2500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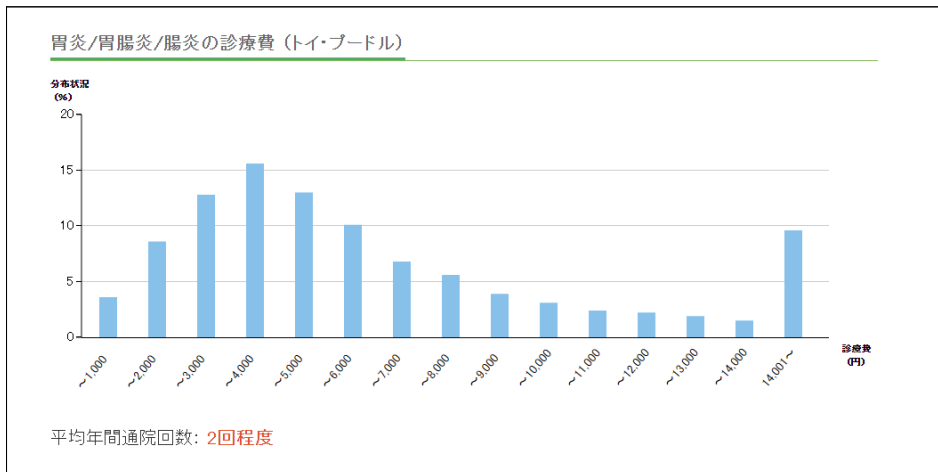
자료: 일본 수의사회(<http://nichiju.lin.gr.jp/small/ryokin.html>), 검색일: 2023. 12. 4.

일본은 또한 수의사법 제17조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의사 업무에 대한 광고 가능 사항이 확대되면서 ‘문의처’, ‘통상 필요로 하는 진료의 내용’, ‘진료에 관련된 주요한 리스크, 부작용’ 및 ‘비용’ 등의 내용을 병기하도록 하게 되었다.⁸⁶⁾ 그뿐만 아니라, 일본 펫보험사(애니콤)에서는 자사에서 모은 진료

⁸⁶⁾ 일본 수의사회(http://nichiju.lin.gr.jp/small/ryokin_pdf/r3.pdf), 검색일: 2023. 12. 4.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종별, 연령별, 질병별 평균 진료금액을 제공해주는 서비스⁸⁷⁾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4-13〉 일본 애니콤사의 진료금액 제공 서비스 예시(위염/위장염/장염 진료비, 토이 푸들)



자료: 동물진료비닷컴(<https://www.anicom-navi.com>), 검색일: 2023. 12. 3.

3.4.4. 진료기록부 공개

일본은 진료 및 진단서 등에 대해서는 교부의 의무가 수의사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는 3년 이상으로 농림수산성 대신이 정하게 하였고, 농림수산성 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로 인정될 때 수의사에 대하여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의사법에서 진료부와 검안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1년을 보존하고,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만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없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및 수의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의 수의업무 파악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⁸⁷⁾ 동물진료비닷컴(<https://www.anicom-navi.com>), 검색일: 2023. 12. 3.

〈글상자 4-8〉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일본 수의사법

- 제21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수의사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진료에 관한 사항을 진료부에, 검안을 한 경우에는 검안에 관한 사항을 검안부에 지체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는 전항의 진료부 및 검안부를 3년 이상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농림 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직원에게, 수의사에 대해서, 진료부 및 검안부(이러한 작성 또는 보존 대신에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 계산기에 의한 정보 처리의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의 작성 또는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는 검사될 수 있다. ④ 도도부현 지사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검사의 결과를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e-Gov포털(<https://www.e-gov.go.jp/獣医師>), 검색일: 2023. 12. 3.

〈글상자 4-9〉 국내 진료기록부 관련 수의사법

-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회로 하여금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 진료 상황과 가축 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검색일: 2023. 12. 3.

4. 스웨덴

4.1. 반려동물 인구 및 양육현황

스웨덴은 최대의 반려동물 복지 국가 중 하나이다. 2022년 기준 스웨덴의 인구는 1천 49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분의 1 수준이고 반려동물 개체 수 비중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⁸⁸⁾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스웨덴은 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정보를 관리하

⁸⁸⁾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반려동물(개, 고양이) 비중은 약 15.5%이고, 스웨덴의 비중은 약 13.9%임.

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웨덴 농무부에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2023년 11월 기준 스웨덴 농무부에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1백만 12만 3천 마리며, 반려견 양육 인구는 81만 1천 명으로 집계되었다.⁸⁹⁾ 매월 스웨덴 농무부에서는 신규 등록 또는 소유권이 변경 등록된 반려견의 수, 지역별 반려견 등록 수, 이름, 품종 등에 대한 정보를 매월 초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 반려동물 개체 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보다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4-20〉 월별 반려견 신규 등록 건수

단위: 마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1월	6,170	6,347	6,887
2월	5,288	5,000	4,595
3월	6,366	5,755	5,197
4월	5,931	5,322	5,401
5월	6,894	6,662	6,144
6월	1,540	7,185	7,118
7월	8,263	7,649	5,987
8월	7,649	6,851	5,355
9월	6,797	5,784	5,092
10월	5,918	5,714	4,521
11월	5,550	5,234	
12월	5,612	5,373	

자료: 스웨덴 농무부(<https://jordbruksverket.se/languages/english/swedish-board-of-agriculture>), 검색일: 2023. 12. 11.

반려묘의 경우, 2023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며, 2023년 1월 1부터 5월 사이에 농무부에 등록된 반려묘의 수는 33만 6천 마리며, 반려묘 양육 인구는 22만 1천 명으로 집계되었다.⁹⁰⁾

⁸⁹⁾ 스웨덴 농무부(<https://jordbruksverket.se/e-tjanster-databaser-och-appar/e-tjanster-och-databaser-djur/hundregistret/statistik-ur-hundregistret>), 검색일: 2023. 12. 11.

⁹⁰⁾ 스웨덴 농무부(<https://jordbruksverket.se/e-tjanster-databaser-och-appar/e-tjanster-och-databaser-djur/kattregistret/statistik-ur-kattregistret>), 검색일: 2023. 12. 11.

2023년 농무부의 반려묘 등록이 의무화되기 전에는 스웨덴 내 고양이 협회(SVERAK)에서 자체적으로 고양이 등록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고양이 협회(SVERAK) 기준 2022년 반려묘 개체 수는 1,160천 마리로 집계되었다.

〈표 4-21〉 연도별 반려묘 개체 수

단위: 천 마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고양이	1,427	1,460	1,335	1,222	1,164	1,160

자료: 스웨덴 고양이 협회(SVERAK)(<https://www.sverak.se/om-sverak/siffror-statistik/>), 검색일: 2023. 12. 11.

고양이 협회(SVERAK)와 농무부의 통계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법적으로 고양이 협회(SVERAK)에 반려묘를 등록했을지라도 스웨덴 농무부에 고양이 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향후 고양이 협회(SVERAK)와 스웨덴 농무부의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2.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스웨덴의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유로모니터(2023) 기준 총 651백만 달러 규모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크게 개, 고양이, 기타 동물로 나뉘 볼 수 있으며, 2023년 반려견 사료는 2억 7천3백만 달러, 반려묘 사료는 359백만 달러, 기타 동물 사료는 27백만 달러로 나타났다.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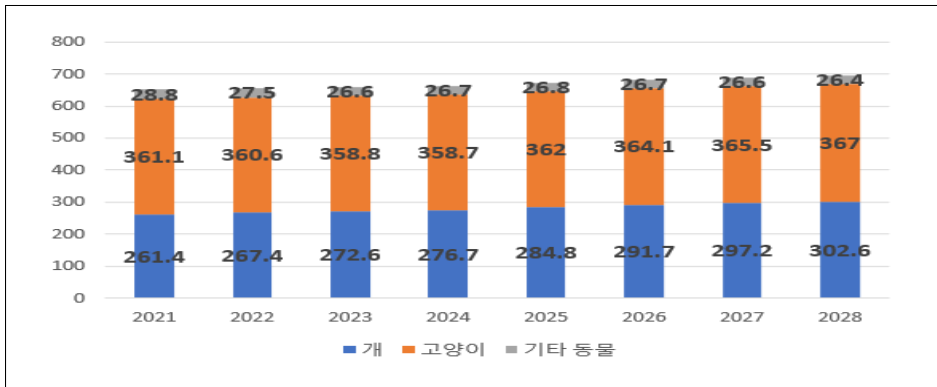
유로모니터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당분간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정체상태를 보이다 2025년부터 조금씩 회복되어 2028년 696백만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och-databaser-djur/kattregistret/statistik-ur-kattregistret), 검색일: 2023. 12. 11.

⁹¹⁾ Kotra(2023. 10. 31.), “스웨덴 반려동물 사료 시장동향”.

〈그림 4-14〉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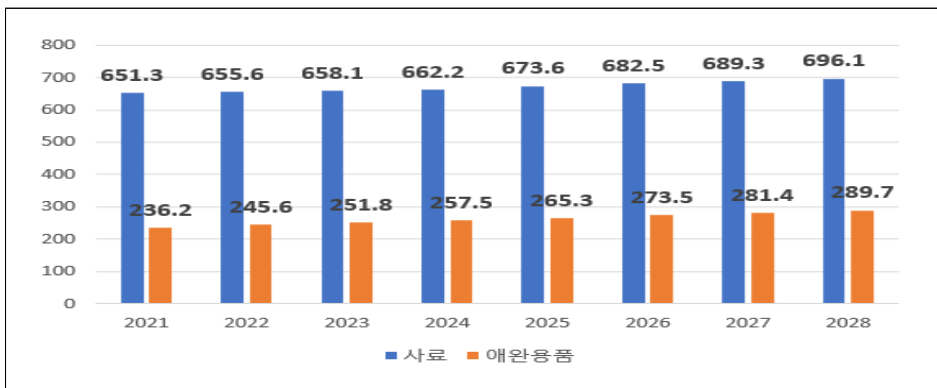


자료: KOTRA(2023. 10. 31.), “스웨덴 반려동물 사료 시장동향” 재인용.

또한 유로모니터는 반려동물 사료와 함께 반려동물용품 시장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이유로 최근 스웨덴 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 중인데,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사료뿐만 아니라 용품까지도 프리미엄 제품을 소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5〉 스웨덴 반려동물 용품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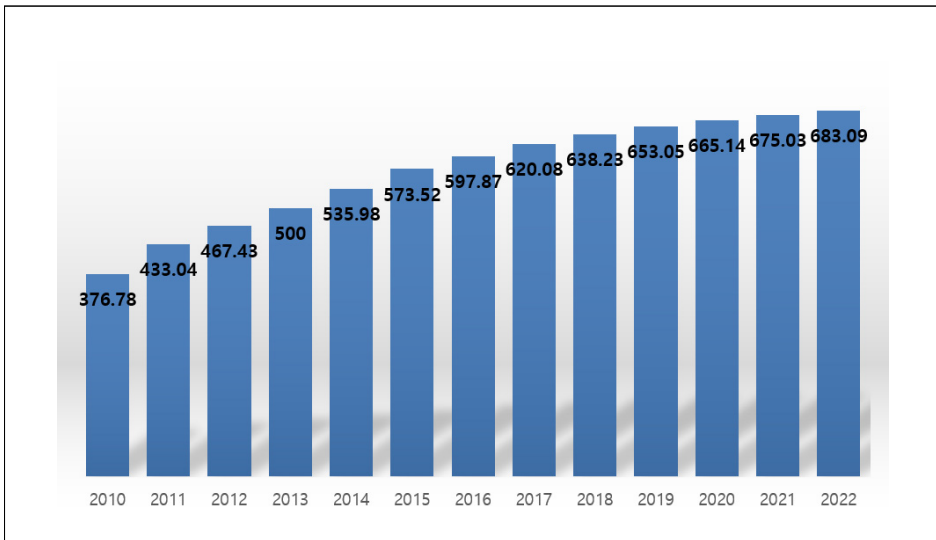


자료: KOTRA(2023. 10. 31.), “스웨덴 반려동물 사료 시장동향” 재인용.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탯리스타(Statista)에 따르면 스웨덴의 수의서비스 규모는 2010년 3억 7,678만 달러에서 2022년 6억 8,309만 달러로 연평균 5.1% 증가하였다. 지난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2022년 우리나라 수의서비스 규모가 약 14억 9,000만 달러 수준이고 우리나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개체 수가 스웨덴 보다 5.5배 정도 많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스웨덴의 수의서비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⁹²⁾

〈그림 4-16〉 스웨덴 수의서비스업 규모(매출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STATISTA(<https://www.statista.com/forecasts/920375/veterinary-activities-revenue-in-sweden>), 검색일: 2023. 12. 11.

⁹²⁾ 2022년 기준 스웨덴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개체 수는 145만 9천 마리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799만 마리임. 2022년 우리나라 수의서비스 규모는 Global Market Insight 자료를 활용함.

4.3. 펫보험 현황

스웨덴은 Länsförsäkrings(현 Agria)가 1890년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보험상품을 출시하였으며, 이후 1924년에는 개(1972년 고양이 대상 출시)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하여 현재 펫보험의 시초가 되었다(김유미, 2023).

Agria Djurförsäkring⁹³⁾와 Svenska Kennelklubben⁹⁴⁾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스웨덴의 개 중 92%가 펫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고양이의 경우 펫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56%의 고양이가 펫보험 가입되어 있다.⁹⁵⁾

스웨덴 경쟁청⁹⁶⁾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동물 보험시장의 절반 이상은 Agria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Folksam이 2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Sveland, IF가 각각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⁷⁾ 최근에

⁹³⁾ Agria Djurförsäkring는 동물 및 작물 보험 전문회사이며,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동물보험회사이다. Agria Djurförsäkring는 동물보험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여러 동물 단체와 협력하여 수의학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⁹⁴⁾ Svenska Kennelklubben은 개 양육자를 위한 조직으로 1889년 처음 설립되어 초창기에는 사냥개만을 대상으로 설립하였지만 현재에는 모든 품종의 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의 양육, 훈련 및 관리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개 소유자와 개 소유권과 관련된 공익적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개 양육자 간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위키피디아(https://sv.wikipedia.org/wiki/Svenska_Kennelklubben), 검색일: 2023.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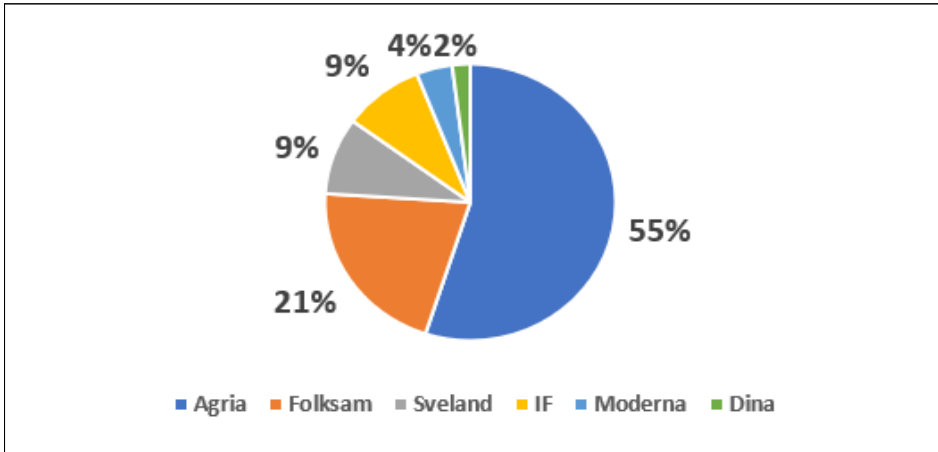
⁹⁵⁾ Agria(2022. 2. 8.), “Agria ökar den internationella tillväxttakten och förvärvar Capstone”; Agria(2021. 4. 6.), “Husdjur i vart tredje svenskt hem”.

⁹⁶⁾ 스웨덴 경쟁청은 경쟁 규칙, 조달 규정, 농산물 및 식품 구매에 관한 불공정 거래 관행에 관한 법률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스웨덴 경쟁청의 임무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민간 및 공공 사업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대중과 시장 참가자의 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 조달을 위해 이바지하는 것이다. 스웨덴 경쟁 당국은 해당 분야 내에서 법 집행 및 감독, 개선 조치, 지식, 연구, 국제 업무 및 협력한다.

⁹⁷⁾ 스웨덴 경쟁청(https://www.konkurrensverket.se/globalassets/dokument/informationsmaterial/rapporter-och-broschyrer/rapportserie/rapport_2018-6.pdf), 검색일: 2023. 12. 20.

는 Lassie⁹⁸⁾와 같은 반려동물의 예방 진료에 초점을 둔 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림 4-17〉 스웨덴 동물보험 시장 점유율



자료: 스웨덴 경쟁청(2018), Bättre konkurrens om fler byter djurförsäkring 자료 재인용

〈글상자 4-10〉 Agria 펫보험 회사

- Agria(Agria Agria Djurförsäkring)는 Länsförsäkringar AB의 자회사로 1890년 스웨덴에서 설립되었으며, 스웨덴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펫보험 시장 선두 주자임.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에 진출하였고 자회사(Agria Vårdguide)을 통해서 동물 소유자에게 디지털 수의학 관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 2022년 Agria(펫보험, 작물보험 포함)의 보험업자 성적(technical result, 보험료에서 보험금,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은 4억 8,649만 크로나로 2021년 3억 4,250만 크로나에 비해 42.0% 증가함. 동기간 손해율(claim ratio)은 72%에서 68%로 감소하고 사업비율(expense ratio)은 21%에서 23%로 증가함,⁹⁹⁾

자료: 저자 작성.

스웨덴의 펫보험은 보장 범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2.5살 암컷 골든

⁹⁸⁾ Lassie는 디지털 반려동물보험 스타트업으로 예방진료에 중점을 둔 반려동물 건강보험회사이다. 앱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⁹⁹⁾ Länsförsäkringar AB 연례보고서(<https://www.lansforsakringar.se/stockholm/other-languages/english/about-lansforsakringar/financial-reports/agria-djurforsakring/>), 검색일: 2023. 12. 14.).

리트리버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수의학 치료 비용으로 30,000크로나를 보장하는 기본형 보험, 연간 60,000크로나를 보장하는 중간 수준의 보험, 일반적으로 100,000크로나를 보장하고 수의 진료 금액 이외에도, 의약품, 재활, MR/CT 검사 등 가장 포괄적인 범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구분된다.¹⁰⁰⁾

〈표 4-22〉 보험회사별 보장범위별 보험상품

단위: 크로나

보장수준	구분 회사	보장금액		지원 항목			무료 통화 진료
		월보험납입금	최대금액	의약품	MR/CT	재활	
기본	Agria	218	30,000	2,000	5,000	-	가능
	Folksam	227	30,000	-	-	-	가능
	Sveland	422	40,000	-	-	-	가능
	Moderna	182	30,000	-	-	-	가능
	LAssie	205	30,000	-	-	-	가능
중간	Agria	561	60,000	60,000	지원	지원	가능
	Folksam	364	60,000	지원	지원	지원	가능
	Sveland	516	100,000	-	-	-	가능
	Moderna	320	60,000	지원	7,000	7,000	가능
	LAssie	361	60,000	60,000	60,000	6,000	가능
최대	Agria	978	150,000	150,000	지원	지원	가능
	Folksam	538	90,000	지원	지원	지원	가능
	Sveland	772	140,000	10,000	-	10,000	가능
	Moderna	463	120,000	지원	15,000	지원	가능
	LAssie	708	160,000	160,000	160,000	12,000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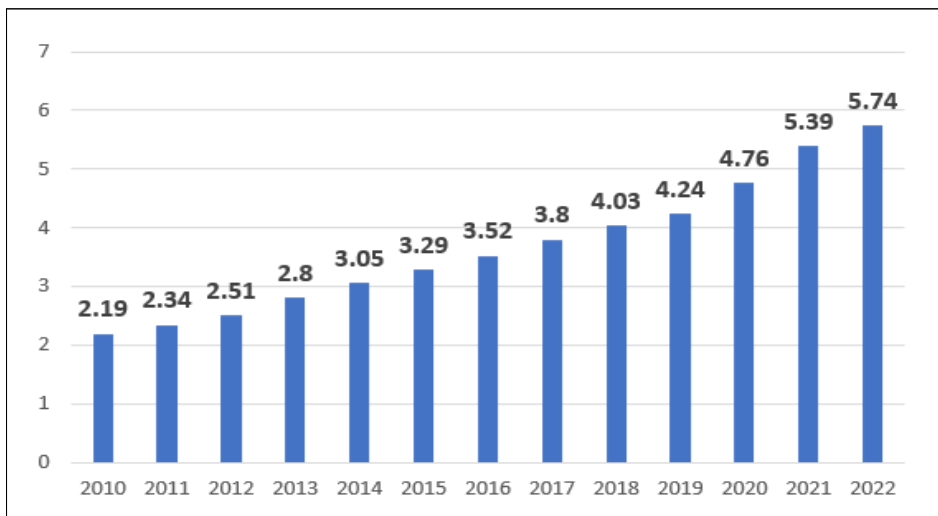
자료: 스웨덴 펫보험 비교 사이트(<https://www.hundar.se/hundforsakring>), 검색일: 2023. 12. 4.

¹⁰⁰⁾ 스웨덴의 펫보험 전반적인 가격을 가지고 비교함(스웨덴 펫보험 비교 사이트(<https://www.hundar.se/hundforsakring>), 검색일: 2023. 12. 4.).

Svensk Försäkring¹⁰¹⁾의 동물보험 수입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총 동물보험료 수입은 57.4억 크로나이며,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총 보험금은 40.2억 크로나로 나타났다. 동물보험 수입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총 동물보험료 수입은 2021년 대비 7% 증가하였다. 2021년과 2020년은 각각 13%, 11% 증가하여 2010~2022년 기간 동안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그림 4-18〉 연간 동물보험 수입 보험료 총액

단위: 십억 크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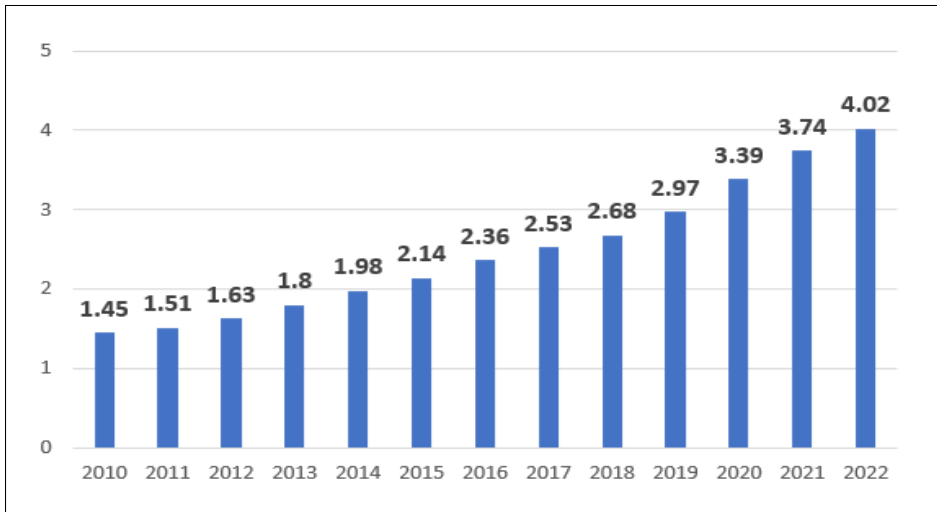
자료: Svensk Försäkring(<https://www.svenskforsakring.se/statistik/skadeforsakring/hem-villa-foretags-och-fastighetsforsakring/djurforsakringar/>), 검색일: 2023. 12. 12.

지급된 보험료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2년 지급된 보험금은 2021년 대비 8% 증가하였다.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이유에는 보험 계약 체결 증가, 평균 보험료 상승,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¹⁰¹⁾ Svensk Försäkring은 1937년 설립되어 보험회사와 기업 연금 회사로 구성된 산업 조직이다. 약 50개의 보험회사와 기업 연금회사가 Svensk Försäkring의 회원이며, 회원들은 스웨덴 보험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Svensk Försäkring(<https://www.svenskforsakring.se/om-oss/>), 검색일: 2023. 12. 12.).

〈그림 4-19〉 연간 동물보험 지급 보험금 총액

단위: 십억 크로나



자료: Svensk Försäkring(<https://www.svenskforsakring.se/statistik/hem-villa-foretags-och-fas-tighetsforsakring/djurforsakringar/>), 동물보험 통계(2023. 5), 검색일: 2023. 12. 12.

4.4. 주요 제도 현황

4.4.1. 동물등록제¹⁰²⁾

스웨덴의 모든 개와 고양이¹⁰³⁾는 ID태그¹⁰⁴⁾를 부착해야 하며, 스웨덴 농무부의 각각의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견, 반려묘 양육자는 반려견, 반려묘

¹⁰²⁾ 스웨덴 농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https://jordbruksverket.se/languages/english/swedish-board-of-agriculture/animals/identification-and-registration-of-animals/identification-and-registration-of-dogs>, 검색일: 2023. 12. 5).

¹⁰³⁾ 기존에는 개의 등록만이 의무였으나, 2023년 개정된 법에 따라 고양이 등록도 의무로 바뀌었다. 기존 SVERAK(Sveriges Kattklubbars Riksförbund) 및 SKK(Svenska Kennelklubben)에 자발적으로 고양이 등록한 경우에도 2023년 1월부터는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 태그 및 등록은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¹⁰⁴⁾ ID태그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개와 고양이의 귀에 문신을 함으로써 장착할 수 있다.

를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사육하는 경우 사육시설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 모두 생후 4개월이 되기 전에 마이크로칩이나 문신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없고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를 입양하는 경우 4주 이내에 표시¹⁰⁵⁾를 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이 된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는 4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에는 일정 비용이 발생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0크로나,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00크로나의 비용이 발생한다.

4.4.2. 진료표준화¹⁰⁶⁾

스웨덴의 수의사 협회는 수의사 및 수의대생을 위한 노동조합 및 이익단체로서 수의학과 관련하여 수의학적 진료 지침과 치료 표준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지침들에는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지침, 병원 내 동물 복지와 관련한 지침, 수의학 기록보관에 대한 지침 등이 있다. 다만, 미국의 예시와 같이 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지침은 스웨덴 수의사협회의 항생제 정책, 항생제 치료 선택 시 일반 지침, 취급 및 정보, 권장사항, 관련 용어 정의 등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내용 갱신일은 2021년 3월 21일이다.

표준진료비와 관련해서 스웨덴은 동물병원과 같은 단체가 표준진료비를 정하는 것을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¹⁰⁷⁾

¹⁰⁵⁾ ID태그와 관련하여 문신이 희미해지거나 칩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기존의 ID태그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¹⁰⁶⁾ 스웨덴 수의사협회(<https://www.svf.se/veterinarmedicin/svfs-riktlinjer/>), 검색일: 2023. 12. 4.

¹⁰⁷⁾ Gröna arbetsgivare(2020. 10. 27.), “Med anledning av rapportering i TV4 om prissättning i djursjukvården”.

4.4.3. 진료비 공개

스웨덴의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 공개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와 같은 예방 치료와 일반적인 진료행위의 경우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 치료는 동물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동물 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질병 및 부상 치료의 경우 수의사가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 진단 및 다양한 치료 옵션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는 사전에 가격을 병원에 문의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물 보건 인력에 관한 스웨덴 농무부 규정 및 일반 조언¹⁰⁸⁾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¹⁰⁹⁾

4.4.4. 진료기록부 공개

스웨덴은 동물보건인력에게 기록보관, 증명서작성,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진료기록부 공개와 관련하여 “동물 보건 인력에 관한 규정 및 일반 조언”에서 다음과 같이 발급 의무가 있다. 동물보건인력은 자격증을 갖춘 의사 또는 동물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인력을 말하며, 동물보건인력은 항상 환자 방문이나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진료기록부는 진료기록의 마지막 기재일로부터 계산하여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 공개와 관련하여 동물보건인력에게 진료기록에 대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양육자가 동물보건인력에게 정보를 제공하도

¹⁰⁸⁾ 스웨덴 농무부(<https://jordbruksverket.se/djur/personal-inom-djurens-halso--och-sjukvard/journalforing-intygsskrivning-tystnadsplikt-delegering-och-rapportering>), 검색일: 2023. 12. 5.

¹⁰⁹⁾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반려동물 양육자가 연락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와 법적으로 스웨덴 동물 복지법 또는 농무부의 동물 복지 규정에 따라 동물이 올바르게 사육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할 의무가 있음(스웨덴 농무부, <https://jordbruksverket.se/djur/personal-inom-djurens-halso--och-sjukvard/journalforing-intygsskrivning-tystnadsplikt-delegering-och-rapportering>), 검색일: 2023. 12. 5.).

록 허용한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글상자 4-11〉 “동물 보건 인력에 관한 규정 및 일반 조언” 중 인증에 관한 내용

2장 인증

일반 조항

- ① 동물 보건 직원에 속하고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요청 시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에 대해 수행된 검사, 평가 또는 치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②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는 자신이 발급하는 증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증명서가 가리키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는 본인이 알고 있거나, 직접 확인한 정보 외에는 인증할 수 없습니다.
- ③ 증명서 제공자는 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명서나 증거를 기반으로 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명서 제공자가 서명 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인증서나 증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④ 증명서 제공자는 증명서와 관련된 동물이나 증명서의 영향을 받는 회사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금전적 이해 관계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 ⑤ 증명서 제공자는 빈 인증서나 불안전하게 작성된 증명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자료: 스웨덴 농무부([https://jordbruksverket.se/Personal inom djurens hälso- och sjukvård/Journalföring, intygsskrivning, tystnadsplikt, delegering och rapportering](https://jordbruksverket.se/Personal%20inom%20djurens%20h%C3%A4lsa%20och%20sjukv%C3%A4rd/Journalf%C3%B6ring,%20intygsskrivning,%20tystnadsplikt,%20delegering%20och%20rapportering)), 검색일: 2023. 12. 11.

〈글상자 4-12〉 진료기록부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반려동물과 양육자에 대한 일반 사항

- ① 동물 사육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시설 번호
- ② 동물 종
- ③ 동물의 성별
- ④ 동물의 나이 또는 연령대
- ⑤ 동물의 정체성

각 검사 및 치료에 대해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

- ① 날짜
- ② 시간
- ③ 병력
- ④ 상태
- ⑤ 해당되는 경우 진단, 치료 이유 및 치료 유형
- ⑥ 검사나 치료를 실시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

동물을 약으로 치료할 때 기록에는 다음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약의 이름
- ② 강도와 복용량
- ③ 치료 기간
- ④ 휴약기간이 있는 경우, 식품용 동물을 치료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스웨덴 식품청의 규정에 따라 입력해야 함.

자료: 스웨덴 농무부([https://jordbruksverket.se/Personal inom djurens hälso- och sjukvård/Journalföring, intygsskrivning, tystnadsplikt, delegering och rapportering](https://jordbruksverket.se/Personal%20inom%20djurens%20h%C3%A4lsa%20och%20sjukv%C3%A4rd/Journalf%C3%B6ring,%20intygsskrivning,%20tystnadsplikt,%20delegering%20och%20rapportering)), 검색일: 2023. 12. 11.

5. 시사점

우리나라 펫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반려동물 및 펫보험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장한 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세계 최대 국가이며 펫보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제와 라이선스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동물병원협회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진료표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비 공개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미국 동물병원협회에서 2~3년마다 평균 진료 비용을 제시하는 “수의사 수수료 참조(The Veterinary Fee Reference)” 발간하고 있다. 진료기록부 공개는 의무화되어 있고 주마다 차이가 있고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최소 3년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상황 및 제도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국가이다. 일본의 펫보험 역사는 199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5년 정도 빠르고 펫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펫보험 전문회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펫보험 회사의 다양한 사업 구조로 보인다. 일본의 동물등록제는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진료표준화는 일본수의사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료비 공개 또한 일본 수의사협회에서 소동물에 대한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가정 사육 동물(개·고양이)의 진료 요금 실태 조사 결과’를 1999년부터 세 차례 실시하여 발표하였고, 일본 최대 펫보험 회사인 애니콤(Anicom)사에서는 자사 기준 종별, 연령별, 질병별 평균 진료금액을 무료로 인터넷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진료기록부 공개에 있어서 일본 또한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가 없어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1년인 우리나라보다 길고 농림수산성 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필요를 인정할 때 수의사에 대하여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만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없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스웨덴은 반려동물 최대의 복지 국가 중 하나이다. 스웨덴에서는 1890년 가축

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보험상품을 출시하였고 이후 1924년에는 개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하여 현재의 펫보험의 시초가 되었다. 동물등록제 관련하여 개와 고양이 모두 생후 4개월이 되기 전에 마이크로칩이나 문신을 표시해야 하며, 진료표준화는 스웨덴 수의사협회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 공개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와 같은 예방 치료와 일반적인 진료행위의 경우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지하고 있다. 질병 및 부상 치료의 경우 수의사가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 진단 및 다양한 치료 옵션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는 사전에 가격을 병원과 문의를 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 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해외사례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진료표준화 및 진료비 공개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고도의 전문성과 자료 갱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수시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료표준화 및 진료비 공개에 있어서 정부는 일반적인 원칙 수립과 필수 항목에 대해서만 제도로 규정하고 수의사회, 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민간 부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진료기록부 공개에 있어서는 보존기간 연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진료부 및 검안부 검사 권한 부여를 추진하여 정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기록부 공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23〉 국가별 펫보험 관련 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스웨덴
동물등록제	• 의무화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 의무화 (외장형 인식표(tag), 내장형 마이크로칩) • 반려동물 라이선스 제도 확대	• 의무화 (외장형 인식표(tag), 내장형 마이크로칩) • 판매되는 개·고양이 내장형마이크로칩 의무화	• 의무화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문신)
진료표준화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진료 절차 표준안 및 동물병원 코드체계 추진 중	• 미국 동물병원협회 (AAHA) 가이드라인	• 수의사협회 진료 지침 제시	• 수의사협회 진료지침 치료표준제시
진료비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 미국 동물병원협회 2~3년마다 평균 진료 비용 공개	• 수의사협회 조사(세 차례 발표) • 민간보험회사 (애니콤) 자체 자료 온라인 공개	• 의무화 아님, 동물병원 개별 공개 및 고객 상담을 통해 결정
진료기록부 공개 (보존기간)	• 의무화 아님 (1년간 보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검사 권한	• 의무화 (주마다 차이가 있음, 최소 3년)	• 의무화 아님 (3년 이상 보관) • 농림수산성 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 검사 권한	• 의무화 (최소 5년 보관)

자료: 저자 작성.

5

펫보험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1.1. 요약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지난 기간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복지 개선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늘어났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비용에서 있어 펫푸드와 동물병원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있어서도 펫푸드 산업과 수의 서비스 산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부분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푸드와 수의서비스에 대한 부담 완화는 중요한 요소이며 농식품 산업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복지 개선 및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펫보험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는 펫보험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특히 병원비 부담 및 불확실성 완화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수의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산업이 금융 산업의 일종으로 수의 서비스 산업의 신뢰있는 거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펫보험 활성화는 신뢰받는 수의 서비스 산업의 필요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펫보험 활성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반려동물 및 펫보험 현황, 펫보험 이용 실태조사, 펫보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펫보험은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의 질병 혹은 상해 발생 시 입·통원비와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말한다. 그리고 펫보험 시장에는 반려동물 보호자, 정부, 수의사, 보험사,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동물병원용 전자차트)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펫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반려동물 보험자는 보험료 납입 정도에 따라 수의 서비스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는 반려동물에 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용 전자차트를 이용하여 기록하며, EMR 기업은 이러한 전자차트를 수의사의 동의에 따라 펫보험 가입자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의사는 진료항목이 기재된 명세서와 영수증 등을 제공하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자는 이를 펫보험 회사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등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및 진료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업법’을 통해 보험산업 및 펫보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러한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펫보험 시장은 2000년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에서 ‘애완동물지킴이 보험’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기간 손해율 악화로 펫보험 판매가 중단된 경험도 여러 번 존재한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의 반려동물 복지 개선 및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펫보험 가입자수와 보험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아직 낮은 수준의 보험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자의 펫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 6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현황, 동물병원 지출 현황, 펫보험 가입 실태 및 가입 의향, 펫보험 지불의사 금액, 펫보험 관련 제도 인식, 동물병원 이용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자의 주 입양 경로가 가정입양과 펫샵을 통한 입양이고, 반려동물 관련 지출의 평균값은 높은 수준이지만 다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평균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비율이 85.3%로 높은 비율인 것이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친밀도 및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고액 수술(100만 원 이상)을 경험 한 양육자는 전체의 24.8%로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고액 수술(100만 원 이상)을 경험한 양육자의 병명은 다양하게 조사되었으며, 가장 많은 응답을 대답한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응답자별로 비용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펫보험 관련하여 인지도와 가입 의향은 높게 조사되었으나 ‘보험료에 대한 납부 부담’, ‘적절한 판매 상품 부재’, ‘펫보험을 신뢰할 수 없음’, ‘동물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음’ 등이 응답되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함이 나타났다. 펫보험 관련 제도, 반려동물등록제, 진료표준화,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료기록부 공개 등 네 가지에 대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인지와와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펫보험 관련 제도 인지도(4점 척도)는 각각 3.31, 2.32, 2.49, 2.21로 조사되었고, 필요성(5점 척도)은 각각 4.23, 4.34, 4.59, 4.47로 조사되었다. 인지도의 경우 현재 반려견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반려묘는 시범사업 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필요성에 있어서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료기록부 공개 등 동물병원 이용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높게 응답되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비 지출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동물병원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소득이 동물병원비 지출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도 병원비 지출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과거 및 현재 많은 수의 반려동물을 양육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물병원 지출액이 높다고 볼 수 없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소득, 학력, 과거 반려동물 양육 마릿수 등과 상관없이 노령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병원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연령을 고려한 병원비 경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펫보험 가입 의향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양육 가구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의향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먼저 펫보험 가입 의향 분석 결과 동물병원에 대한 지출액이 높거나 고액의 수술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일수록 가입 의향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한 펫보험 상품 개발의 필요성 있고, 반려동물 연령이 낮을수록 가입 의향이 높으므로 어린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펫보험 홍보 활동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펫보험 가입 필요성 분석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동물병원 진료 경험이 있을 경우 펫보험의 가입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동물병원 진료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도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판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펫보험 인지도가 높더라도 가입 필요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는 점은 펫보험 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펫보험 가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펫보험 지불의사금액(WT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지불의사는 4만 7,566원/월(표본 조정 시 4만 5,322원/월)이 추정되었다.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지불의사금액이 반려동물 가구 특성 중 가구소득 수준보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 반려동물과의 친밀도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높은 경제적 능력이 높은 펫보험 지불의사금액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반려동물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지불의사금액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반려동물이 노령화될수록 펫보험의 가격 상승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상품의 속성에 따라 양육 가구의 차별적인 선호가 있어 펫보험 상품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선호를 고려한 특화된 상품 개발 및 판매의 필요성이 있다.

반려동물 산업은 입양·사료·진료 등 연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필요로 하는 선진국형 산업으로 향후 국내외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펫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반려동물 및 펫보험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장한 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세계 최대 국가이며 펫보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제와 라이선스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동물병원협회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진료표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비 공개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미국 동물병원협회(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AAHA)에서 2~3년마다 평균 진료 비용을 제시하는 “수의사 수수료 참조(The Veterinary Fee Reference)”를 발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950개 진료소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500개 이상의 수의 서비스에 대해 항목별로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진료기록부 공개는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마다 차이가 있고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최소 3년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상황 및 제도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국가이다. 일본은 과거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잘 키우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고령화 및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최근 반려동물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증가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경향으로 인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펫보험 역사는 199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5년 정도 빠르다. 그렇지만 펫보험 시장

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펫보험 전문회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펫보험 회사의 다양한 사업 구조로 보인다. 펫보험 회사가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동물등록제는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진료표준화는 일본수의사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료비 공개 또한 일본 수의사 협회에서 소동물에 대한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가정 사육 동물(개·고양이)의 진료 요금 실태 조사 결과’를 1999년부터 세 차례 실시하였다. 또한 일본 최대 펫보험 회사인 애니콤(Anicom) 사에서는 자사 기준 종별, 연령별, 질병별 평균 진료금액을 무료로 인터넷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진료기록부 공개에 있어서 일본 또한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가 없어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1년을 보존하고,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만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없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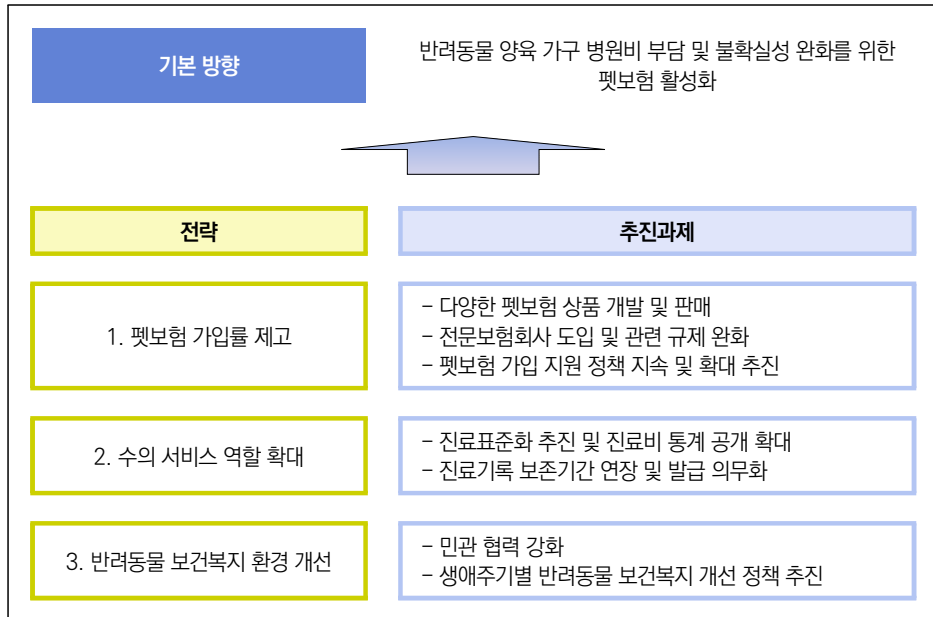
스웨덴은 반려동물 최대의 복지 국가 중 하나이다. 스웨덴에서는 1890년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보험상품을 출시하였고 이후 1924년에는 개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하여 현재의 펫보험의 시초가 되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개와 고양이의 펫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개와 고양이 모두 생후 4개월이 되기 전에 마이크로칩이나 문신을 표시해야 하며, 진료표준화는 스웨덴 수의사협회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 공개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와 같은 예방 치료와 일반적인 진료행위의 경우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지하고 있지만, 예방치료는 동물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동물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질병 및 부상 치료의 경우 수의사가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 진단 및 다양한 치료 옵션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는 사전에 가격을 병원과 문의를 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 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2. 기본 방향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펫보험 활성화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본 방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병원비 부담 및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펫보험 활성화이다. 기본적으로 펫보험 활성화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병원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에서 펫푸드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의 서비스 산업의 신뢰도를 높여 수의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기본 방향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으로 펫보험 가입률 제고, 수의 서비스 역할 확대, 반려동물 보건복지 환경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펫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및 판매, 전문보험회사 도입 및 관련 규제 완화, 펫보험 가입 지원 정책 지속 및 확대 추진 등이다. 수의 서비스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진료표준화 추진 및 진료비 통계 공개 확대,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및 보존기간 연장이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보건복지 환경 개선 추진과제로 민관(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수의협회, 동물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협력 강화, 생애주기별 반려동물 보건복지 개선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그림 5-1〉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자료: 저자 작성.

2. 세부 추진 과제

2.1. 펫보험 가입률 제고

2.1.1.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및 판매

펫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펫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판매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펫보험 상품은 다른 나라 펫보험 상품에 비해 상품의 종류가 적고 연령에 따른 가입 제한이 존재한다.

〈표 5-1〉 주요 반려동물보험 상품 비교

구분	A사	B사	C사
견종 특성 반영	특성 반영 없음(일반 할증 그룹으로만 구분)		
보장한도	수술 건당 100~150만 원	수술 건당 200~250만 원	수술 건당 150만 원
보장비율	50~70%	50~80%	70%
보험료(연)	평균 약 38만 원	평균 약 45만 원	평균 약 44만 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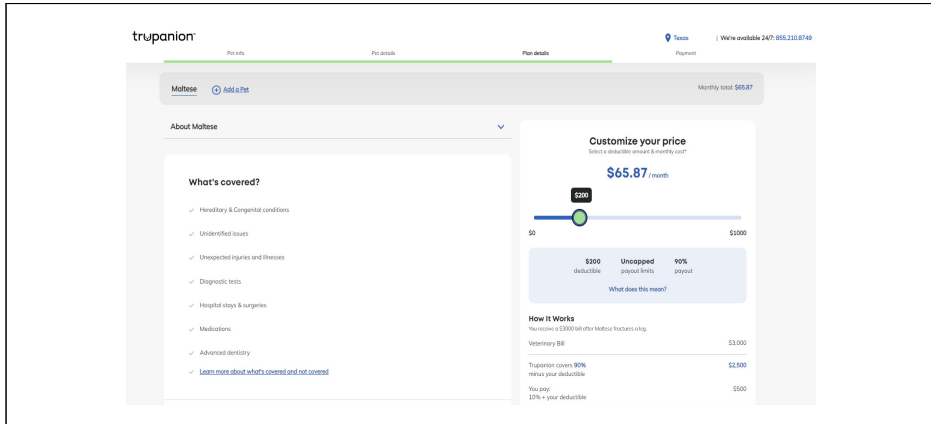
〈표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펫보험은 상품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가격대가 연평균 38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반려동물 양육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펫보험이 상품에 따라 650엔/월~3,910엔/월까지 다양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결국 국내 펫보험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을 가져온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펫보험 영업환경이 다르고 펫보험사의 보험료가 보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보험사의 상품에 대한 보장한도 및 보장범위 변경을 통해 펫보험 상품과 가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펫보험에 대해 낮은 지불의사금액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취리히 상품(말티즈 0세 기준)은 월 650엔이 보험료이지만 암, 양성종양, 골절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월 1,480엔의 경우, 암, 양성종양, 골절, 탈구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¹¹⁰⁾ 다만, 사고당 3만 엔의 면책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보상비율은 100%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자기부담금(1만 원, 2만 원, 3만 원)과 차이가 존재한다. 트루패니언(Trupanion)의 보험 상품 또한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0~1,000달러까지 보험 가입자 설정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반려동물 양육자의 펫보험 지불의향 분석에서도 양육 가구의 펫보험 지불의사액은 47,566원으로 추정(표본조정 지불의사액은 45,822원)¹¹¹⁾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 펫보험

110) Zurich(<https://www.zurichssi.co.jp/pet/quote/>), 검색일: 2023. 12. 18.

111) 한국개발연구원(2015)은 조건부가치측정법 활용 시 추정된 지불의사액에 대해 가중치를 고려한 표본조정 지불의사액을 제시하였다(장진영 외, 2017).

상품은 판매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고 펫보험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이 낮은 반려 동물 양육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5-2〉 트루패니언 펫보험(0세 말티즈 수컷기준)



자료: Trupanion(<https://www.trupanion.com/enrollments/plan-detail?refnum=fc173658-4d56-4187-97d6-cfe39c409924>), 검색일: 2023.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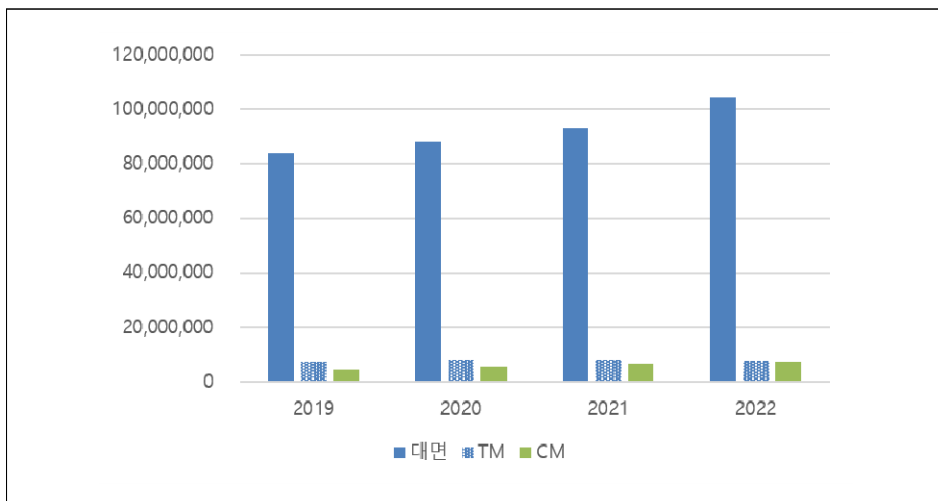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같이 웰니스(Wellness, 예방접종, 조기건강검진,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상담, 치아 관리 등이 포함된 종합 플랜 등) 또는 상담의 기능을 포함하는 펫보험 상품을 제공하여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고액의 수술(100만 원) 경험은 높은 편은 아니다. 또한, 동물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펫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도 높게 조사되었다. 펫보험의 웰니스 또는 상담 기능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동물병원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2023. 10. 16.)에서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를 통해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다양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정책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판매 방식에 있어서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온라인 판매채널 가입이 주요 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케팅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펫보험 가입 선호방식으로 온라인을 선호한다고 다수(전체의 62.5%)의 반려동물 양육자가 응답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은 주 판매 방식이 대면 방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중 87.1%가 대면(보험설계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TM(텔레마케팅, 전화) 6.6%, CM(사이버마케팅, 모바일·홈페이지) 6.3%보다 비중이 매우 높다<그림 5-3>. 대면 방식 판매에서는 현실적으로 펫보험이 사람보험(인보험)보다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작아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판매 유인이 낮다.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자의 펫보험 가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보험사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향상 및 소비자 편의성 확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펫보험사의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개체 식별 개선, 온라인 가입 안정망 구축,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5-3〉 손해보험 판매방식별 보험료 수입

단위: 백만 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 2023.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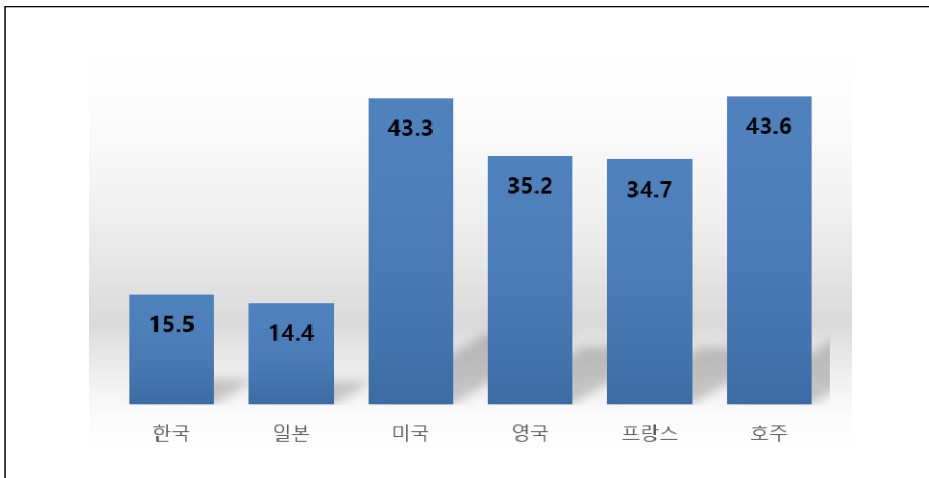
2.1.2. 전문보험회사 도입 및 관련 규제 완화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펫보험 전문보험회사 등 여러 펫보험 회사가 참여하여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가 참고가 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반려동물 양육 환경이 비슷하다. 펫보험 도입 시기가 1990년도로 우리나라보다 빠르지만, 미국·스웨덴·영국 등에 비해 도입 시기가 늦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경제 성장, 1인 가구, 고령화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점, 인구 대비 반려동물 수도 많은 편이 아니다<그림 5-4>. 우리나라 또한 반려동물의 개체 수가 적고,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 편차도 크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도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펫보험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고 과거 펫보험 상품 판매 중단 경험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펫보험 회사의 영업환경이 다른 국가에 비해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한다.

〈그림 5-4〉 인구 대비 반려동물 수 비중(%)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anicom(<https://www.anicom.co.jp/ir/>), 2022-2024 애니콤 중기계획, 검색일: 2023. 12. 3.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환경이 아직 덜 성숙된 것을 감안하여 펫보험 상품 판매 의사 및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존 및 신규회사가 펫보험 시장에 참여하여 다양한 연관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 제도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펫보험 회사가 펫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펫보험 전문보험회사이며 일본 펫보험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인 애니콤 손해보험과 모회사인 애니콤홀딩스는 컨설팅, 사육자와 고객 연결, 반려동물 연구, 병원 진료기록 관리 시스템 판매, 동물병원 운영¹¹²⁾ 등 반려동물 건강 관련 생애 전 단계 사업을 영위하며 펫보험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 관련 진료비 통계 공개¹¹³⁾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펫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펫보험 전문회사 진입뿐만 아니라 펫보험 전문회사가 관련 산업 업종을 영위할 수 있게 보험업법의 제도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¹¹⁴⁾ 이러한 제도 완화 및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민간 보험사 또는 수의업계 주도의 펫보험 활성화와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이 향후 민간 기업 주도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112) 애니콤 홀딩스는 자회사를 통해 동물병원을 일본 내 52개 소유하고 있으며, 전국 동물병원 6,789개와 제휴를 통해 간편 정산·청구를 지원함(이상우, 2023).

113) 동물진료비닷컴(<https://www.anicom-navi.com>), 검색일: 2023. 12. 18.

114) 법률적 부분에 추가적인 논의는 양승현(2023), 이상우(2023)을 참고하기 바람.

2.1.3. 펫보험 가입 지원 정책 지속 및 개발

현재 정부의 직접적인 펫보험 가입 지원 정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기견 펫보험 지원 사업이 있다. 지자체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유기견 입양 시 1년을 한도로 펫보험 가입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펫보험 가입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¹¹⁵⁾ 또한, 지자체에서는 유기견 입양자의 펫보험 가입에 앞서 동물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유기견에 대해 입양에 필요한 치료 및 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펫보험 가입 입양견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펫보험이 기본적으로 공동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토대로 보험료가 계산된다는 점에서 펫보험을 이용하는 다른 계약자의 보험료 경감효과로도 작용한다.

펫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기견 펫보험 지원 사업 외에 정부 소유의 봉사견¹¹⁶⁾에 대한 펫보험 지원 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¹⁷⁾ 동물보호 및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 소유의 봉사견(장애인 보조견, 119구조견, 경찰견 등)에 대한 펫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펫보험 시장에 대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장애인 보조견과 은퇴견을 입양한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비용 절감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고양시에서는 2021년부터 은퇴한 봉사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¹¹⁸⁾ 이러한 지자체의 사업을 참고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은퇴한 봉사견에 대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펫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치료비 경감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소유의 봉사견 및 은퇴견에

115) 서울은 2020년부터 운영하였고, 창원은 2021년, 대구는 2022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함.

116) 동물보호법 제2조 6항에 따라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17) 2022년 기준 봉사동물은 약 600여 마리로 추산됨(데일리벳(2023. 6. 8.), “군·구·조·은·퇴 후 새 삶 지원, ‘보호소’ 내세운 펫샵 금지”).

118) 고양일보(2021. 10. 27.), “고양시, 은퇴 특수목적견 의료비 지원한다”.

대한 펫보험 지원 사업은 우리사회의 공익에 기여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의 관점에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¹¹⁹⁾

제3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반려동물 병원비 지출과 소득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소득에 상관없이 병원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사회 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동물병원비 지출 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¹²⁰⁾ 다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펫보험과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려동물의 양육자에 대한 정서적 효과¹²¹⁾를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펫보험 지원 사업은 양육 가구에 대한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보건복지에도 기여하고, 펫보험 저변 확대를 가져온다.

119) 정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이용 정보 및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에 제공할 수 있음.

120)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정선군 등 개별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최근 실시함. 예를 들면, 서울시는 2021년 시범운영 이후 2023년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함(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0871), 검색일: 2023. 12. 26.).

121) 반려동물의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음 (Podbersceck, 2006; Friedman and Son, 2009; 김세영·박형인, 2017 등).

2.2. 수의 서비스 역할 확대

2.2.1. 진료 표준화 추진 및 진료비 통계 공개 확대

펫보험 활성화 과정에서 수의 서비스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제4장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스웨덴,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료 표준화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진료 표준화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 이용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자와의 소송에서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과 자료 갱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필요시마다 수의사와의 협력 없이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진료 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의 일반적인 원칙 수립하에 수의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진료비 통계 공개 관련하여 수의사회의 주기적인 진료비 통계 공개가 필요하다. 미국 동물병원협회(AVMA)에서는 2~3년마다 평균 진료 비용을 제시하는 “수의사 수수료 참고(The Veterinary Fee Reference)”를 발간하고 있다. 2020년까지 11번 발간하였다. 일본 수의사회에서는 신뢰도 높은 자료 제공을 위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1999년, 2015년, 2021년) ‘가정 사육 동물(개·고양이)의 진료 요금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료비 통계 현황을 공개하였다.

〈그림 5-5〉 미국 동물병원 협회와 일본 수의사회의 진료비 공개 예시

〈미국 동물병원 협회〉			
TABLE 1.1 2020 AVERAGE AND MEDIAN FEES FOR ALL PRACTICES, CONTINUED			
SERVICE	2020 AVERAGE FEES	2020 NUMBER OF RESPONDENTS	2020 MEDIAN FEES
General Dental Services			
Extraction of Moderately Loose Premolar Tooth	\$40.40	231	\$36.25
Extraction of Firmly Implanted Upper Fourth Premolar Tooth	\$100.22	232	\$75.00
Postoperative Injectable Antibiotic	\$33.03	161	\$30.00
Postoperative Antibiotics, One-Week Supply	\$33.10	222	\$30.00
CHAPTER 7: LABORATORY SERVICES			
General Laboratory Services			
Lab and Blood Collection: Canine	\$15.35	105	\$15.00
Lab and Blood Collection: Feline	\$15.12	110	\$15.00
Lab and Blood Collection: Ferret	\$11.35	20	\$12.50
Laboratory Tests Completed In-House			
Blood Parasite Testing: <i>Ehrlichia</i>	\$48.89	89	\$45.00
CBC, Automated	\$51.33	195	\$50.00
CBC with 8-12 Chemistries	\$123.51	115	\$120.00
CBC with 16-24 Chemistries and T4	\$172.39	91	\$180.00
CBC with Manual Differential	\$59.45	69	\$55.00
CBC, with No Differential	\$53.63	111	\$50.00

〈일본 수의사회〉			
イ 診療料金に関する質問			
あなたの診療施設における各料金をお知らせください。			
【A. 診療料】 初診料			
1. 無料	23件(2.1%)	12. 17,500~20,000円未満	0件(0.0%)
2. 500円未満	5件(0.5%)	13. 20,000~25,000円未満	0件(0.0%)
3. 500~1,000円未満	155件(14.1%)	14. 25,000~30,000円未満	0件(0.0%)
4. 1,000~2,000円未満	833件(76.0%)	15. 30,000~40,000円未満	0件(0.0%)
5. 2,000~3,000円未満	65件(5.9%)	16. 40,000~50,000円未満	0件(0.0%)
6. 3,000~5,000円未満	9件(0.8%)	17. 50,000円以上	0件(0.0%)
7. 5,000~7,500円未満	1件(0.1%)	18. 対応外	0件(0.0%)
8. 7,500~10,000円未満	1件(0.1%)	無回答	2件(0.2%)
9. 10,000~12,500円未満	1件(0.1%)	全体	1096件(100.0%)
10. 12,500~15,000円未満	1件(0.1%)	[中央値:	1500円]
11. 15,000~17,500円未満	0件(0.0%)		
【A. 診療料】 再診料			
1. 無料	54件(4.9%)	12. 17,500~20,000円未満	0件(0.0%)
2. 500円未満	54件(4.9%)	13. 20,000~25,000円未満	0件(0.0%)
3. 500~1,000円未満	848件(77.4%)	14. 25,000~30,000円未満	0件(0.0%)
4. 1,000~2,000円未満	125件(11.4%)	15. 30,000~40,000円未満	0件(0.0%)

자료: 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2020); 일본 수의사회(<http://nichiju.lin.gr.jp/small/ryokin.html>), 검색일: 2023. 12. 4.

우리나라 수의사협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진료비 통계 현황을 선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료항목 구분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¹²²⁾ 또한, 공익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 우리나라 동물

¹²²⁾ 진료항목 구분 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미국 동물병원협회와 일본 수의사회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병원비 지출 분석 결과를 보면 동물병원비 지출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당 평균 동물병원비 지출액이 미국이나 일본의 수준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복지 측면에 있어서도 동물병원비용이 중요하고 진료비 통계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을 시사한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료비 현황 공개 시스템¹²³⁾과는 별도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진료비 공개가 의사협회 또는 동물병원 협회 주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법’ 제20조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¹²⁴⁾

2.2.2. 진료기록 보존기간 연장 및 발급 의무화

수의 서비스의 역할 확대를 위한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및 보존기간 연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수의사법’과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추진 일정에서 진료비 관련하여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용 공시, 진료내역·기록 발급 등은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진료비 투명화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¹²³⁾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 검색일: 2023. 11. 1.

¹²⁴⁾ ‘수의사법’ 제20조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수의사법(<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검색일: 2023. 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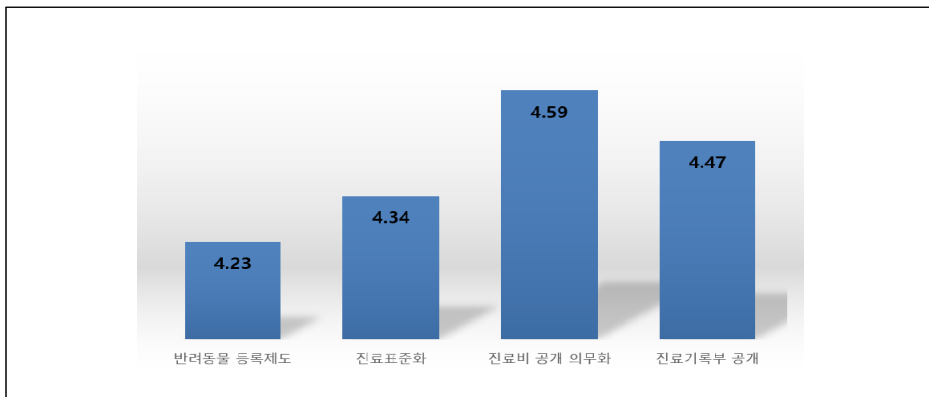
〈표 5-2〉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추진 일정

구분	'23년(~12월)	'24년 1~6월	'24년 7~12월	'25년~
진료비	·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23년중~) · 진료비용 공시('23.1월~)	· 진료항목 표준 분류체계 고시('24.1월~)		· 진료항목 표준화 지속 보완
	· 진료내역 기록 발급 등 근거마련 검토('수의사법' 등 개정 추진)	· 진료내역 기록 발급 등 근거마련 추진 및 시행(※ '수의사법' 개정 전제 시)		
상품 개발	· 건강관리 리워드 확대 · 보험상품 개선방안 검토·준비 · 반려동물 특화보험사 허용('23. 下~)	· 맞춤형 보험상품(1단계) 판매	· 맞춤형 보험상품(1단계) 보완	
		· 맞춤형 보험상품(2단계) 개발 검토(인프라 구축 상황 등과 연계하여 출시 검토)		
기타 인프라 구축	· 보험·수의업계 협약 체결, 제휴관계 구축 등 추진	· 진료행위·통계·청구절차 등 제휴관계 지속 추진		
	· 반려동물보험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 세부 방안 검토 및 준비	·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	· 청구간소화서비스 개시	· 청구간소화 참여 확대
	· 반려동물 등록제 ICT Sandbox 운영(~'24년)			· 등록제 법제화 검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반려동물 양육자는 ‘동물병원 이용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기록부 공개의 필요성이 높다고 조사되었다(5점 척도에서 4.47점). 다만, 진료기록부 공개는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진료비 투명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보다 중장기적으로 명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5-6〉 동물병원 이용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5점 척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먼저, ‘수의사법’과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우리나라의 진료부 및 검안부 보존기간은 1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편이며,¹²⁵⁾ 공개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공개가 의무화가 아닌 일본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검사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만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및 수의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없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수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수의사법 시행규칙’의 진료부 및 검안부 보존기간을 3년으로 먼저 개정하고,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최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검사권을 추

가하거나 진료기록부 공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진료기록 보존기간 연장 및 정부의 검사권 추가는 진료기록부 공개가 없더라도 진료기록 관련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기록부 공개 관련하여 대한수의사회의 윤리강령 개정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4장 해외 사례 중 미국 수의사협회(AVMA)의 ‘수의학 윤리 원칙(Principles of veterinary medical ethics of the AVMA)’에서 “수의사는 고객이 요청할 때 진료기록 사본이나 요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와 같은 조항 추가를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의 윤리강령(The General Principles of Veterinarian’s Ethics)” 중 “보호자에 대한 의무”에 수의업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수의사법’ 개정과 상관없이 수의업계 주도로 진료기록부 공개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준비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소동물 중심의 수의 서비스로 전환되었으며, 반려동물이 병에 걸렸을 경우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자가 치료에 대한 우려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대한 수의 서비스 정보 제공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기록부 공개는 진료 표준화,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과잉진료 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

¹²⁵⁾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음. 보통 최소 2년이며, 텍사스주의 경우 마지막 진료 이후 5년임. 일본은 3년, 스웨덴은 5년임.

되지만, 수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진료부 및 검안부 보존기간 연장과 정부의 검사권 추가를 먼저 추진하고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의 윤리강령” 및 ‘수의사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

2.3. 반려동물 보건복지 환경 개선

2.3.1. 민관 협력 강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펫보험 시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수의협회, 동물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 기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료비 현황, 표준 진료체계, 반려동물 양육 현황 등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업무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강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로 진료비 현황 공개와 표준 진료체계를 추진하는 것보다 원론적인 부분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법률과 제도로 설정하고, 민간이 세부적인 부분은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의업계의 자체적인 통계자료 공개뿐만 아니라 일본의 애니콤사가 자사의 질병 치료비 통계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에서 진료비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펫보험의 통계자료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 공개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¹²⁶⁾ 또한, 보험

¹²⁶⁾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의 일종인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간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됨.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

사에서도 진료비에 대한 자료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정보 공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가이드라인¹²⁷⁾을 견주에게 제공하고, 관련 진료행위 및 비용에 관한 정보를 보험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¹²⁸⁾ 추후 관련 진료행위 및 비용을 보험사뿐만 아니라 공공에게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의업계와의 협력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5-7〉 반려동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자료: 조선비즈(2023. 11. 15.), “손보협회, 반려동물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¹²⁷⁾ 미국은 동물병원협회에서 제공함(미국 동물병원협회(<https://www.aaha.org/your-pet/pet-owner-education/aaha-guidelines-for-pet-owners/>), 검색일: 2023. 12. 19.).

¹²⁸⁾ 조선비즈(2023. 11. 15.), “손보협회, 반려동물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2.3.2. 생애주기별 반려동물 보건의복지 개선 정책 추진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동물병원 이용 확대를 위한 입양 교육, 예방접종,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 이용은 편차가 큰 편이다. 이러한 현실은 반려동물 진료 관련 제도 변화가 수의사업계의 책임감 증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거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펫보험 가입 필요성을 낮추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과정에서 동물병원 방문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노령견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 방문 빈도 및 반려동물의 복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펫보험 가입 필요성을 높여 펫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령견에 대한 개체 파악을 통한 혜택은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고 반려동물 유기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반려동물의 노령화에 따라 병원비용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공개, 진료체계 표준화,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있어서 노령 반려동물의 발생빈도가 높은 항목을 고려하여 추진할 경우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병원비 부담 완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반려동물 양육은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라이선스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비양육 가구의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 유기·유실 방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동물병원 방문, 건강검진 및 예방과 연계된 복지 개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설문조사표

Screening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2) 여자

SQ2. 귀하께서는 올해 만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 1) 만19세 미만 ▶ 조사종료 2) 만20~29세 3) 만30~39세
4) 만40~49세 5) 만50~59세 6) 만60~64세
7) 만65세 이상 ▶ 조사종료

SQ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SQ3-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농어촌 지역입니까?

- 1) 도시지역 2) 농어촌 지역(읍면지역)

SO4.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다세대/빌라/기타

[본 설문 전 별도 페이지로 제시]

■ 반려동물이란?

애완/반려용 포유류(개, 고양이, 햄스터 등)/조류(앵무새, 십자매 등) / 파충류(거북이, 도마뱀 등) / 양서류(개구리, 우파루파 등) / 어류(금붕어, 열대어 등) 모두 포함합니다.

SQ5. 현재 귀하께서는 댁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십니까?

1) 예 ▶ A1-1로

2) 아니오 ▶ 조사종료

SQ6. 현재 귀댁에서는 어떤 반려동물을 몇 마리나 기르고 있습니까?

종류	SQ6-1. 현재 반려동물 양육여부	SQ6-2. 현재 양육 중인 마리수
1. 개	☐	()마리
2. 고양이	☐	()마리
3. 조류	☐	()마리
4. 양서류	☐	()마리
5. 열대어	☐	()마리
6. 기타	☐	()마리

[Prog: SQ6=1(개) or 2(고양이) 미응답자 조사종료]

A. 반려동물 양육 현황

A1. 현재 귀댁에서는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의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종류	수컷	암컷
1. 개	()마리	()마리
2. 고양이	()마리	()마리

A2-1. 현재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개의 품종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마리인 경우, 품종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응답]

- ① 몰티즈 ② 푸들 ③ 믹스견 ④ 포메라니안
- ⑤ 치와와 ⑥ 시추 ⑦ 진돗개 ⑧ 비송 프리제
- ⑨ 골든리트리버 ⑩ 기타()

A2-2. 현재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의 품종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마리인 경우, 품종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응답]

- ① 코리안숏헤어 ② 페르시안 ③ 러시안블루 ④ 삼
- ⑤ 터키쉬앙고라 ⑥ 스코티쉬폴드 ⑦ 기타()

A3. 현재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은 ‘반려동물등록제도’에 등록되어 있으십니까?

- ① 모두 등록되어 있다
- ② 일부 등록, 일부 미등록되어 있다
- ③ 모두 미등록되어 있다

A4. 현재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입양하신 경로는 어디입니까? 반려동물 수가 여러 마리인 경우, 주로 입양하신 경로로 응답해주세요. [단수응답]

- ① 가정입양 ② 브리더를 통한 입양
- ③ 펫 샵 통한 입양 ④ 보호소/유기동물 입양

**A5. 현재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은 몇 년생입니까?
()년생**

A6. 현재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외, 과거 귀댁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양육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종류와 마리수를 적어주십시오. [중복응답]

- ① 개(마리)
- ② 고양이(마리)
- ③ 현재 기르는 반려동물 외 과거 양육경험 없음

B. 반려동물 관련 지출 및 동물병원 이용 현황

B1. 현재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기준으로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지출 항목	월평균 지출 금액	비중
1. 전체 양육비		100%
2. 사료 및 간식(Food)	자동 계산	()%
3. 병원비	자동 계산	()%
4. 장난감	자동 계산	()%
5. 미용	자동 계산	()%
6. 기타	자동 계산	()%

[B1=3(병원비) 1% 이상 응답한 경우 B2=8(동물병원 미방문) 응답 불가]

B2. 현재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전체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 ① 주 1회 이상 ② 2~3주에 1회 ③ 한 달에 1회 정도
 ④ 2개월에 1회 정도 ⑤ 3개월에 1회 정도 ⑥ 4~6개월에 1회 정도
 ⑦ 7개월~1년에 1회 정도 ⑧ 동물병원에 가본 적 없음

[B2=8(동물병원 미방문자) 응답자 제외]

B3. 동물병원 방문시 1회 평균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반려동물이 많은 경우 한 마리당 평균 지출 비용을 작성해주세요.

- ① 5만원 미만 ② 5만원~10만원 미만
 ③ 10만원~15만원 미만 ④ 15만원~20만원 미만
 ⑤ 20만원~25만원 미만 ⑥ 25만원 이상

[B2=8(동물병원 미방문자) 응답자 제외]

B4. 현재 귀댁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 ① 종양 ② 심장 질환 ③ 당뇨 ④ 골절
 ⑤ 이물질 섭취로 인한 질환 ⑥ 관절염 ⑦ 치아 질환
 ⑧ 방광염 ⑨ 안과 질환 ⑩ 신장 질환 ⑪ 예방접종
 ⑫ 기타()

B5. 동물병원 선택의 주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 ① 평균 진료비 ② 거주지와의 거리 ③ 친절한 응대
 ④ 의사의 약력 ⑤ 지인 추천 및 이용 후기 ⑥ 병원규모 및 시설
 ⑦ 진료과목 ⑧ 24시간 진료 여부 ⑨ 기타()

B6. 반려동물의 질병에 걸렸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보통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 ① 질병에 걸렸는지 알기 어려움
 ② 동물병원 방문 없이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임
 ③ 동물병원에 데려감
 ④ 기타()

B7. 귀하와 반려동물 간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매우 불편함	불편함	보통	친밀함	매우 친밀함
①	②	③	④	⑤

B7-1.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같은 대우가 필요없음	〈--사람과 같은 대우가 어느 정도 필요함--〉			사람과 같은 대우가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B8. 현재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 100만 원 이상의 수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100만 원 이상의 수술을 경험한 횟수: 회) [→B8-1로 이동]
 ② 아니요 [→B9로 이동]

[B8=1 응답자]

B8-1.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수술의 병명과 비용은 어떻게 되십니까?

100만 원 이상의 수술이 필요했던 병명	()
가장 컸던 수술 비용	()만원

B9. 현재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의 질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주일 이상 방치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B10. 현재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응급진료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B11. 현재 귀댁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1박 이상 입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C. 펫보험 관련 현황

C1. 귀하께서는 펫보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② 명칭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명칭만 들어본 적 있다
 ④ 오늘 처음 들어봤다

C2. 현재 귀댁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펫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가?

- ① 예 [→CY로 이동]
 ② 아니요 [→CN으로 이동]
 ③ 가입하려고 했으나 가입 거절당함 [→CD로 이동]

[C2=1 응답자]

CY-1. 현재 가입하신 펫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CY-2.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병원 이용 후 현재 가입하신 펫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거부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 CY-2a.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병원 이용 보험금 청구가 거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CY-3. 현재 가입하신 펫보험은 언제 가입하셨습니까? 펫보험이 여러 건일 경우 최초로 가입하신 펫보험을 기준으로 가입시 반려동물의 나이를 적어주세요.

- CN-1. 현재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향후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음 <-----보통-----> 매우 있음				
①	②	③	④	⑤

CD-1. 펫보험 가입의 거절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선택]

- ① 반려동물 연령 ② 반려동물 질병 내역
③ 반려동물 유전 질병 발생 가능성 ④ 기타()

C4. 반려인들의 펫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C5. 펫보험 가입을 고민하게 하는 주된 원인을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 | | |
|----------------|-------------------|
| ① 보험료 납부가 부담됨 | ② 동물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음 |
| ③ 적절한 판매상품의 부재 | ④ 펫보험을 신뢰할 수 없음 |
| ⑤ 현재 지불 방식을 선호 | ⑥ 기타() |

C6. 펫보험 가입시 가장 선호 방식은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 | |
|----------------------|--------|
| ① 대면(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 | ② 온라인 |
| ③ 전화가입(TM) | ④ 상관없음 |

C7. 아래 표에 제시된 항목들은 펫보험 가입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펫보험 가입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높은 점수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는 낮은 점수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1) 보험료	: 보험 가입자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매월 회사에 납부 하는 금액
2) 보장범위	: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범위(통원비, 입원비, 수술비)
3) 보상비율	: 의료비용 발생 시 보험사가 지불 하는 비율 (예: 40% 약정 시 보험사 40% 부담, 본인 60% 부담)
4) 연간한도	: 보험사가 연간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 (예: 연간 의료비 500만원 약정, 500만원 이상 발생 시 본인 부담)
5) 자기부담금	: 의료 비용 발생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 (예: 1만 원 약정 시, 1만원 제외 보험사와 본인 비율에 따라 부담)

항목		← 중요도 →				
		낮음	1점	2점	3점	4점
1	낮은 펫보험 보험료(매월 4만원, 6만원, 8만원)					
2	넓은 보장 범위(통원비, 통원비+입원비, 통원비+입원비+수술비)					
3	높은 보험금 보상 비율(40%, 60%, 80% 등)					
4	높은 보험금 연간 한도(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5	낮은 자기부담금(1만원, 2만원, 3만원)					

C8. 펫보험 가입시 월보험료 납입 의향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

〈펫보험 가입 약관〉

반려동물 20세까지 갱신 가능(만 10세까지 가입 가능), 총 보장한도 연간 1,000만 원, 자기부담금 2만 원, 의료비 70% 지급

제시금액, 각 75샘플씩 제시, 성/연령/지역 상관없이 랜덤으로 제시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	70,000원	80,000원
---------	---------	---------	---------	---------	---------	---------	---------

C9. 만약 아래 제시된 펫보험에 대해 가입한다면 귀댁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중 어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반려동물이 여러 마리인 경우, 보험 가입이 필요한 반려동물 한 마리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세요.

〈펫보험 가입 약관〉

반려동물 20세까지 갱신 가능, 총 보장한도 연간 1,000만 원, 자기부담금 2만 원, 의료비 70% 지급

구분	종류	반려동물 생년	품종
1. 개	☐		
2. 고양이	☐		

[prog: SQ6-2(반려동물 수)에서 1(개)와 2(고양이)의 합이 1인 경우

→ 종류: SQ6-1, 반려동물 생년: A5, 품종: A2-1 or A2-2 값으로 자동 응답 후 C9 문항은 skip]

[prog: SQ6-2(반려동물 수)에서 1(개)와 2(고양이)의 합이 2 이상인 경우

→ 종류: SQ6-1 응답만 제시, 반려동물 생년: A5 이상으로 입력, 품종: A2-1 or A2-2 값 제시]

C9-1. 매월 아래 제시된 펫보험 가입 약관을 기준으로 [제시금액] 원을 지불하고 펫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펫보험 가입 약관〉

반려동물 20세까지 갱신 가능, 총 보장한도 연간 1,000만 원, 자기부담금 2만 원, 의료비 70% 지급

- 1) 있다 [→C9-2로 이동] 2) 없다 [→C9-3로 이동]

C9-2. 그렇다면 펫보험 가입을 위해 매월 [제시금액의 2배 가격] 원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1) 있다 [→C9-5로 이동] 2) 없다 [→C9-5으로 이동]

C9-3. 그렇다면 펫보험 가입을 위해 매월 [제시금액의 1/2배 가격] 원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1) 있다 [→C9-5로 이동] 2) 없다 [→C9-4로 이동]

C9-4. 그렇다면 귀하는 펫보험 가입을 위해 단 1원도 지불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 1) 지불할 의사가 있다 [→C9-5로 이동]
2) 지불할 의사가 없다 [→C9-6으로 이동]

[C9-4=2 응답자 제외]

C9-5. 그렇다면 귀하는 펫보험 가입을 위해 매월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

[prog: C9-2=1 응답자: 제시금액의 2배 이상 =< C9-5 응답]

[prog: C9-2=2 응답자: 제시금액 이상 =< C9-5 응답 < 제시금액의 2배 이상]

[prog: C9-3=1 응답자: 제시금액 1/2 =< C9-5 응답 < 제시금액]

[prog: C9-4=1 응답자: C9-5 응답 < 제시금액 1/2]

[C9-4=2 응답자]

C9-6. 펫보험 가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험료 납부가 부담 됨 ② 동물 병원을 이용하지 않음
③ 적절한 판매상품의 부재 ④ 펫보험을 신뢰할 수 없음
⑤ 펫보험 없이 현재 지불 방식을 선호함 ⑥ 기타()

D. 제도와 필요성

D1. 귀하께서는 ‘반려동물등록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014년 1월 1일 전국 시행).

- ①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② 명칭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명칭만 들어본 적 있다
- ④ 오늘 처음 들어봤다

D1-1. 동물병원 이용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등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D2. 귀하께서는 ‘진료표준화’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진료표준화란 진료 행위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표준코드 체계에 따라 질병명, 진료항목 내용, 진료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과 진료 절차가 달라 동물병원 고객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①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② 명칭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명칭만 들어본 적 있다
- ④ 오늘 처음 들어봤다

D2-1. 동물병원 이용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D3. 귀하께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진료항목에 대해 동물병원의 계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①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② 명칭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명칭만 들어본 적 있다
- ④ 오늘 처음 들어봤다

D3-1. 동물병원 이용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D4. 귀하께서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공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의문서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의사법'에서 진료기록부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아 동물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기록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 ①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② 명칭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명칭만 들어본 적 있다
- ④ 오늘 처음 들어봤다

D4-1. 동물병원 이용 및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기록부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D5. 동물병원 진료비 감감 및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E. 주 양육자 응답자 정보

DQ1. 귀댁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인가요? 반려동물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명

[DQ1=1명일 경우 DQ2=5(1인 가구) 자동 응답]

[DQ1=2명일 경우 → DQ2= 1, 2, 6 응답 가능]

[DQ1=3명일 경우 → DQ2=1, 2, 3, 6 응답 가능]

DQ2. 귀댁의 가족 구성 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1. 1세대가족(예: 부부, 형제·자매만으로 구성)
2. 2세대가족(예: 부부+자녀로 구성)
3. 3세대가족(예: 부모+부부+자녀로 구성)
4. 4세대가족(예: 조부모+부모+부부+자녀로 구성)
5. 1인 가구
6. 기타()

DQ3. 귀댁의 월평균 가구 전체의 소득(세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근로소득(월급, 상여금, 인센티브도 월평균으로 합산), 사업소득, 임대수입, 재산소득(이자 및 배당금 등), 연금(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이전소득(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수혜금 등), 자녀/가족에서 받은 용돈, 경조소득, 빌린 돈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1) 100만원 미만 | 2) 100~200만원 미만 |
| 3) 200~300만원 미만 | 4) 300~400만원 미만 |
| 5) 400~500만원 미만 | 6) 500~600만원 미만 |
| 7) 600~700만원 미만 | 8) 700~800만원 미만 |
| 9) 800~900만원 미만 | 10) 900~1,000만원 미만 |
| 11) 1,000만원 이상 | |

[DQ1=2명 이상인 경우만 응답]

DQ4. 현재 귀댁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주 양육자가 본인이십니까?

- 1) 예 [→DQ7로 이동]
- 2) 아니요 [→DQ5로 이동]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 관계부처 합동(2023),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 권용수(2021), “반려동물 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검토”, 《법조》 70(1), 법조협회.
- 김경선(2022), “반려동물보험에서의 IT기술 활용”, 《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 김경선(2023),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CEO Brief》, 보험연구원.
- 김경선·강윤지(2023),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CEO Report》, 보험연구원.
- 김동겸(2012a), “손해보험의 이해 1: 손해보험의 개념 및 특성”, 《금융보험 해설》, 보험연구원.
- 김동겸(2012b), “손해보험의 이해 5: 손해의 공동분담-공제와 공동보험”, 《금융보험 해설》, 보험연구원.
- 김상현·김경필·한정훈(2018), “베트남 소비자의 한국산 농식품 구입 의향 결정요인 분석”, 《농촌경제》 4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석영·김혜란(2015),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 김성우·김병률·김종진·주재창·하수안(2021),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1/3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세영·박형인(2017), “반려동물효과: 반려동물 소유와 심리적 건강 간 관계의 메타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28(1),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세중·김석영(2017), “반려동물보험활성화를 위한 과제”, 《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 김유미(2023), “스웨덴 반려동물보험시장 특징 및 현황”,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김재홍(2006),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울산광역시 상수도 수질 개선에 대한 시민지불의사 추정”, 《지방정부연구》 10(2),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현중·이정민·이형용(2019),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희(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각 연도), 《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각 연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류성경(2021),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상품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서강문·이인형·오원석·천명선·우연철·김홍석·박상현(2020),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마련 결과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스웨덴 경쟁청(2018), Bättre konkurrens om fler byter djurförsäkring.

양승현(2023),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와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 변화”, 《Insurance Issues. 월간생명보험》 5, 생명보험협회.

오원석·허주형·이학범·박천식·정학섭·김성수·김정환·위혜진·이병렬·윤홍준·임지훈·이요윤·김성균·박준·박진영·허성호·김수민(2018), 《반려동물(개, 고양이) 의료서비스의 발전방안연구》, 대한수의사회.

이두영·문한필·정대희·김범석·김상현(2022), “농식품 수출업체의 온라인 수출 참여 및 투자의향 요인 분석”, 《농촌경제》 45(1): 1-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우(2023), 《일본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2008), 《로봇·프로빗모형 응용》, 박영사.

이영대(2016),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

이용석(2013), 《보험학개론》, 두남.

이헌동·안병일(2016), “PB 가공식품 및 간편식 소비의 결정요인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3(2): 260-286,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이화영·김현욱·심훈섭·심준원·오민영·이혜원·전진경(2017),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

장진영·구자현·추상호(2017), “CVM 을 활용한 이륜자동차 정비제도 도입시 이용자측면 기대효과 분석”,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2(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승훈·고명덕·박주현(2022),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정원석·임준·김유미(2016),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지인배(2019),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세계농업》 2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김현중·김원태·서강철(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원실·허태호·이상현(2020),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4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2015),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지침 개선》.

홍성원·전국보(2022), “반려동물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금 지급 분석”, 《CIS이슈리포트》, 한국신용정보원.

-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2022), “2022 AVMA Pet Ownership & Demographics Sourcebook”.
- 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2020), The Veterinary Fee Reference, Eleventh Edition.
- Chiu, L.V. & Lhermie, G. & Carzer, C.(2021), “Analysis of the demand for pet insurance among uninsured pet owners in the United States”, Veterinary Record 189(1).
- Heckman, J.J.(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 Jeanty, P.W.(2007), “Constructing krinsky and robb confidence intervals for mean and median willingness to pay (wtp) using stata.” In Sixth North American Stata Users’ Group Meeting, Boston.
- Montoya, M., Morrison, J. A., Arrignon, F., Spofford, N., Charles, H., Hours, M. A., & Biourge, V.(2023), “Life expectancy tables for dogs and cats derived from clinical data”,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 10, 1082102.
- Podberscek, A. L.(2006),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our relationship with companion animals, Veterinary Research Communications 30.
- Springer, S., Lund, T.B., Grimm, H., Kristensen, A.T., Corr, S.A. & Sandøe, P.(2022), “Comparing veterinarians’ attitudes to and the potential influence of pet health insurance in Austria”, Denmark and the UK. Veterinary Record 190(10).
- Sutthibongkot, W.(2019), The motivating factors of pet owner on purchasing pet insurance in Thailand, Mahidol University.
- Teng, K. T. Y., Brodbelt, D. C., Pegram, C., Church, D. B. & O’Neill, D. G.(2022), “Life tables of annual life expectancy and mortality for companion dogs in the United Kingdom”. Scientific Reports 12(1).
- Williams, A., Coble, K., Williams, B., Dicks, M. & Knippenberg, R.(2016), Consumer Preferences for Pet Health Insurance (No. 230144), Souther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 Global Market Insights(2022), “Pet Care Market Report”.

〈발표자료〉

우연철(2023. 7. 19.), 《동물의료 현황[발표자료]》,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은주(2023. 4. 28.), 《반려동물보험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발표자료]》,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 금융연구원.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Agria(2021. 4. 6.), “Husdjur i vart tredje svenskt hem”.

Agria(2022. 2. 8.), “Agria ökar den internationella tillväxttakten och förvärvar Capstone”.

Bloomberg(2023. 3. 23.), “Global Pet Industry To Grow To \$500 Billion By 2030, Bloomberg Intelligence Report Finds”.

고양일보(2021. 10. 27.), “고양시, 은퇴 특수목적견 의료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6. 29.),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 8. 21.), “동물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2020. 8. 2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22. 11. 8. “반려동물 바이오인식기술 동향 및 시사점”. 검색일: 2023. 6. 22.

뉴스1(2023. 9. 6.),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수의사는 발급 의무 있을까[동물법전]”.

니케이아시아(2023. 3. 7.), “Japan insurers bet big on country's \$745m pet policy market”.

데일리벳(2020. 9. 8.), “동물병원 진료부 요청 받으면…진단서·진료항목 포함 영수증 활용”.

데일리벳(2021. 11. 19.), “[수의미래연구소] 베트윈 5 - 영국 수의사가 들려주는 동물의료계②”.

데일리벳(2021. 7. 12.), “정청래 의원,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법 발의”.

데일리벳(2021. 9. 23.), “[수의미래연구소] 베트윈 1 - 미국 수의사가 들려주는 전문수의사”.

데일리벳(2021. 9. 27.),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313만. 인구주택총조사 해보니 반토막”.

데일리벳(2022. 1. 5.), “동물병원 수의사의 ‘전문’의’ 광고 불법…최대 면허효력정지”.

데일리벳(2022. 6. 7.), “반려동물 이력제,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먼저 도입한 일본”.

데일리벳(2023. 5. 26.),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어디까지 왔나”.

데일리벳(2023. 6. 28.), “대한수의사회,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예 반대 재확인”.

데일리벳(2023. 6. 8.), “군견·구조견 은퇴 후 새 삶 지원, ‘보호소’ 내세운 펫샵 금지”.

메트로(2022. 11. 27.), “[3040 CEO 열전] 허성호 인투씨엔에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IT”.

보험신보(2022. 8. 29.), “지자체 펫보험 무상지원제도 시행 확산”.

조선비즈(2023. 11. 15.), “손보험회, 반려동물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조선일보(2023. 2. 2.), “미국, 반려동물 평균 진료비 공시… 독일, 진료수가제 시행”.

조세금융신문(2020. 9. 16), “‘거품(?) 뺐’ 실손보험 손해율 여전히 ‘심각’”.

파이낸셜뉴스(2023. 1. 26.), “반려동물도 반려인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하고 싶다”.

팜뉴스(2022. 7. 11.), “‘수의사 전문의 제도’, 수의사·수의대생 80%가 원한다”.

한국반려동물신문(2022. 7. 15.), “[펫보험3.0시대] 미운오리 '반려동물 보험금 청구시스템'...펫보험 활성화로 황금알 낳을까”.

한국보험신문(2003. 1. 24.), “애견, 가족 일원으로 자리매김”.

해피펫(2022. 12. 11), “수의계 “수의사 공급과잉…부산대 수의대 신설 중단하라”

CEO스코어데일리(2023. 5. 8.), “펫보험에 주목하는 정부·보험업계, ‘동물 등록제’ 변수 부상 이유는”.

Gröna arbetsgivare(2020. 10. 27.), “Med anledning av rapportering i TV4 om prissättning i djursjukvården”.

Kotra(2023. 10. 31.), “스웨덴 반려동물 사료 시장동향”.

MarketBeat(2023. 6. 28.), “Down Over 80%, is Pet Insurer Trupanion Worth the Risk Premium?”.

VetHelpDirect(2022. 8. 18.), “Do vet prices vary much and why?”.

Forbes Advisor(2023. 3. 29), “How Much Does A Vet Visit Cost?”.

Bloomberg(2023. 3. 23.), “Global Pet Industry To Grow To \$500 Billion By 2030, Bloomberg Intelligence Report Finds”.

〈주요 법령〉

동물보호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검색일: 2023. 12. 5.

수의사법(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검색일: 2023. 12. 5.

보험업법(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 검색일: 2023. 12. 5.

〈온라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검색일: 2023. 6. 26., 2023. 12. 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수의사법>), 검색일: 2023. 6. 26.,

2023. 12. 3.

그랜드 뷰 리서치 홈페이지(<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pet-insurance-market>), 검색일: 2023. 9. 20.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 2023. 12. 19.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53264&cid=42883&categoryId=59597>), 검색일: 2023. 9. 22.

네이버페이 증권(<https://m.stock.naver.com/marketindex/exchangeWorld>), 검색일: 2023. 9. 16.

네이버페이 증권(<https://m.stock.naver.com/marketindex/exchangeWorld>), 검색일: 2023. 9. 16.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 검색일: 2023. 11. 1.

대한민국 대통령실(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 120대 국정과제, 검색일: 2024. 9. 19. 2023. 11. 1.

동물진료비닷컴(<https://www.anicom-navi.com>), 검색일: 2023. 12. 3.

메리츠화재 공식 보험상품몰(<https://store.meritzfire.com/>), 검색일: 2023. 10. 6.

메리츠화재 공식 보험상품몰(<https://www.ppmint.com/pet/product.do#!/>), 검색일: 2023. 9. 17.

미국 동물병원협회(<https://www.aaha.org/aaha-guidelines/life-stage-canine-2019/canine-life-stage-definitions/>, <https://www.aaha.org/aaha-guidelines/life-stage-feline-2021/feline-life-stage-definitions/>), 검색일: 2023. 11. 18.

미국 동물병원협회(<https://www.aaha.org/your-pet/pet-owner-education/aaha-guidelines-for-pet-owners/>), 검색일: 2023. 12. 19.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https://www.americanpetproducts.org>), 검색일: 2023. 12. 3.

미국 수의사협회(<https://www.avma.org/news/new-report-takes-deep-dive-pet-ownership>), 검색일: 2023. 12. 2.

미국 주별 라이선스 비용(<https://spoilt pups.com/dog-license-requirements-by-state/>), 검색일: 2023. 6. 22.

삼성화재(<https://www.samsungfire.com/>), 검색일: 2023. 10. 6.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https://animal.seoul.go.kr/support2>), 검색일: 2023. 11. 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80

871), 검색일: 2023. 12. 26.

스웨덴 경쟁청(https://www.konkurrensverket.se/globalassets/dokument/informationsmaterial/rapporter-och-broschyrer/rapportserie/rapport_2018-6.pdf), 검색일: 2023. 12. 20.

스웨덴 고양이 협회(SVERAK)(<https://www.sverak.se/om-sverak/siffror-statistik/>), 검색일: 2023. 12. 11.

스웨덴 농무부(<https://jordbruksverket.se/e-tjanster-databaser-och-appar/e-tjanster-och-databaser-djur/hundregistret/statistik-ur-hundregistret>), 검색일: 2023. 12. 11.

스웨덴 농무부(<https://jordbruksverket.se/languages/english/swedish-board-of-agriculture>), 검색일: 2023. 12. 11.

스웨덴 농무부(https://jordbruksverket.se/Personal/inom/djurens_halso_och_sjukvard/Journalforing_intygsskrivning_tystnadsplikt_delegering_och_rapportering), 검색일: 2023. 12. 11.

스웨덴 수의사협회(<https://www.svf.se/veterinarmedicin/svfs-riktlinjer/>), 검색일: 2023. 12. 4.

스웨덴 펫보험 비교 사이트(<https://www.hundar.se/hundforsakring>), 검색일: 2023. 12. 4.

아이안 동물의료센터(<http://www.aianamc.co.kr/health-checkup-center/>), 검색일: 2023. 11. 18.

아이펫 홈페이지(<https://www.ipet-ins.com/products/uchinoko-light/compensation/>), 검색일: 2023. 12. 4.

일본 애니콤홀딩스 웹사이트(<https://www.anicom.co.jp/en/company/outline/>), 검색일: 2023. 12. 3.

애니콤사 홈페이지(<https://www.anicom-sompo.co.jp/products/>), 검색일: 2023. 12. 4.

야노경제연구소(https://www.yanoresearch.com/en/press-release/show/press_id/3053), 검색일: 2023. 12. 3.

우리엔(<https://www.woorien.com/>), 검색일: 2023. 9. 18.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A%B3%A0%EC%96%91%EC%9D%B4>), 검색일: 2023. 11. 13.

위키피디아(https://sv.wikipedia.org/wiki/Svenska_Kennelklubben), 검색일: 2023. 12. 12.

인트우씨엔에스(<http://intoh.monoalliance.com/>), 검색일: 2023. 9. 18.

인투씨엔에스(https://www.intocns.com/bbs/notice_view.php?idx=36), 검색일: 2023. 9. 18.

일본 손해보험 판매 웹사이트(<https://ppnet.co.jp/pet-hoken/plan/>), 검색일: 2023. 12. 3.

일본 수의사회 홈페이지(<http://nichiju.lin.gr.jp/about/kitei.html>), 검색일: 2023. 12. 4.

일본 수의사회(<http://nichiju.lin.gr.jp/small/ryokin.html>), 검색일: 2023. 12. 4.

일본 펫푸드협회(<https://petfood.or.jp/topics/img/221226.pdf>), 2022년 전국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검색일: 2023. 12. 3.

코리아안리(<https://www.koreanre.co.kr/>), Insurance World. No.427, 검색일: 2023. 12. 3.

IBIS World(<https://www.ibisworld.com/industry-statistics/market-size/pet-insurance-united-states/#:~:text=Questions%20Clients%20Ask%20About%20This%20Industry&text=The%20market%20size%2C%20measured%20by,industry%20increased%205.7%25%20in%202022.>), “Japan insurers bet big on country's \$745m pet policy market”, 검색일: 2023. 9. 20.

AAHA 홈페이지(<https://www.aaha.org/globalassets/02-guidelines/2023-aaha-management-of-allergic-skin-diseases-in-dogs-and-cats-guidelines/resources/2023-aaha-management-of-allergic-skin-diseases-guidelines-new.pdf>), 검색일: 2023. 12. 3.

AAHA 홈페이지(<https://www.avma.org/AVMA-policies/PRINCIPLES-OF-VETERINARY-MEDICAL-ETHICS-OF-THE-AVMA>), 검색일: 2023. 12. 3.

anicom(<https://www.anicom.co.jp/ir/>), 2022-2024 애니콤 중기계획, 검색일: 2023. 12. 3.

CVMAinLine 홈페이지(<https://cvma-inline.net/wp-content/uploads/2020/02/MEDICAL-RECORDS-FAQ.pdf>), 검색일: 2023. 12. 2.

e-Gov포털(<https://www.e-gov.go.jp/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검색일: 2023. 12. 2.

e-Gov포털(<https://www.e-gov.go.jp/獣医師>), 검색일: 2023. 12. 3.

GlobalStockPicking(<https://www.globalstockpicking.com/2022/09/25/anicom-dominant-japanese-pet-insurance/>), 검색일: 2023. 12. 3.

Google(<https://www.google.com/>), 검색일: 2023. 12. 4.

healthypaws(<https://www.healthypawspetinsurance.com/claim-examples>), 검색일: 2023. 12. 4.

JAPAN PET FOOD ASSOCIATION(<https://petfood.or.jp/data/chart2022/index.html>), 검색일: 2023. 12. 3.

Länsförsäkringar AB 연례보고서(<https://www.lansforsakringar.se/stockholm/other-languages/english/about-lansforsakringar/financial-reports/agria-djurforsakring/>), 검색일: 2023. 12. 14.

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NAPHIA)(<https://naphia.org/industry-data/about-this-data/>), 검색일: 2023. 12. 3.

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NAPHIA)(<https://naphia.org/industry-data/section-1-gross-written-premium/>),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2023, 검색일: 2023. 12. 3.

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NAPHIA)(<https://naphia.org/industry-data/section-2-total-pets-insured/>), 검색일: 2023. 12. 3.

Petkeen(<https://petkeen.com/pet-insurance-market-share-by-brand/>), 검색일: 2023. 12. 3.

Petkeen(<https://petkeen.com/pet-insurance-market-share-by-brand/>), 검색일: 2023. 12. 3.

SALARY EXPERT by ER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https://www.salaryexpert.com/>), 검색일: 2023. 9. 16.

STATISTA(<https://www.statista.com/forecasts/920375/veterinary-activities-revenue-in-sweden>), 검색일: 2023. 12. 11.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15339/pet-care-spending-per-capita-worldwide/>), 검색일: 2023. 12. 3.

Svensk Försäkring(<https://www.svenskforsakring.se/om-oss/>), 검색일: 2023. 12. 12.

Svensk Försäkring(<https://www.svenskforsakring.se/statistik/skadeforsakring/hem—villa-foretags—och-fastighetsforsakring/djurforsakringar/>), 동물보험 통계(2023. 5), 검색일: 2023. 12. 12.

Trupanion(<https://www.trupanion.com/enrollments/plan-detail?refnum=fc173658-4d56-4187-97d6-cfe39c409924>), 검색일: 2023. 12. 19.

UCI(<https://www.ucishredding.com/how-long-do-veterinary-offices-keep-records/>), 검색일: 2023. 9. 20.

Vets for Pets(<https://www.vets4pets.com/services/clinical-records/#:~:text=How%20long%20will%20my%20vet,a%20minimum%20for%20five%20years>), 검색일: 2023. 9. 20).

Zurich(<https://www.zurichssi.co.jp/pet/quote/>), 검색일: 2023. 12. 18.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https://www.iii.org/fact-statistic/facts-statistics-pet-ownership-and-insurance>),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s National Pet Owners Survey(2011-2012, 2013-2014, 2016-2016, 2017-2018, 2019-2020, 2021-2022), 검색일: 2023. 12. 2.

〈관련 자료 목록〉

김재성(2020), “텔레바이오인식기반 반려동물 개체식별기술 표준화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30(4), 한국정보보호학회.

문진산(2013), “동물등록제에 사용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기준규격 설정 및 조작요령”, 《대한수의사회지》 49(6), 대한수의학회.

Yahoo finance(<https://finance.yahoo.com/>), 검색일: 2023. 12. 4.

Ahmad, M., Ghazal, T. M., & Aziz, N.(2022), “A survey on animal identification techniques past and pres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Innovative Sciences 1(2).

Friedmann, E. & Son, H.(2009), “The human-companion animal bond: how humans benefit”, Veterinary Clinics of North America: Small Animal Practice 39(2).

Hanemann, M., Loomis, J., & Kanninen, B.(1991),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3(4).

Kumar, S. & Singh, S. K.(2018), “Monitoring of pet animal in smart cities using animal biometrics”, Future Generation Computer Systems 83.

Nation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2019), A Regulator’s Guide to Pet Insurance.

일본 e-GOV 법령(<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8AC1000000105>), 검색일: 2023. 12. 3.

KREI

www.krei.re.kr



펫보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